

‘청소년’에 대한 세대 사회학적 접근

- 한국 가톨릭 주일학교 내에서의 세대간 각축을 중심으로 -

2004년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오 찬 호

‘청소년’에 대한 세대 사회학적 접근

- 한국 가톨릭 주일학교 내에서의 세대간 각축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전 상 진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 년 7 월 일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오 찬 호

논 문 인 준 서

오찬호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7월

주심 김 무 경 ①인

부심 김 경 만 ①인

부심 전 상 진 ①인

가족, 인연, Lina, 육체적 건강, 긍정적 사고, 그리고 이에 대한 도리...

이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은 삶의 여정에서
소중함으로 체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나의 하느님께 그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따름입니다.

〈 목 차 〉

Abstract	v
국문초록	vi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논문의 구성 및 연구방법	3
 II. 이론적 검토	 6
1.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	6
1.1 청소년기의 필연적 특징들	6
1.2 청소년기에 대한 일반적 인식들	9
1.2.1 청소년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9
1.2.2 청소년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 ‘자율성(autonomy)’의 강조	12
1.3 소결 :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의 편협성이 주는 한계	17
 2. 세대 사회학적 논의	 18
2.1 청소년 문제를 세대 사회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배경	18
2.2 세대 개념의 구분	22
2.2.1 가족적세대와 사회적세대	22
2.2.1.1 가족적세대	22
2.2.1.2 사회적세대	24
2.2.2 교육학적 세대	25
2.2.2.1 가족적세대와 관련된 전통적 교육세대	25
2.2.2.2 사회적세대와 관련된 새로운 교육세대	27
2.2.3 소결 : 사회적세대의 등장이 ‘세대구분’에 함의하는 점	30

2.3 칼 만하임(Karl Mannheim)의 세대 사회학적 관점을 통한 사회학적세대의 이해	31
2.3.1 만하임의 세대 이해	31
2.3.2 만하임의 세대특징	35
2.3.3 만하임의 세대 형성 과정	37
2.4 모라토리움(Moratorium)모델이 제시하는 청소년세대 이해를 둘러싼 세대간 각축 모습	41
2.4.1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	42
2.4.2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	44
2.5 세대 사회학적 논의의 지향점 -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의 논의를 중심으로	45
2.6 소결 - 세대구분을 통한 세대간의 충돌지점(세대갈등)에 대한 이해	48
 3. 한국 가톨릭 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이해	52
3.1 주일학교를 둘러싼 문제양상	52
3.2 기존연구들의 이해	53
3.2.1 주일학교 학생 수의 감소 - 위기 위식의 출발	53
3.2.2 청소년기의 종교 심리학적 이해 - 위기에 대한 진단기제	55
3.2.3 주일학교 공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다양한 측면의 간과	57
 4. 소결 - 세대 사회학적 관점의 이해를 통한 주일학교 연구의 방향	59
 Ⅲ. 한국 가톨릭 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세대 사회학적’ 접근	61
1. 세대간 인식의 차이	61
1.1 사제들의 인식	61
1.2 교리교사들의 인식	62
1.3 청소년들의 인식	63
1.4 각 세대간 인식에 대한 상호반응들	64

2. 세대간 특징에 대한 이해	69
2.1 사제세대의 특징	69
2.1.1 가족적세대의 특징이 강한 사회적세대	69
2.1.2 전통적 교육세대	73
2.1.3 사제세대의 숙명성 이해	75
2.2 교리교사세대와 청소년세대의 특징	77
2.2.1 가족적세대의 특징이 약한 사회적세대	77
2.2.2 새로운 교육세대	79
3. 청소년의 신앙교육을 둘러싼 세대간 각축양상 - 모라토리움 모델의 적용	82
3.1 세대간 인식의 차이 ① - 사제들의 인식	82
3.2 세대간 인식의 차이 ② - 교리교사들의 인식	84
3.3 세대간 인식의 차이 ③ - 청소년들의 인식	85
4. 소결 - 세대 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주일학교 내에서의 세대간 충돌 이해	88
IV. 결 론	91
1. 요약 및 한계점	91
2. 의의와 남겨진 과제	92
참고문헌	95

〈 표 목차 〉

〈표 I -1〉 - 면접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5
〈표 II -1〉 - 청소년기에 대한 정신분석학 · 심리사회학적 이론	10
〈표 II -2〉 - 청소년기에 대한 인지적 이론	13
〈표 II -3〉 - 청소년기에 대한 종교심리학적 이해	57
〈표 III -1〉 - 주일학교 내에서의 세대간 인식차이	68

〈 그림 목차 〉

〈그림 II -1〉 - 청소년과 세대개념	39
〈그림 II -2〉 - 모라토리움 모델의 구분	42
〈그림 II -3〉 - Mead의 논의를 통한 모라토리움 모델의 재구성	46
〈그림 II -4〉 - 세대구분을 통한 세대간 갈등지점의 이해	50
〈그림 III -1〉 - 주일학교 내에서의 세대간 각축 양상	89

Abstract

**A Study of ‘Adolescent’ based on Sociology of Generation
- With special focus on conflict of generation in the Catholic Sunday school of Korea -**

**Oh, Chan-Ho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ogang University**

There are two points of view about general understanding of adolescent. One is a negative position of Adolescent ‘as a trouble’, the other is a positive that of ‘at risk.’ However, both are not supported by all generations involved adolescent, because they have one-sided direc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I try to take a point of view of Sociology of Generation.

Generation theory indicates a fundamental cause of generation conflict as macro framework. The divisions between family generation and social generation, traditional education generation and new education generation make it possible to indicate that cause. And to prove the argument, it is necessary to start with Mannheim’s generation theory. As a whole, generation status, generation as a actually, generation unity, which are the principal concept in Mannheim’s generation theory show the concept of generation bond, social dynamic, and internal measure of time. In addition, as we understand Moratorium model based on Mead’s issue, generation theory offers to objective and future direction about adolescent study.

For this, I tried case study about Catholic Sunday school of Korea. With individual interview this research is for discovery of possibilities applying Sociology of Generation as expression concerned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Key Word : adolescent, generation, generation conflict, sociology of generation, Mannheim, moratorium, Sunday school.

국문초록

‘청소년’에 대한 세대 사회학적 접근 - 한국 가톨릭 주일학교 내에서의 세대간 각축을 중심으로 -

오찬호
사회학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청소년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에는 대립적인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청소년을 ‘문제로서’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청소년의 현재 상황을 ‘위험에 놓인’ 상황으로 이해하면서 청소년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들은 한쪽의 지지만을 받을지언정,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세대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는 이 입장들이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소년연구에 대한 편협성의 극복으로서 세대사회학적 관점을 도입하고자 한다.

세대이론은 세대갈등(세대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여준다. 이는 가족적세대와 사회적세대, 그리고 전통적 교육세대와 새로운 교육세대라는 세대간의 구분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본 논문은 만하임의 세대이론을 통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만하임 세대 이론의 주요 개념인 세대상황, 세대맥락, 세대단위는 세대 결속, 사회적 역동성 그리고 시간에 대한 내면적 규정을 보여준다. 또한 미드의 관점을 바탕을 둔 모라토리움 모델의 이해를 통해 세대이론은 청소년 연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미래적인 방향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론의 이해를 위해, 연구자는 한국 가톨릭 주일학교 내에서의 청소년에 관한 이해양상을 사례연구로 시도하였다. 개별적인 심층 인터뷰에 바탕을 둔 이 과정은 세대간의 각축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 세대 사회학의 적용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제어 : 청소년, 세대, 세대 충돌, 세대 사회학, 만하임, 모라토리움(청소년유예기), 주일학교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청소년’은 언제나 시대의 화두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사회와 기성세대는 이러한 화두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관심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의 다양함에서부터 청소년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한국경제신문, 2005. 5. 4), 음란물로부터 보호(세계일보, 2005. 3. 29; 서울신문, 2005. 4. 1), 편향적인 교과서로부터 얻게 될 피해에 대한 걱정(국민일보, 2005. 1. 24), 약골청소년에 대한 우려(한국일보, 2004. 12. 27), 내신 점수의 파행에 대한 걱정(서울신문, 2005. 5. 7) 등의 언론관심에 이르기까지 주변에서 쉽게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최근 모습들은 이러한 관심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교육정책에 대한 반응에서, 폭력적 측면에서, 문화적 측면 등에서 기성세대에게 걱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교육정책에 반발하여 집회를 가지기도 하며, ‘일진회’라는 이제 낯설지 않는 폭력조직은 학교 깊숙이 자리를 잡아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노는 인간)가 되기 위하여 독하게 아껴 무섭게 소비, 즉 야누스적 소비를 하는 Na세대¹⁾의 모습에 기성세대들은 이해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기성세대의 관심’과 ‘그것을 대하는 청소년세대’간의 긴장관계는 청소년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든, 청소년 문화에 초점을 맞추든 간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직접적인 목소리 - 예를 들어 청소년 정책 과정에서 청소년은 늘 ‘대상’으로만 존재했지, ‘주체’로 존재한적 없기에(이동연, 2003b: 34) 청소년 기본법이 인권법으로 전환(Ibid: 44)되어야 하는 등의 주장 - 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대담론’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문제의 부각은 곧 ‘세대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이러한 ‘세대담론’은 청소년세대를 신세대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러한 신세대를 소비

1) Na세대에 대한 논의는 조선일보(2005.5.14~27)의 ‘Na 세대, 新 20대 탐험’ 시리즈를 바탕으로 하였다. 기사의 논의가 20대 초반의 ‘세대특징’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10대 청소년’이라고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같은 청년세대 내에서도 10대와 20대가 더 이상 동질적이지 않음에 주목하는 이동연(2003a: 101, 2004: 148)의 ‘세대의 뚜렷한 구별짓기’라는 연구를 볼 때는 더욱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10대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 특히 ‘청소년 문화의 급격한 변화’등에 주목한다면 Na세대를 통하여 10대를 조망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향적, 개인지향적, 탈 권위지향적이라는 세 가지 특성으로 요약(박재홍, 2005: 189-190; 195-197)하면서 신세대 예찬론, 신세대 비판론, 신세대 비판적 지지론 등(Ibid: 199)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의 구체적인 양상은 주로 미디어에 의해 P세대(Participant generation), W세대(Worldcup generation), R세대(Red generation) 등 신세대의 참여적인 모습에 주목되거나 아니면 PANTS²⁾(이동연, 2004: 144) 세대 등 신세대의 새로운 소비형태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범람하는 세대개념은 ‘청소년세대를 기성세대가 지켜주어야 하는 것’에서부터 ‘청소년세대의 돌출성에 대한 이해가 무지하다는 것’에 이르는 여러 논쟁의 중심에서 항상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분명, ‘세대’라는 개념은 청소년을 둘러싼 모종의 또 다른 화두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담론이 이전 세대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들 특유의 사고방식과 행위방식이 그들의 성장배경, 혹은 세대경험과 연관될 것이라는 가설로부터(박재홍, 2005: 188)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세대담론이 항상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특정한 사회현상이나 사건, 혹은 주도세력에 의해 그 가치판단이 일방적으로 내려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동연, 2004: 136-137).

정리해보면 ‘청소년과 세대’에 대한 필연적인 상관성,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 문제’를 논할 때 ‘세대에 대한 이해’를 동반함인 필수적인데 그 전개방향의 정확성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본 연구의 출발지점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접근의 한계’를 ‘피해갈 수 없는 세대이론의 이해’를 통해 고찰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해, ‘세대 사회학적 접근’이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편협성을 얼마나 극복할 것인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이러한 세대 사회학적 접근을 실제로 청소년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한 ‘한국 가톨릭 주일학교’에 적용시켜 그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일학교는 교육 전달자세대에 위치하고 있는 사제세대와 전수자세대인 청소년세대, 그리고 그 가운데에 교리교사세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들은 어느 청소년 중심의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역동적인 청소년의 이해를 둘러싼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안에 존재하는 각 세대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세대들의 특징과 세대특징이 형성되는 숙명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

2) Personal(개별화, 개인화, 개성화), Amusement(인생의 가치관을 즐거움에 두고 심각한 것을 기피함), Natural(자연애의 강한 욕구), Trans-boarder(나이나 성에 대한 구분을 거부함), Service(서비스에 있어서 하이테크와 하이티치를 추구함)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는 청소년 신앙교육을 둘러싼 세대간의 각축양상을 세대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면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이해를 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1.2 논문의 구성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나누어 질 것이다. 먼저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를 II장 1절을 통해 살펴보고 II장 2절에서는 ‘세대 사회학적 논의’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대 사회학적 접근이 청소년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국 가톨릭 주일학교’를 실제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III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장 1절,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을 둘러싼 대립적인 입장을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으로 구분하여 상호 대비되는 차이점을 알아봄과 동시에 이 입장들이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청소년기 이해의 편협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II장 2절, ‘세대 사회학적 논의’는 앞선 장에서 강조한 ‘편협성’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서의 역할이 강조 될 것이다. 이는 ‘세대이론’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대차이’와 ‘세대갈등’에 집중되는 ‘세대담론’을 극복하고 ‘숙명적인 세대간 특징’을 고찰하여 ‘세대 구별짓기’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Karl Mannheim의 세대 사회학적 논의를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이론 모델로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 될 ‘세대 사회학적 논의’들은 청소년 유예기를 둘러싼 세대간의 입장차이, 즉 ‘모라토리움(moratorium)’ 모델을 통해 더욱 분명한 시각화를 가지게 될 것이며, Magaret Mead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세대 각축전의 미래적 모습을 추측 하고자 한다. II장 3절에서는 본 연구의 실제 연구사례가 될 ‘주일학교’에 대한 사전 이해를 통해, 세대 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III장은 ‘한국 가톨릭 주일학교’에 대한 사례분석이다. 여기서는 앞서 논의한 입장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세대간 인식의 차이, 세대간 특징에 대한 이해, 청소년 신앙교육을 둘러싼 세대간 각축양상이 사제세대, 교리교사세대, 청소년세대들이 각각 밝히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본 연구에 접근하는 이유는 질적 면접을 통한 접근이 양적 방법론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복잡한 양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이 우선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주일학교’에 대한 연구에서 질적 방법론적 접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에 있다.

물론 이미영(2005)의 경우 이러한 주일학교에 대한 질적 연구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양적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면접 조사지에 의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서 주일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소리를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는 구체적인 주일학교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주일학교 연구에 대한 대부분의 접근은 통계적 수치와 심리학적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러한 연구는 실제로 주일학교라는 필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대간의 상이한 인식의 차이와 대립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질적 면접을 통해 주일학교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차이, 세대간의 주도권다툼을 둘러싼 각축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세대충돌이 이루어지는 세대 각각의 고유한 숙명적 세대상황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연구자가 선정한 개별대상자들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날 연구의 방향이 일반화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간과되어 있는 질적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드러나 있지만’, ‘연구에서는 규명되지 않는 부분’을 밝히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면접 대상자는 <표 I -1>과 같이 총 9명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주일학교 내에서 핵심적으로 구분되는 범주를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전달자세대(사제집단)와 전수자세대(청소년)로 구분 지었다. 그리고 사제집단으로부터 전수자세대에 위치에 있으며, 청소년들로부터 전달자세대에 존재하는 교리교사 집단을 또 하나의 범주로 선정하였다. 교리교사 집단은 앞으로 연구 전개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주일학교 현장’에 가장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되었으며 실제로도 가장 많은 면접내용이 인용되었다. 특히 교리교사 모두를 9년차 이상의 장기근속교사를 선정하여 주일학교의 문제점이 통시적으로 고찰될 수 있게끔 하였다.³⁾

면접은 2005년 1월부터 4월에 걸쳐, 각 범주별로 3명씩 진행되었다.⁴⁾

3) 주일학교 교리교사는 일반적으로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당에 따라 ‘어머니 교사’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순수 봉사직으로 교회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근속연수가 대단히 짧은 편이며 이는 여러 부분에서 문제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신장호, 2003: 33-40; 조재연, 2004b: 91; 2004c: 85-92). 이렇게 볼 때 교리교사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장기근속자’를 통한 접근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본다.

4) 사제집단의 경우 3명으로 최종 압축되기 까지 여러 시행착오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최초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40-50대의 본당 주임신부를 통해 좀 더 확실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히고 싶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우선 본 연구주제에 대한 설

세대 구분	분류	성별	연령	조사범주 사항	세 부 사 항
전달자 세대 ⁵⁾	사제 A	남	37	사제(5년차)	‘가’ 교구 본당 보좌 신부
	사제 B	남	38	사제(8년차)	‘나’ 교구 본당 주임 신부 (교구 내 청소년 담당 특수사목 병행)
	사제 C	남	32	사제(3년차)	‘다’ 교구 본당 보좌 신부
전달자 + 전수자 세대	교리교사 D	여	29	교리교사(9년차)	모태신앙, 現 가톨릭 청소년교육기관 근무
	교리교사 E	남	28	교리교사(9년차)	모태신앙, 現 소속 교구 내 청년연합회 부장
	교리교사 F	남	32	교리교사(11년차)	대학교 때 입교, 現 일반 고등학교 교사
전수자 세대	청소년 G	남	19	주일학교 학생	모태신앙,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참석
	청소년 H	남	19	주일학교 학생	중학교 3학년 때 입교
	청소년 I	여	18	주일학교 학생	모태신앙, 현재 냉담 중

〈표 I -1〉 -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선정은 실제로 주일학교에 많은 관련을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제들의 경우 본당에서 주일학교 담당을 하거나, 교구 내에서 청소년관련 사목에 종사하는 자들로 선정하였다. 교리교사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 근속교사를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으로 삼았으며, 학생들의 경우 주일학교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교리교사와 학생들의 경우 언제부터 가톨릭 신자였는지를 ‘모태신앙’, ‘입교시기’ 등으로 구분을 하였다. 이는 주일학교에 대한 경험의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는 세대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교리교사 집단과 청소년 집단이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⁶⁾

명을 들은 후 ‘인터뷰 거부’가 있었다. 특히 모 신부는 ‘연구자의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면서 강력히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설교식 인터뷰’가 너무 많았다. 즉 주일학교 안에서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었지만, 연구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많은 신부님들이 마치 주일날 신자들을 상대로 강론을 하듯이 ‘청소년 존재’, ‘현대사회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 일장 설교식의 인터뷰를 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전개 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다시 인터뷰 대상자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본 연구자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깊이 있는 면접이 가능하게 이루어진 사제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30대의 신부였다.

5) 본 연구에서 전달자세대는 ‘사제’를 가리킨다. ‘사제’는 ‘신부’와 같은 의미이며, 여기서는 문맥에 맞추어서 두 가지 용어를 모두 사용하게 될 것이다.

6)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태신앙’등과 같은 ‘신앙의 기간’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설정하

면접은 각 범주별 2명에 대해서는 각각 60분정도씩(청소년 G, H는 동시 진행) ‘비형식적 심층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진행된 면접에서 나타나게 된 유형을 중심으로 60분정도의 시간동안 질문에 답을 하는 식의 진행을 하였다.⁷⁾ 이 같은 방법을 취한 이유는 비형식적 인터뷰에서 들어나는 상이한 인식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면접에 있어서, 연구자와 연령대가 비슷한 교리교사의 경우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사제집단의 경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을 밝힌다(각주 4참조). 아울러 청소년 I의 경우, 주일학교 내에 존속하는 사람들만으로 면접을 하는 것은 세대간의 갈등양상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냉담자’인 I를 선정 하였지만, 실례로 I의 경우, 대상자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부터 워낙 주일학교에 관심이 없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도 주일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확실하게 말하지 않아(본인의 말로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또한 9명의 대상자 중 4명의 경우는 연구자가 차후 기록의 용이함을 위해서 녹취를 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나머지의 경우 녹취를 거부하였다.

II. 이론적 검토

1.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

1.1 청소년기의 필연적 특징들

Philippe Ariès(2003)는 그의 저서 『아동의 탄생(*L'enfant et la vie familiale sous l'ancien régime*)』에서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생애 주기의 한 독자적인 범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온 이후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근대 이전에도 아동과 청소년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어른들의 생산과 공동체 활동에 배제되지 않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의 ‘작

였다. 연구자는 현재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모태신앙을 거쳐 유년기부터 자연스럽게 주일에 성당에 나오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주일학교의 ‘잘’ 나오는 청소년들일지라도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에 잘 따르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그저 습관처럼’ 참석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나타내고 싶었다. 하지만 연구자의 이러한 의도는 실제 인터뷰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음을 밝히는 바이다.

7) 예를 들어 사제에게 인터뷰를 할 때 “어떤 교리교사는 사제들의 이러한 부분을 문제 삼는다고 하었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식의 접근이라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은 어른’이라는 것이 그의 관점이었다.⁸⁾ 다시 말해, 생애 주기를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나누어 범주화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자본주의화 과정과 함께 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어른’이었던 아이들을 ‘아동’이라는 독자적인 범주로 묶어 내고 미성년인 ‘아동’의 세상과 성인인 ‘성인’의 세상에 대한 분리가 바로 이 시기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폭력과 강제의 희생물이었던 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의 인권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조한혜정, 2000c: 136-137), 청소년기 역시 이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게 된다.

청소년기(adolescent)란 용어는 ‘성장하다’ 또는 ‘성숙해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동사 *adolescere*에서 파생된 것이다.⁹⁾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놓여 있는 성장의 시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행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사람들마다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청소년기는 성인기를 향해 신체적·정서적·지적·사회적으로 ‘성숙’해 가지만 이 ‘성숙’이라는 것이 ‘모든’ 측면에서 균형적인 발달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Rice, 2004: 2). 이러한 ‘다름’은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애매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으며, 아울러 ‘편협’한 접근법으로는 ‘애매’함에 대하여 완전한 설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기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¹⁰⁾에 대한 전체적인 수렴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10대를 중심으로, 연령기준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개념을 설정하지만 청소년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학자의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에 그 개념 정의를 정확히 내리기가 어렵다. 즉 청소년기가 언제 시

8) Aries에 따르면 이 시기의 ‘아동기의 부재’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무시되거나, 버림받거나 혹은 경멸당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아동기의 부재’를 ‘아동에 대한 애정의 부재’와는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데 중세시대에는 어른들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아이의 ‘독자성’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아이는 어머니나 유모의 끊임없는 염려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어른과 구별되지 않으면서 곧장 어른의 세계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이다(Aries, 2003: 227).

9) adolescence 외에도 youth, puberty 등이 청소년기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youth에 대한 일반적인 연령학적 범주는 13세에서 25세까지이며(Wyn & White, 1997: 1), youth는 adolescence와 어느 정도 상호혼용이 가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puberty(사춘기)라는 용어는 성적 성숙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기로 국한시키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부터 성적 성숙과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몇 년간이 지칭되는 넓은 의미에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 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아동기와 일부 겹치며, 마지막 2년은 청년기 초기와 겹치는(Rice 2004: 2)것일 일반적이다. adolescence는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는 보다 장기적인 발전의 단계를 총칭하는데, 육체적/생물학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심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youth, puberty, adolescence의 개념의 구분적 이해는 Mitterauer(1992)를 참조할 것.

10) 청소년기에 대한 접근은 크게 생물학적 접근(성적 성숙과 신체적 성장 과정 등), 인지적 접근(사고 방식의 질적인 변화, 정보처리 과정에의 양적인 변화 등), 심리 성적 접근(자아개념, 자기존중감, 정체감 등), 사회적 접근(사회성 발달, 대인관계, 가치관 등)으로 구분(Rice, 2004: 2-3)할 수 있다.

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그 기준 설정은 매우 모호하고 어려운 것이다.¹¹⁾ 즉 청소년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구분하여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한상철 외, 1997: 13-15).

이러한 구분의 ‘모호성’은 청소년기가 갖는 발달과정상의 특수성 때문이다(Ibid: 25; 조재연: 2004b: 93).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상의 특수성 역시 여러 학자들의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바 정확한 규정으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정확’ 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논의들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한상철 외(1997: 25)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부모의 통제와 지시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행하고 싶어 하며, 또한 이때에는 독립에 대한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 취급을 하려는 부모에게 자신의 정신적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성인세대의 관점에서의) 반발과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필연적인 도전성¹²⁾을 특징으로 한 청소년기를 겪는 청소년세대들은 부모에 대한 정서적인 끈이 느슨해지면서 자신의 관심을 가정 밖으로 전환하여 가족 외의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 조재연(2004b: 93)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자유롭고 상호 대등한 수평적인 형적 인간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친구관계가 중요시 되며, 이때의 친구는 아동기 때처럼 단순한 행동을 같이하면서 즐기는 놀이친구가 아닌, 뜻이 같고 자신의 요구나 고민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면서 깊이 사귄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곧 인격적인 결합이 요구되는 친구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발달과정의 ‘특수성’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

11) 조한혜정(2000c: 170-171)에 따르면 후기 근대로 접어들면서 ‘Youth’의 범주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일본에서의 ‘청소년’은 청년인 대학생까지를 포함하며, 중국서는 14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소년궁’과, 40세 장년을 포함하는 ‘공산주의 청년단’까지 거의 사십대까지를 청소년으로 포함시켜 왔다고 한다. ‘중고등학생’을 쉽게 연상시키는 한국의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9세부터 24세까지를 말하며, 대중매체에서는 ‘1318’이라는 줄임말로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인구를 청소년 범주에 넣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의 범주에 청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의견의 불일치’라고 생각한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참으로 제각기라는 것인데 앞선 ‘청소년 기본법’의 경우 당시 제정에 참여했던 청소년 관련학자가 청소년들의 수가 많아야 정부에서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였다(Ibid: 181, 각주 6)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은 정책자의 ‘의도’로, 제각기, 그리고 혼란스럽게 규정되는 존재였던 것이다.

12) 물론 이러한 ‘필연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관심으로, 혹은 그러한 관심을 위해 지금 현재도 수많은 교육현장에서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본연의 도리를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수행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겪어 봄직한 ‘사춘기 시절의 반항’ 정도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는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성’, 즉 ‘기본적 성장발달과 행동기제의 이해’로부터의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은 채, 특수성이 야기한 어떤 ‘결과’에만 집착을 하거나, 혹은 그 ‘특수성’만을 부각한 채 청소년 문제의 행동과 결과에만 초점을 맞출 때에는 바람직한 청소년연구방향이 될 수 없는 것이다(윤진, 1992: 2).

그러한 ‘편협성’은 청소년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양분적인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양분법은 ‘문제’의 청소년과, ‘건전한’ 청소년이라는 대립적 관념을 의미하며, 청소년세대들이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갈등과 방황을 하는 것인지, 혹은 기성세대의 지나친 반응은 아닌지, 또 그것을 대중매체가 과장하고 청소년은 그런 관념에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Ibid: 10)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는 편협성을 추구하고 있다.

1.2 청소년기에 대한 일반적 인식들

1.2.1 청소년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청소년기에 대한 부정적 입장들은 청소년기를 갈등, 방황, 혼돈, 반항 등의 침체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세대를 ‘문제로서(as trouble)’ 바라보면서 다루기 힘든 존재로 보고 있다. 질풍노도(storm and stress), 과도기(transitional period), 주변인(marginal man), 지불유예기(moratorium) 등이 대표적인 ‘부정적인 청소년상’을 야기한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청소년을 걱정하는’ 본연의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만을 부추기게 되면서 청소년들을 난폭하고 우울하며 변덕스럽거나, 게으르고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무책임하다든지, 비도덕적이며 반항적이고 버릇없다는 등의 평가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성인들은 자신의 청소년기와 비교하여 오늘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세대에 비하여 형편없고 무례한 세대라고 비판(한상철 외, 1997: 29-30)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성은 청소년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앞서 말한, ‘질풍노도’ 등 이외에도 최윤미(1998)의 표현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세대의식이나 또는 감정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존재하며 그로 인각 감각적·상징적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또한 기존의 중심 문화와 비연속적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그 시기는 완전성을 갖지 못하고 항상 미완성의 상태로 비판과 저항을 중요한 특징으로 가진다고 한다. 게다가 청소년들은 현실의 일상생

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며 일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늘 미완의 상태로 존재하므로 영속적일 수 없으며 어느 때에는 다른 특성을 가진 형태로 변모 하려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나타난 ‘감각적’, ‘비연속적’, ‘미완성’, ‘비판과 저항’, ‘일시적’, ‘비영속성’ 등이 바로 ‘부정적인 청소년상’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³⁾

주요학자	특징
Sigmund Freud	- 정신분석학 이론(psychanalytical theory)으로 청소년기를 조망 - 성적 흥분, 불안, 성격혼란의 시기 -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와 사회적 기대간의 갈등 - 개인의 정서적 혼란 및 질병
Anna Freud	청소년기 - 내적 갈등, 정신적 불균형, 변덕스러운 행동, 이기적 존재, 고상한 이상주의, 낙천주의, 염세주의, 게으름, 무관심 등으로 표현
Erikson	-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청소년기 - 자기회의, 혼돈, 분산된 사고, 충동성, 권위와의 갈등을 가짐 - 심리적 유예상태(psychosocial moratorium) - 정체감 형성 부재시 역할 혼미에 따른 큰 고통 야기
Havighurst	-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정체감 부족으로 목표 없는 불확실성 속에 존재 - 발달과업(development tasks) -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과제를 숙달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안과 미성숙을 야기
Lewin	- 주변인 -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소속이 변하는 전환 시기 - 청소년 행동의 불확실성(성인과 아동 사이)

〈표 II-1〉 - 청소년기에 대한 정신분석학 · 심리사회학적 이론(Rice, 2004: 24-48).

이러한 ‘부정적인 상’ 들은 청소년을 조망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의 입장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2-1>에서 알 수 있듯이 ‘발달심리’에 초점을 둔 청소년기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심리사회적 관점¹⁴⁾ 등은 청소년기의 ‘격

13) 물론 여기서 최윤미의 연구가 청소년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구에 나타난 청소년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부정적인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14) 윤진(1992: 2-9)에 따르면 그동안 청소년 발달 연구에 주류를 이루었던 심리적 관점(psychological view)과 발달적 관점(developmental view)으로는 청소년기 발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들은 개인이 가진 특유의 연계성이나 인생의 계기를 별로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시대적 변인과 개별적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청소년기의 연

변'을 아주 위험한 상태(윤진, 1992: 9)로 인식하고 있다.

Sigmund Freud는 성적 충동과 공격 본능을 행동의 일차적 원인으로 가정하는데, 즉 개인은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에 따라 동기화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적 충동과 공격적 충동은 사회관습과 직접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며, 본능적 충동과 사회적 기대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개인의 정서적 혼란과 질병의 일차적 원인으로 간주된다(Rice, 2004: 26). 이러한 쾌락원리와 사회적 기대간의 갈등이 청소년기에는 매우 불안하며, 이로 인해 성격혼란이 등장하는 것이 그가 바라보는 청소년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Sigmund Freud의 딸인 Anna Freud는 좀 더 청소년기를 '불안'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녀 역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과 사춘기에 일어나는 정신적 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에 대한 규정이 매우 다양하게 '불안정성'스럽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 발달의 여덟 단계를 제시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갈등상태를 그린 Erikson(1988)은 유아기(신뢰감 형성 대 불신), 초기 아동기(자율성 획득 대 수치심과 자기회의), 놀이 시기(주도성 획득 대 죄책감), 학령기(근면성 획득 대 열등감), 청소년기(자아정체감 형성 대 절망감), 성인초기(친밀감 형성 대 고립), 성인기(생산성 획득 대 침체), 노년기(자아통합의 형성 및 절망감) 등을 통해 개인이 극복해야 할 심리사회적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의 성공유무가 긍정적 자실과 부정적 자실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Rice, 2004: 29-30). 즉, 자아정체감의 획득이라는 과제를 지닌 청소년기가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심리적 유예상태(psychological moratorium)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음이 바로 Erikson이 청소년기를 조망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과업(development tasks)을 통해 청소년기의 과제 수행 여부가 '불안과 미성숙'을 원인이 됨을 말하는 Havighurst(1972: 43-82)는 현대의 청소년들의 '불확실성'을 전제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이러한 과업의 수행을 촉구하고 있다. '발달과업'이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으로서 한 단계에서 발달과업의 성취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단계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는 '한 평생 발달(life-span developmental view)'과 '맥락주의(contextualism)'의 입장에서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개인내적 변화(intraindividual change)와 개인간의 변화(interindividual difference)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해 보여주게 되는 '잠재적 가소성(potential plasticity)'을 중시하고, 동시에 발달도 미리 결정된 계획대호가 아니라 '확률적 생성(probabilistic epigenesis)'에 따라 이루어지는 '청소년세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의 발달도 지장을 받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달과업이란 한 개인이 그 단계에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기술, 지식, 기능, 태도로 정의 될 수 있다. Havighurst가 말하는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은 체격의 인정과 성역할 수용, 동성·이성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 직업의 선택과 준비, 유능한 시민으로서의 지적 기능과 개념 획득,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의 원함과 실천, 결혼과 가정생활의 준비, 적절한 과학적 세계관에 맞춘 가치체계의 형성 등이다.

Lewin은 장 이론(field theory)을 통해 청소년기의 ‘불확실성’에 접근하면서 청소년을 ‘주변인(marginal man)’이라고 칭한다. 장 이론은 개별 청소년의 행동을 특정한 상황 속에서 설명하고 기술하게끔 하는데, 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격과 환경 모두를 고려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즉 아동의 생활공간은 성인의 생활공간과는 달리, ‘금지된 공간’, ‘아동의 능력을 벗어나는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아동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청소년기가 될 때, 청소년들에게 허용되는 ‘공간’이 분명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나타나게 되는 ‘불분명성’을 강조하는 것이다(Rice, 2004: 34-36). 다시 말해, ‘아동에게나 적합한 공간’과 ‘성인에게나 적합한 공간’ 사이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주변인’이 바로 Lewin이 말하는 ‘청소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기를 조망하는 정신분석학, 심리사회학적 관점들의 대부분이 청소년기를 매우 ‘급변’의 ‘불안정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론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기를 부정적으로 묘사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제시된 이론가들이 청소년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⁵⁾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이론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제시된 표현 그 자체’에만 근거하였을 경우 청소년기를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한 상태’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한다.

1.2.2 청소년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 ‘자율성(autonomy)’의 강조

정신분석학적·심리사회학적 이론들이 청소년기를 ‘불안’의 시기로 규정한 것에 비하

15) 예를 들어 Erikson은 청소년기를 자아 강도가 동요하면서 갈등이 증가되는 ‘정상적인’ 위기 단계임을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의 자기회의, 혼돈, 분산된 사고, 충동성, 권위와의 갈등, 자아강도의 약화 등은 ‘적극적’으로 정체감을 탐색하는 시기(Rice, 2004: 28)임을 말하고 있다. ‘질풍노도’를 말한 Hall 역시 청소년기의 심리적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김태련, 1992: 31).

여, 인지(cognition)적 관점들은 청소년기를 충분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로 보고 있다.

주요학자	인지발달 과정			
	영아 · 유아기	→ 아동기	→ 청소년초기	→ 청소년기
Piaget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Selman	자기중심적 미분화 단계	상호교호적 조망 수용 단계	상호적 조망 수용 단계	심층적, 사회적 조망 단계
주요특징	감각경험의 조정	언어습득, 상징사용, 타인입장의 추론	국한된 논리적추론, 중립적 조망 가능	논리적 사고, 타인에 대한 이해, 정확한 의사소통

〈표 II -2〉 - 청소년기에 대한 인지적 이론(Rice, 2004: 36-43).

〈표 II -2〉는 대표적인 인지적 관점들인데, 인간의 인지발달에 관심을 둔 스위스 심리학자 Piaget의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와 사회인지(social cognition) 모델인 Selman의 사회역할 수용(social role taking) 발달단계에서의 ‘심층적 조망 또는 사회적 조망 단계’는 청소년기의 단계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안정된 시기로 보게 하여 준다. 인지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국한된 경험적 논리에서 벗어난 사고가 가능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명제적인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때의 청소년들은 귀납 추리와 연역추리를 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자기가 사고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다루어 이에 대한 이론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이론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청소년기는 사고의 유연성을 겸비하게 되어 문제해결의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사건이 주는 예상외의 결과에도 선입견을 가지지 않게 된다. 즉, 청소년들은 주어진 것을 수용하고 이해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무엇이 가능할지를 생각할 능력도 갖추게 되면서 창조적이고 독창적이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Rice, 2004: 84-91).

여기에서 제시한 인지적 관점들 역시, 청소년기에 대한 ‘직접적인 옹호’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Piaget 등의 이론들이 차후 연구의 방향에 있어서 ‘청

소년기 옹호’에 설득력을 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지적 특징들이 고무시켜 주는 청소년기의 ‘이상주의적(idealistic)’ 입장은 청소년기가 ‘논리적 사고’, ‘사물의 비판적 관찰’,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¹⁶⁾

이러한 인지적 이론이 강조하는 ‘논리적인 청소년’에 바탕을 둔 청소년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러한 입장들은 ‘자율성(autonomy)’이 인정되어야 할 청소년세대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매도되고 있음을 밝힘으로서, 그러한 ‘자율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청소년세대를 ‘위험에 놓인(at risk)’상태로 규정하면서 청소년을 ‘희망의 담지자’, ‘내일의 행위자’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나아가 어떤 연구자들은(허혜경·김혜수, 2002: 298)은 청소년세대가 오히려 과거의 청소년보다 더 성숙함을 지녀 상당히 어른스럽고 독립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상당한 급진성을 보이기도 한다.¹⁷⁾

그들(children)을 또한 사회적 생산(societal production)을 위한 활동적인 공헌자로서 보아야 함이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그들은 그들 고유의 문화(their own child culture)를 창조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Cosaro, 1997: 67).

Cosaro는 아동기에 대한 관심을 예전의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발달과정에만 국한된 언급에서 벗어나서, 역사와 가족 내에서의, 사회적 그룹으로서의 특징으로서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즉 아동의 ‘일상적’인 부분에 주목(Ibid: 46-50)하면서 문화와 사회에 재생산되는 아동의 ‘자율성’에 대한 인정(Ibid: 65)을 강조하고 있다.

16) 다시 말해, 인지적 이론 자체가 ‘옹호적 이론’이라기보다 이것이 여러 연구들의 방향을 “충분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청소년기’를 왜 ‘불안’하다고 하느냐? 스스로 잘 할 것이다!”라는 ‘청소년 옹호’ 쪽으로 충분히 이끌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음을 밝히는 바이다.

17) 사실, 이렇게 젊은 세대의 손을 쉽게 들어주는 것은 16대 대통령 선거,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등장한 세대갈등을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차원에서 분석한 대중언론들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중언론들은 최근의 사회적 대립의 양상에서 나타나는 세대갈등은 인터넷 공론장을 쉽게 체험을 하는 젊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와의 갈등(세계일보, 2005. 1. 4), 세대간에 인터넷 이용률의 많은 차이가 보여주는 기존 체제의 무너짐(동아일보, 2003. 8. 26; 조선일보, 2004. 4. 5)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정보보유에 있어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특징을 가진 20-30대 세대와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세대간의 정보격차 역시 존재하겠지만, 그 차이는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며(세대별 인터넷 이용률, 10대 - 96.2%, 20대 - 95.3%, 30대 - 88.1 %) 50대 이상과의 차이(50대 이상 - 9.3% 이용)에 주목한다면 청소년세대에게도 이와 같은 ‘정보격차의 우위성’을 바탕으로 한 세대갈등과 세대파위를 분석한 대중언론들의 관점을 적용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 듯하다(통계자료 출처, 한국인터넷 진흥원, 2004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일차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삶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돌려줌으로써 사회 문화적 주체로서의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먼저 공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학교를 간다면 어느 학교로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지금까지 학생신분으로서의 존재만을 인정했던 청소년들에게 학생 외의 신분으로, 곧 사회 성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스스로 벌이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 청소년들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삶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돌려줌으로써 사회 문화적 주체로서의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조혜정, 1997: 42; 1998: 56-57; 2000c: 161).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국내논의는 조한혜정의 연구가 있다. 위의 인용문처럼 조한혜정은 ‘청소년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에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조혜정, 1998: 56), 학교를 ‘거부’하는 청소년세대를 조망(조혜정, 1996: 115)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문제를 ‘학력자본과 일상생활을 통해 얻게 된 문화자본과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문제’ (조한혜정, 2000a: 66)로부터 발생한다는 분석을 하면서 한국의 ‘아동’을 ‘아동이기 전에 학생’이라는 특수한 차원에서의 접근(조한혜정, 2000c: 147)을 하고 있다. 특히 조한혜정은 청소년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분법’적인 사고(학생과 근로 청소년, 학생과 불량 청소년 등)에서의 탈피(Ibid: 176-184)를 주장하는 등 청소년 ‘문제’에서 벗어난 청소년 ‘존재’에로의 접근(Ibid: 169-191)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Cosaro와 조한혜정은 청소년세대에게 무조건적인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편협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국내 청소년문화연구에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조한혜정의 경우 너무 지나치게 청소년들의 상황을 피폐하게(조혜정, 1998: 54)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원인을 입시라는 극단적인 선발위주 교육제도와 평준화제도, 군대식 교사문화로 돌리면서(조혜정, 1991: 7; 1996: 117-118) 너무 일방적으로 근대 교육 실패의 징후로서의 ‘교실붕괴’ (조한혜정, 2000a: 64)를 청소년세대의 문제 원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결국 변화를 주도할 힘은 교사들한테서 나와야 한다. 가족 이기주의에 발목을 붙잡히지 않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교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아이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 학생들 사이에 꿈틀거리는 저항의 기운을 읽어내면서, 그들이 숨쉴 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 자라도록 돕는 일, 이것이 바로 혁명의 시작이다(조혜정, 1993: 29).

그렇기에, 조한혜정에게 있어서 청소년세대의 문제를 둘러싼 모든 원인과 해결책은 위의 인용문처럼, 교사들의 각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이 강조된다. 교사가 학교 밖과 안을 연결하여 새로운 문화자본을 열심히 확보하는 ‘경계 넘나들기(cross-over)’ 만이(조한혜정, 2000a: 67) 일련의 청소년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됨을 강조한다. 그러한 교사들의 ‘혁명’을 통한 길만이, 예를 들면 모든 체벌문화의 금지(조혜정, 1997: 44)와 같은 방법을 통한 선택권의 보장만이 청소년들의 소모전을 생산적인 저항(조혜정, 1998: 56-57)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조한혜정의 연구는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의 각자의 상황을 인지해야 함을 강조하며, 현재의 문제 배경을 세대간, 계층간의 인식의 괴리라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된 ‘발달심리’에 국한된 청소년 조망에 대하여 조한혜정(2000b)은 인간 성장을 직접적 과정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청소년세대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그들의 ‘자아형성학’을 이해하는 것만이 상호차이의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분명 이러한 부분들은 기성세대의 관점에서만 인식하는 청소년 이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한혜정이 강조하는 ‘상호세대간의 유기적 연대’ (조혜정, 1997: 33-34)는 기성세대의 역할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세대에게 ‘그들의 자리만을 마련해 주어야 함’ (Ibid: 23)으로 국한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교육과 권력의 종속관계,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 등 학교문화 자체에만(Ibid: 34-38) 집중하는 그녀의 분석은 ‘청소년세대를 호통치는 기성세대의 문화’를 단지 염려(Ibid: 37)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입시교육과 제도교육의 변화만이 한국문화의 ‘발전’임을 강조하고 교육받는 당사자에게 선택(Ibid: 42-43)권을 한없이 주어야 한다는 조한혜정의 연구는 ‘청소년세대’의 지지를 받을지언정, 상호세대를 가르치는 거시적인 틀로서의 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청소년세대가 필연적으로 관계 맺어야 하는 기성세대하구의 ‘관계맺음’이 배제된 일방적인 ‘청소년세대만’을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오직 기성세대에 의한’ 갈등만이 인식지점이며,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 상호간의 충돌에 의한 갈등지점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글이 청소년기에 대한 ‘부정’과 ‘긍정’ 사이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분명 ‘긍정’ 쪽이 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세대가 상호세대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문제점이 진단되고 처방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위에서 살펴본 관점들은 상호간의 공론을 이끌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너무 ‘급진적인 청소년 옹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 ‘청소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라는 입장으로는 청소년세대와 기성세대와의 필연적인 관계

맺음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관점은 이러한 청소년 조망의 부족함을 세대이론으로 극복하고자 함에 있다.

1.3 소결 :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의 편협성이 주는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은 각기의 맥락에 부합되는 한쪽세대의 지지를 받겠지만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원인처방과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본질적 특성과 그것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어떠한 간에 청소년세대는 성인세대에 의해 그들에게 배정된 부정적인 像과 낙인이론에 대결하거나, 아니면 ‘미래의 희망’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면서, 분명 ‘잘’ 성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전 생애(life course)를 걸쳐서 개인에게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광범위하고도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인 청소년기(한상철 외, 1997: 409)는 ‘성장의 의무’라는 ‘필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소년세대의 ‘필연성’이 앞서 언급한 청소년기를 바라보는 대립적인 시각들과 만나면서, 그 문제의 소음이 다각도에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급격한 변동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에 대한 접근(그것이 그들을 이끌어주기 위한 것이든, 신랄한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든 간에)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립적인 입장들이 상호 구분되는 세대지향점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두 가지 관점의 대부분은 사회문제에 강조점을 가지는 정책 지향적이거나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문제로부터 출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즉 청소년들의 문제를 사회문제의 한 부분만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청소년세대가 ‘조종당할 수 있는 세대’ 이상이 되지 못하는 정책지향적인 관점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자, 청소년세대를 객체로 둔 ‘성인세대 지향점 관점’ 이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청소년세대에 대한 성인 세대의 일방적인 불안감과 모호감의 표현이자 성인세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에 대한 반작용일 것이다.

결국 청소년 문제는 ‘자연적’인 청소년세대와 ‘역사적, 상대적, 사회적 의미를 청소년세대에게 부여하려는’ 기성세대와의 각축인 것이다. 그렇기에 막연한 청소년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청소년을 연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청소년문제, 더 정확히 말해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본 기성세대와의 갈등의 거시적 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거시적 틀은 반드시 두 세대간의 관계맺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막연히 ‘청소년’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선, ‘청소년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관심사를 가장 거시적인 틀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대이론이다. 그 거시적 이해의 효율성을 세대이론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세대 사회학적 논의

2.1 청소년 문제를 세대 사회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배경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기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들이 놓여있는 상황을 과연 얼마나 ‘상호관계성’에서 이해하는지, 아니면 ‘독자적 혹은 일방적’으로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달려진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청소년세대’는 분명 다른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이 처한 상황을 둘러싼 모든 주변 세대들하고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세대만’을 조망하는 문제점 도출로는 결국 발전적인 해결책을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러한 방법으로는 청소년세대의 자율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성찰적 자세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장에서 제시할 ‘세대 사회학적’ 관점은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거시적인 틀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즉 ‘청소년 문제’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인 ‘기성세대와의 관계 개선’에 대하여 ‘세대 사회학’은 ‘일방적인 청소년에 대한 접근’보다 더욱 확실한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¹⁸⁾

세대란 개인의 생물학적 성숙과정과 사회구조적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사회현상으로서, 사회구조와 개인행위를 연결하는 지점인 동시에 미적인 관계와 거시적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함인희, 2000: 189). 즉 단순한 시간개념(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30년 주기의 세대개념)이 아닌 ‘사회변화의 역동적 과정 속에서 생물학과 역사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사회현상’이 바로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는 인간경험의 다중(多重)성을 전형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세대간의 ‘복

18) 사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세대’ 연구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는 점은 분명 한계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상진(2004b: 196, 각주2)의 구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청소년 연구가 독자적인 연령집단(cohort)의 ‘내재적인 특성’에 주목한다면, 세대연구는 다른 연령집단과 코호트와의 관계에 보다 주력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들을 혼합하여 청소년 집단(청소년 연구)의 다른 코호트와의 관계(세대 연구)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잡한 양상' (Ibid: 191)을 필연적¹⁹⁾으로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²⁰⁾ 이것이 바로 청소년문제에 '세대'를 통해 접근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다시 말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 청소년세대가 겪어야 하는 다른 세대와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일차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올바른 세대 사회학적 개념을 통해, <세대문제 = '세대차이'의 문제 = '기성세대'의 말을 듣지 않는 세대에 대한 문제>라는 일반적인 세대인식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 문제'가 '청소년을 문제투성이'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과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율성'만을 보는 또 다른 일반적인 인식에서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사실, 세대에 관한 논의는 '세대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이 주류(전상진, 2002, 196)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다. 즉 '세대차이'가 곧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조성남 · 최유정, 2003: 74)된 세대논의가 지금까지의 주류였다고 할 수 있다.²¹⁾

오래 전부터 세대간의 공통점보다는 차이나 갈등의 문제가 학문적으로나 일상적으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세대간의 차이가 반드시 갈등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대간에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 중에는 갈등으로 이어지는 요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요소도 있으며,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

19) 하지만 최정은정(2002)에 따르면 최근의 추세는 '동시대'라는 세대개념은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동질성'에 바탕을 둔 '족(族, class)'개념이 더 빈번하게 등장한다고 한다. 즉, 사회변동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나타나는 변동양상의 중층성이 이러한 '族'의 개념을 발달시켰는데, 이 개념에는 동일세대 속에서도 신세대와 구세대가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넓은 '소비자 집단'으로서의 세대개념을 마케팅 시장에 제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근거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대이론'이 다층적인 현대사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族'개념의 등장이 세대이론을 범람시키는 '소비시장의 기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이 개념 역시 실질적인 '변동'의 양상을 담아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소비시장'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세대개념에 대한 연구자의 회의적인 입장은 각주 20을 통해 참고할 것.

20)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여기서 제시한 세대의 '다중성'과 세대간의 '복잡한 양상'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우선 세대개념의 과잉현상(전상진, 2001: 12-13)이 있다. 매스미디어와 학자들을 막론하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끌만한 단어들과 함께 하나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전전세대, 전후세대, 68세대, 386세대, 샌드위치세대, 독신자세대, X세대, I세대 등)이 마구잡이식으로 제시함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유행에 편승하는 '세대 개념 창출'은 진정한 '진정한 세대간의 다중성'하고는 거리가 있는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개념이 대중문화의 취향을 가르는 기준으로 사용되면서 고도 소비사회의 창조물로서 부각(함인희, 2000: 189-190, 203-205)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사용되는 '세대'는 개인과 사회의 접목지점에서의 '다중성'이 아닌 '자본'의 집중현상이 '계급'이 아닌 '세대'중심으로 이동한다는 (아니면 이동하기를 바라는) 기업의 주목에 의해서 지극히 '만들어진' 개념일 뿐이다.

21) 이와 같은 '세대차이'에 집중된 세대논의에 대해서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세대'연구를 분석한 조성남 · 최유정(2003: 74-78)을 참조할 것.

은 바로 단순한 ‘차이’가 아닌, ‘갈등으로 연결되는 차이들’이다(조성남 · 최유정, 2003: 72).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등장한 세대갈등의 담론은, 그러나 이미 다른 사회영역에서도 제기되었다. ... 학교 붕괴, 혹은 교실붕괴에 대한 토론에서 세대의 문제를 ... 이 토론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학교교육의 위기를 만들어낸 원인중의 하나로 학교제도를 ‘장악’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이 제도에 ‘종속’된 학생 · 성장세대의 문화적 갈등이 첨예화되었음이 지적되었다. ... 교실붕괴의 원인을 세대문화의 충돌로 보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 없이 “단지 새롭게 나타나는(그 속성상 항상 새로울 수밖에 없는) 청소년”과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기성세대의 그것과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교실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전상진, 2003b: 72-73).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세대갈등은 ‘기성세대와 어우러지지 못하는’ 청소년세대의 문화적 특성을 전제하고 있다. 즉 ‘단수’로 존재하는 ‘세대개념’이 아닌, ‘복수’의 세대들이 함께 야기 시킬 수밖에 없는 ‘세대갈등’의 전제에 ‘기성세대’는 고정되어 있고 ‘청소년세대’는 그것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생각, 다시 말해, ‘기성세대’가 중심축에 놓여 있으며, 반대로 ‘청소년세대’는 그 중심에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세대문제’에 출발을 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교실붕괴’의 일차적인 원인이 ‘청소년세대’에게 있다는 것에 집중되며, 또한 상호세대간의 ‘차이’가 일방적으로 ‘갈등’으로 규정 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한성은 기성세대를 청소년을 문화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학습이 강제되어야 하는 학생, 즉 성장세대로 정의하려는 고정관념 안에만 머물게 하고 있으며 학교위기로 표현되는 위기상황을 단지 ‘기성세대와 성장세대의 의식충돌’, ‘성장세대가 학교라는 외부적 틀과 충돌’로만 규정하는 편협성을 지니게 한다(전상진, 2004b: 199).

이러한 이유는, 상호세대간에 마주친 문제들이, 그것이 단순한 차이이든, 심각한 갈등이든, 적절한 진단 없이 처방만 미리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초에 정해져 있었던 처방에서 진단을 추론(전상진, 2003b: 73)하였기 때문이다. 즉, ‘세대간’이라는 ‘세대관계’를 간과하고 ‘세대차이’에만, 혹은 그것이 야기한 ‘세대갈등’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세대관계의 ‘독특성’을 적절히 개념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 ‘세대갈등’, ‘세대차이’는 단순히 기성세대와 성장세대의 의식충돌(세대차이)로 환원될 수 없기에, 제도적이며 역사적인 세대관계에 대한 보다 엄밀하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전상진, 2004b: 199)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연구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점은 막연한 ‘세대차이’라는 일방적인 관점에서의 탈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세대차이’의 지양으로 출발하는 ‘세대’ 연구가 청소년기를 올바르게 조망하는 방법이자, ‘청소년’에 ‘세대’ 연구를 도입하는 본 연구의 이유이기도 하다.

세대차이 연구는 세대차이나 갈등을 상수(常數) · 설명항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세대차이 연구는 세대와 세대관계를 비역사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뿐이며, 세대관계 양상의 변이형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세대연구는 세대간의 차이나 갈등을 ‘이미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으로서 대상을 설명하는 설명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양한’ 세대들의 역사적으로 가변적인 ‘관계맺음’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찾는, 따라서 그 자체 설명되어야 하는 피설명항일 뿐이다(전상진, 2004b: 198-199).

청소년 문제를 ‘세대’ 연구의 ‘올바른 접근법’으로 시작하자는 것은 세대이론의 기본적인 관점이 ‘특정세대’를 언제나 다른 세대와의 미시적 상호작용(social action)과 거시적 상호관계(societal relation)에서 생성되고 구성(construction)되는 것으로 전제하며, 이에 바탕하여 ‘세대간의 위기’의 원인을 특정 세대, 예컨대 기성세대나 성장세대의 특성으로만 설명되는 것을 가능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전상진, 2004b: 200)²²⁾. 왜냐하면 여기서 세대는 그 자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과 대립 ·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세대들과의 상호관계에 따라 계속 변화 · 발전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대 자체가 아니라 세대 관계에서의 논의가 시작되면 세대 정체성과 사회화의 연결방식에 대한 탐구가 가능해지고, 청소년기에 치중된 설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며(전상진, 2003a: 250), 기성세대에 의해 ‘차이’만이 조명되는 ‘세대갈등’이 아닌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생활양식과 경제적인 권력에서의 연령에 관계된 갈등(ibid: 252)이라는 세대 ‘상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세대는 공통적인 아비투스²³⁾와 생활양식을 공유하게 되는 코호트로 지칭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세대들의 관계’는 그러한 코호트의 배치상황과 전략적 위치에 따라(Eyerman & Turner, 1998: 93, 전상진, 2003a: 252에서 재인용)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22) 물론 이렇다고 ‘세대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억압받고 있는 청소년세대의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세대차이’의 배재를 통해 청소년기를 막연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함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기성세대’를 막연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세대’를 이해하자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픈 따름이다. ‘청소년의 무조건인 자율성’ 역시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명백한 세대차이’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문제에 대한 접근은 얼마나 그 세대들이 처한 배치상황을 이해하면서, 고유의 전략적 위치를 제대로 탐지하고 있는가가 바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상황’을 간과한 채 ‘세대’ 상황에만 집착하는 처방을 지양하고 세대간의 위치에 대한 진단의 우선성을 숙고하여, 적절한 진단을 위해 무엇이 문제인가를, 그리고 어떤 요인인지를 만들었는가에 대해 먼저 진지하게 숙고(전상진, 2003b: 73)해야 할 것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문제에 접근하는 많은 연구들이 ‘세대차이’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는 세대연구가 가져다주는 다양한 세대들의 가변적인 관계맺음을 간과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원인진단으로 이어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에 대한,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세대’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2 세대개념의 구분

이미 언급하였지만, ‘세대간’ 개념의 핵심은 바로 ‘세대간 관계맺음’이다. 이 ‘관계맺음’은 각 세대의 고유의 전략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도권다툼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세대차이’를 넘어서는 ‘각기 구분되는 세대들’의 치열한 각축양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각축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되는 세대간의 제각각의 특징을 세분화된 세대개념의 구분(전상진, 2002: 198-224; 2003b: 74-86)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대구분’은 사회적 발전과정에서 상이한 원인과 내용을 갖는 세대간의 ‘필연적인 엇갈림’이란 구조적 틀을 통해 세대갈등, 세대충돌을 가시적인 틀로서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2.1 가족적세대와 사회적세대

2.2.1.1 가족적세대

가족세대 개념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간단한데, 세대는 곧 혈통계보의 고리, 즉 출생서열(예컨대 자식, 부모, 조부모)을 말한다. 이 세대개념은 가족제의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정의방식은 변하지 않는다. 가족제도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기존의 혈통계보가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 세대정의 자체는 변함없다(전상진, 2002: 201; 2003b: 75).

가족관련 세대개념은 가족 내에서의 출생순서의 차이에 따른 범주이며, 일상생활이나 가족연구에서 주로 쓰인다(전상진, 2002: 200-201)²³⁾. 이러한 가족적세대는 여타의 다른 조직들

23) 가족세대가 분명 ‘가족간의 혈통’에 주목한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가족세대’보다 ‘가족적세대’에

과 달리 ‘기능적 통합’이 아닌 ‘정서적 통합’을 추구(조성남 · 최유정, 2003: 73)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족적세대의 모습은 현대가족의 모습(예를들어 자녀수의 감소)에서 오히려 더욱더 ‘통합’의 틀을 더욱 굳건히 형성하기도 한다. 전상진(2002: 201)의 분석에 따르면, 가족은 수명의 연장에 따라 세대간의 관계(조부모, 부모, 손자세대), 즉 수직적 관계가 강화되고, 또 다른 한편 자녀수의 축소에 따라 세대내의 수평적 관계는 축소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형제들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왜소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명연장에 따라 세대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되기 때문에, 가족세대 관계에서 수평적인 측면보다 수직적인 측면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서적 통합’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족적세대 안에서 세대간의 원활한 일치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인희(2002a: 195)는 가족주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시간을 추상적 시간이 아닌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임을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가족의 통합’을 설명하고 있다. 함인희는 역사적 시간이란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사건이나 사회구조적 변화, 문화적 격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역사적 시간을 통과해온 세대는 각기 다른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다양한 가치관으로 채색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세대 구성원들은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시간표가 만나는 교차점이 달라, 조부모세대가 부모세대에게 그리고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역할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는 물론 세대경험의 차이로 인한 균열 및 갈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사회에서 부모라는 지위에 부여되었던 ‘지위적 권위(positional authority)’, ‘일방적인 권위(unilateral authority)’는 약화되고 부모의 개인적 능력이나 역량에 따른 ‘개인적 권위(personal authority)’가 중시되는 상호권위의 인정(Elkind, 1999: 77-81; 함인희, 2000: 201)이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한국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는 전반적으로 볼 때 부모의 권위는 낮아지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는 역수직 관계가 과도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함인희, 2002a: 207)는 것이다.²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후에 다루게 될, 실재사례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이 더 강조될 것이다.

24) 전통적인 가족세대의 쇠퇴를 함인희(2002b)는 ‘가족신화’의 쇠퇴에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신화’는 사랑과 조화, 그리고 결속을 이상화하는 가족 감정의 이면에 있는 경쟁과 갈등, 증오와 이기심을 동시에 다루지 못하고, 어느 한 면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족의 위기상태를 다루는 여러 연구들 역시 동일한 현상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뿐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암묵적 함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순환적 논쟁을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족 위기의 핵가족 책임론’, ‘가족해체’ 등의 뜻이 주는 부정적인 느낌을 지양하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 재구조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파악을

정리해 보면, 출생서열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통합’을 강조하는 가족적세대는 분명 현대 사회에서, 가장의 권위가 약화되고, 가족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며, 노인 문제와 청소년 문제가 부각되면서 세대간의 단절이라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가족은 전통 가족의 위계성과 불평등성, 그리고 비민주성을 강하게 거부하는 등, 전반적으로 ‘형태상의 다양한 다원화 경향과 행동과 가치의 근대화’ (함인희, 2002b: 167-171)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²⁵⁾.

2.2.1.2 사회적세대²⁶⁾

역사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과 형태가 변화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가족적세대가 미시적 영역에 국한되어 관찰되는 것이라면 사회적세대는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산물, 즉 근대 사회의 도래를 통해서 생성되었으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접 코호트들이 역사적 흐름과 객관적인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집단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갖게 되는 현상을 지칭한다(전상진, 2002: 206-209). 즉, 사회적세대는 역사적 공간에서의 공통적인 위치와 경험, 그리고 가공형태와 행위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전상진, 2003b: 75).

전상진(2002: 208; 2003b: 79-81)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세대는, 급속한 사회변동과, 사회분화라는 측면을 통해 부각되었다고 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공동체적인 생활세계의 경험에 기반을 두는 전통적인 과거지식들은 새로운 변화, 사회현상, 행위기준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미래’에 대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없는데, 이러한 시간적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적세대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부분영역들이 분화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영역과 생활세계는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과 논리를 가지면서 과거의 사회적 지식의 효력과 가치를 감소시키는 사회적세대로 생성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사회분화를 통한 기능의 제도화는 사회적세대간을 단절시키게

통해, 가족의 해체를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닌 사회구조적 조건을 충실히 반영(함인희, 2002a: 211)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은 분명 ‘가족’의 본질에 관한 것이기에, 본 연구의 ‘가족적세대’ 방향과 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데올로기’로만 인식되는 ‘가족신화’의 반향적 차원에서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5) 물론 함인희(2000: 201)는 이러한 현대가족의 경향이 순조롭지는 않음을 설명한다. 즉 전통적 가족규범이 약화된 자리에 이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가족규범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부모-자녀 관계는 심각한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단절로 발전한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26) 여기서는 사회적세대의 발생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세대가 형성되는 사회영역 연관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적세대(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세대)에 대한 개별 설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의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전상진(2002, 214-218)을 참조할 것.

되는 일종의 ‘세대격리 현상’을 통해 오히려 더욱더 특징적인 ‘사회적세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²⁷⁾

이러한 사회적세대는 ‘혈통계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적세대와 뚜렷이 구분되지만, 이러한 점이 사회적세대가 ‘가족적세대’의 특징과 대칭적으로 비교되어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세대는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연대의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징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어떤 세대들은 가족적세대와 비슷한 유형의 ‘세대의식’을 가진채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대의식’을 성립하고 있으며, 또 어떤 세대들은 ‘가족적세대의 특징을 온전히 거부하는 특징’을 ‘공통의 연대의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세대를 바탕으로 구분되어지는 세대들간에도 상이한 ‘세대특징’을 가진 채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2 교육학적 세대²⁸⁾

2.2.2.1 가족적세대와 관련된 전통적 교육세대

교육의 ‘敎’는 먼저 ‘老’자와 ‘子’가 합쳐져 앞선세대가 뒷세대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의미의 ‘孝’자와 이를 글로 가르쳐 준다는 의미로 ‘文’자가 합쳐져 ‘敎’자가 된 것이라고 한다. 배우고, 가르친다는 의미가 ‘敎’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스어에서 교육에 해당하는 용어는 ‘paideia’인데 이것은 ‘어린이(Paris)를 집중해서 잘 돌본다’는 뜻을 가진 ‘paideuein’란 동사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영어 education 은 라틴어의 ‘밖으로 이끌어 낸다’는 뜻을 가진 ‘educare’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조영승, 1997: 24-25). 이상과 같은 ‘교육’의 어원들은 ‘가르쳐지는 내용’들은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가르치는 주체와 가르침을 받는 객체’의 위치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기성세대와 성장세대’의 ‘교육적 상황’에 따른 위치(교육 전달자로서의 기성세대와 교육 전수자로서의 성장

27) 전상진(2002: 208; 2003a: 257; 2003b: 79-81)에 따르면 ‘세대교육’의 역할을 자부한 ‘학교’야말로 ‘세대단절’을, 그리고 ‘단절과 분열이 아닌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가장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젊은이들의 하부 문화(sub-cultural) 역시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문화는 ‘주류문화와 구분되는 하위문화’가 아닌 오히려 당당한 세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세대차이’에만 집중하여,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청소년 선도’를 주장한 집단들은 스스로의 탓에 걸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는 그 탓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탓에 걸린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8) 여기서 교육학적 세대는 사회적세대의 특징으로 일차적으로 구분되어짐을 밝히는 바이다. 즉 가족적세대와 구분되는 사회적세대의 ‘발생적’ 차원에서 생겨나는 여러 세대들 가운데(각주 26 참조) 한 가지가 바로 교육적세대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루게 될 내용들은 그러한 사회적세대들로부터 구분된 세대들이 가족적세대의 특징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될 것이다.

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교육의 의도는 바로 아동의 미래와 관계했다. 성장세대와 성인세대 간의 관계는 중요한 학습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성장세대는 기성세대에 의해 교육되었다는 의미에서, 세대관계는 곧 교육관계를 가리켰다. ... 성인들은 성장세대의 미래와 교육목표 및 교육실천을 결정하는 특권을 가졌다(Giesecke, 2002: 81).

문화의 전수는 연소자 세대에게는 의무이며, 연장자 세대에게는 책임이 된다. 사회적 발전에 결정적인 지식과 문화의 전달의 과제는 연장자 세대의 몫이며, 연장자의 도움으로 자격을 갖추므로써 사회의 존속을 가능토록 하는 것은 연소자 세대의 의무이다. ... 이를 효과적으로 청소년 시기로 축약하고 제한하려는 시도가 바로 교육학이다(전상진, 2003b: 78).

독일의 교육 사회학자 Jutta Ecarius가 인간이 ‘부족한 존재’라는 인류학적 사실 때문에 세대간 교육의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한 것처럼(Ecarius, 1998: 47, 전상진, 2002: 202에서 재인용) 전통적인 교육관은 사회의 생존에 필수적인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지식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전달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은 연장자 세대가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것, 즉 한 사회의 완전하고 성숙한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통해 사회의 불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고 전통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에 있다(윤옥경, 2000: 56; 전상진, 2002: 202; 2003b: 75-77).

전통적인 교육개념은 사회적 발전에 결정적인 지식과 문화의 창조와 전달의 과제를 성인인 연장자세대가 담당하며, 연소자세대의 의무는 연장자의 도움으로 자격을 갖추므로써 사회의 존속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 관점은 생의 주기를 정적이고 순환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연령집단들은 연령의 많고 적음에 따라 권위적인 위계적 관계를 구성한다. 생의 주기가 정적이고 순환적이라는 것은, 곧 성인들과 노인들의 현재와 과거가 아동과 청소년의 미래와 현재라는 의미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집단의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혹은 후에 직면하게 될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집단의 도움이 필수적이다(전상진, 2002: 203; 2003b: 78).

결국, 전통적인 교육관에 따르면 교육적 개념에 의해 구분되는, 전달자 - 전수자세대는 ‘연령서열’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되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전통적인 교육세대라는 말은 교육적 구분에 의해 전달자나 전수자로 구분되는 세대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연령

서열과 교육적세대관계의 일치성을 전제로 하고 받아들이는 세대(자식-부모역할, 교사-학생 역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전상진, 2002: 202-203; 2003b: 76-77). 이러한 점은, 전통적인 교육세대가 앞에서 살펴 본 가족적세대와 유사한 맥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근대화 이전 사회에서 가족세대는 곧 교육학적 세대, 즉 부모와 자식은 각각 사회적 생존에 필요한 지식과 문화의 전달자와 전수자로서의 교육학적 세대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곧 양 세대간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의미(전상진, 2002: 220)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된 가족적세대가 지금 시점에서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것처럼, ‘전통적 교육세대’가 현대의 모습에 과연 얼마나 부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지식과 문화의 창조와 전달이 오로지 연장자들에 의존하지 않거나 그 의존도가 낮아진다면, 이런 전통적인 관점은 더 이상 현실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 전통적인 교육학적 세대관계의 가정, 즉 지식과 문화의 창출과 전달에서 연장자 세대가 연소자 세대에 비해 구조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가정은 그 근본부터 도전 받게 된다(Liebae, 1997, 전상진, 2002: 204; 2003b: 81에서 재인용).

이러한 것은, 전통적 개념을 지양하는 또 다른 교육학적 세대개념이 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세대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즉 전통적 교육관만이 존재한다면 ‘세대차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여러 청소년들의 문제는 그 원인규명과 대안점 제시가 ‘전통적 교육관’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지만, 또 다른 개념의 등장은 이러한 ‘한쪽 세대의 입장 만으로의 진단’이 분명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호세대’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세대’의 등장배경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2.2.2.2 사회적세대와 관련된 새로운 교육세대

지금까지 어떤 좋은 교육도 아동들의 미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그들이 나중에 불행해지거나 범죄자가 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없었다. 아무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 결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 전개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있는 그대로 가족성원을 받아들이고 교육화 - ‘우리가 원하기만 하거나 제대로 한다면 언제나 다른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 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가정

이 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이미 빠르게 변했으며, 그들은 또한 그렇게 간주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Giesecke, 2002: 108-109).

가족적세대와 전통적 교육세대간의 유사한 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근대화 이후의 사회에서는 ‘교육제도’로 인하여, 가족세대와 전통적 교육세대개념의 세대간의 관계가 많이 느슨해졌다(전상진, 2002: 220).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교육개념으로는 그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연령’에 의해 전달자세대가 전수자세대에게 행사하는 전통적인 ‘해석-독점력(Giesecke, 2002: 103)’, ‘아동의 인간성 형성에 대한 독점력(Ibid: 97)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 교육’은 표면적으로 ‘훌륭한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길들여진 인간’을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기회를 확대하기보다는 예기치 못했던 결과를 가져오는 변화(함인희, 2000: 200-201)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일련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의 전제들이 전반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을(Giesecke, 2002: 150) 의미한다.

근대적 조건에서 새로운 것과 젊음은 기존의 것과 연로함을 파괴하고 해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무용한 것으로 가치절하 시킨다. 젊은 세대는 매우 중요한 영역들에서 새로운 문화와 지식을 창출하게 되었으며, 이 경우에 그들은 전달자의 지위를, 그리고 연장자 세대는 전수자의 지위를 점하게 된다.... 오늘날 학습이 더 이상 아동, 청소년기의 과제만은 아니며 ... 현대 사회에서 연령서열이라는 것은 교육적세대의 소속을 결정하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전상진, 2002: 204; 2003b: 81-82).

위와 같이, 새로운 교육적세대는 전통적 교육세대 개념과 달리 연령서열과 교육세대의 일치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다²⁹⁾(전상진, 2003b: 77). 즉, 세대간에 놓여 있는 성숙 정도, 지식 및 경험상의 차이가 지금까지 교육관계의 결정적인 관계였으며, 이는 ‘연령’으로 쉽게 구분되어졌지만 이제 그러한 ‘연령 일방적’인 관계는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Giesecke,

29) 윤옥경(2000: 56-57)은 이와 같은 ‘전통’의 쇠퇴를 산업사회와는 다른 가치관이 등장하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비교하여 정리한다. 즉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주의의 심화라는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개인주의는 창의력과 독창성의 기반이 될 것이며, 권위에의 순종보다는 권위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튀는 인간형이 이상적이 모델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며, 기성세대들은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와 행위양식을 젊은 세대로부터 배워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2002: 23-24). 이와 같은 특징은 연령서열로 인하여 세대가 특징지어지는 미시적인 공간에서의 ‘가족적세대 - 전통적 교육세대’가 아닌, 거시적인 공간에서의 교육관계를 살필 수 있는 가능성과 사회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세대들의 상호연관 및 대립의 양상을 적절히 관찰할 수 있게끔 한다(전상진, 2002: 203; 2003b: 76). 다시 말해, ‘가족적세대’와 유사했던 ‘전통적 교육세대’가 아니라 ‘사회적세대’와 밀접히 관련을 갖게 되는, 즉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교육’의 주체의 위치에 따라 정의되는(전상진, 2003b: 76) ‘새로운 교육세대’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근대적 과정에서 가족적세대와 (전통적) 교육학적 세대간의 관계가 느슨해진 반면, (새로운) 교육학적 세대는 사회적세대와 보다 밀접히 연결된다. ... 사회적세대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근대화 과정의 요인들이 교육학적 세대구성의 조건 자체를 변형시켰기 때문이다. ... 새로 등장하는 각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과는 다른 고유의 정체성, 곧 사회적세대의식을 만들고 가질 수 있는 보다 큰 가능성을 갖는다. ... 전통사회에서 존재했던 가족세대의 서열, 연령서열 그리고 교육학적 세대의 서열의 일치성은 근대사회에서는 약화되고, 이 새로운 조건에서 교육학적 세대는 연령과 가족의 통제에서 벗어나 사회적세대와 보다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전상진, 2002: 221).

교육자로서의 성인의 우월성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교육세대’의 특징을 통해, 가정에서는 새로운 세대관계가 정립(Giesecke, 2002: 143)되기 시작한다. 즉 ‘사회적세대’와 관련을 가지는 새로운 교육세대의 모습이다. 이것은 ‘가족적세대’가 맺어주는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의 수직적인 교육관계가 점차적으로 ‘덜 계획적’으로 변하고 인격적으로도 기성세대의 ‘약한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일생에 걸친 세대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적-전통적 교육개념에서 탈피, 즉 오늘날의 성장세대는 기성세대와 인격적 관계를 최소한으로 맺으면서, ‘아동기에만 국한된 교육’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성장세대는, 생애의 특정기간 동안에서 전체사회적인 세대관계의 독특한 문화적인 종속구조에 기초한 ‘생애의 사회화’의 과정중의 하나로서 단지 놓여 있는 것이다³⁰⁾

30) Giesecke(2002: 96-98)는 이러한 ‘새로운 교육’의 정착을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배워왔던 아동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신비화나 낭만화를 정면으로 부정해야 한다고 한다. 즉 ‘아동의 순진무구함은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 혹은 아동의 상상력과 창조력에 경탄한 나머지 ‘이것을 너무 일찍 실제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Giesecke는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교육(Erziehung)’이 아닌, ‘새로운 의미의 교육(Bildung)’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bid: 87; 전상진, 2004b: 201).

2.2.3 소결 : 사회적세대의 등장이 ‘세대구분’에 함의하는 점

지금까지 살펴본 ‘세대구분’은 가족적세대와 사회적세대, 그리고 사회적세대의 하나인 교육학적 세대에서 전통적인 교육세대와 새로운 교육세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세대이론’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을 적용한다면, 세대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구분되는 세대들이 상호관계맺음을 통해 어떠한 전략적 배치를 바탕으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적세대와 구분되는 사회적세대, 그리고 전통적 교육세대와 구분되는 새로운 교육적세대는 그 ‘등장시기’에 있어서 전자에서 파생된 점이라는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세대간 각축양상은 기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와 새롭게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는 세대의 다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세대구분을 통해 세대간의 각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세대’, ‘새로운 교육세대’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가 얼마나 ‘기존의 세대’와 동등한 세대위치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세대구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 세대로 주도권을 인식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세대의 관점에서 볼때 ‘새롭게 등장하는’, 그래서 ‘새로움이 문제가 되는’ 세대가 아니라 ‘기존의 세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숙명적인 세대의식’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세대 역시 앞선 세대와 다를 바 없는 ‘확실한’ 세대라는 것이다. 즉 세대간의 주도권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한 세대도 ‘있어서는 안 될 세대’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세대생성의 숙명적 상황을 Mannheim의 세대 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Mannheim의 세대 사회학적 관점이 제시하는 세대의 ‘독창적인 영역 구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결국 지금 만연되고 있는 ‘세대차이에서 오는 세대갈등’은 분명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식되는 갈등’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분명 세대가 ‘인정’된다면, 세대갈등은 ‘세대차이’가 아니라 ‘구분되는’ 세대들의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살펴본 세대구분은 세대갈등을 이해함에 있어서 필수적(함인희, 2000: 196)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3 칼 만하임(Karl Mannheim)의 세대 사회학적 관점을 통한 사회적 세대의 이해³¹⁾

2.3.1 만하임의 세대 이해

앞서 살펴본 편협된 청소년 연구, 즉 올바른 ‘세대’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연령이 높은 세대에 의해 주도 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시 말해, ‘기성세대’의 입장은 그들과 다른 ‘세대’를 ‘세대 그 자체의 이해’가 아니라 ‘기성세대는 만족할 수 없는 세대’로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세대’가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데, ‘기성세대 그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들을 무조건 이해 못하는 고리타분한 집단’으로 일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세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즉 어떠한 특징을 가진 ‘세대’들이 그러한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세대는 인정하지만, 다른 세대는 자신의 세대와 비교할 때 무엇인가 부족한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세대로서 인정을 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Mannheim이 제시하는 ‘세대 사회학적’ 관점에 따라, ‘세대’가 ‘세대로서 인정 받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대문제의 현재 상태는 ...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관점에서 출발할 때 ... ‘무질서(anarchy)’의 두드러진 현상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적인 문제들이 다양한 국면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선택적인 해결책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계획되어야 한다(Mannheim, 1997: 32, 강조는 인용자).

세대현상은 역사적 발전의 역동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초적 요소이다(Ibid: 61).

Mannheim의 ‘세대인식’은 우선 세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인, ‘세대차이’,

31) 본 연구는 Mannheim의 세대 사회학적 이론을 중점으로 분석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례연구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분명 Mannheim이 세대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시작한 사람이었다는 것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박재홍, 2005; 송호근, 2003). 하지만 실제사례를 위해 이론적 틀을 조망한다는 것은 적용되는 이론의 다양한 분석과 비판들 역시도 반드시 인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폭넓은 세대이론’들을 담지하지 못한 채 Mannheim의 세대이론만을 단편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와 같이 세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통하여 비판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혹은 ‘세대차이가 야기하는 갈등’에 편협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Mannheim은 세대 ‘간’을 고려하지 않은 세대 ‘만’의 관점에서는 세대현상이 ‘무질서(anarchy)’하게 보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으면서, 세대현상을 역동적인 사회요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Mannheim에게 있어서 다양한 세대의 공존은 세대인식의 출발점이자 사회변동의 원동력이며, 특히 세대간 갈등과 충돌은 사회발전 및 변화에 없어서는 안 될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함인회, 2000: 192)이다. 다시 말해, Mannheim은 ‘무질서’의 개념으로 타 세대를 보는 관점에 대하여 사회 ‘역동성’에 대한 이해부족을 상기시키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Mannheim의 세대인식을 Mannheim이전의 세대개념으로부터 그가 어떻게 세대정의의를 끌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Mannheim이전의 세대인식(Mannheim, 1997: 22-31)은 실증주의적 입장(the positivist formulation of the problem)과 낭만주의적-역사적 입장(the romantic-historical formulation of the problem)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실증주의적 입장은 세대현상의 규칙성, 균질성, 일반화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연령학적(chronological) 세대개념에서 역사적 법칙을 찾으려 하는 것인데, 약 30년이 일반적인 세대주기가 된다(전상진, 2002: 209-210). 이러한 개념은 인간발달의 단선적인 개념(unilinear conception)을 나타내게 되는데, 즉, 기계적(mechanist)으로 시간을 외연화(externalised concept of time)하며, 객관적(objective)이고 양적인 기간(quantitative term)에 바탕을 두면서(Mannheim, 1997: 27) 30년이라는 세대주기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내면의 시간(interior time)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생물학적 발달과정과 함께 사회구조적 변화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이러한 것이 실증주의자들에게는 불분명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Mannheim의 비판(함인회, 2000: 192)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기간(qualitative tim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Mannheim, 1997: 27)인데, 이러한 내면의 시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이 낭만주의적-역사적 입장에서의 세대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은 어떤 규칙성을 떠나 역사적 일회성에 대한 이해(전상진, 2002: 210)를 전제하고 있다.

낭만주의적-역사적 입장에서의 ‘세대개념’은 Wilhelm Dilthey와 Wilhelm Pinder의 세대이해(Mannheim, 1997: 27-31, 전상진, 2002: 210-211, 함인회, 2000: 192)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Dilthey는 세대형성의 중요 조건으로 개인들이 동시적으로 공통적 경험을 가져야 함을 말하는데(전상진, 2002: 210), 즉 외부적으로 규정되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한 내면적 규정

(an internal measure of time)' 이 세대형성의 필수 요소(함인희, 2000: 192)가 되는 것이다. Dilthey는 세대현상을 단순한 계통학적 중요성에서의 '연속성(succession)'만이 아니라 '공존(co-existence)'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Mannheim, 1997: 27)하는 것이다. 이 '공존'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이 무작정 '동일한 공간'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즉 '단순히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대개념이 아닌 '역사적 사실과 주관적 해석이 서로 공존하는' 세대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다(함인희, 2000: 192).

Pinder는 '동시대인의 비동시성(non-contemporaneity of the contemporaneous)'이란 개념으로 내적인 경험시기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유사연령층이 동시대의 다른 연령층들의 그것과 상이함을 말하고 있다(전상진, 2002: 210). 이는 '단순히 시기의 같음(same time)'을 보내는 것만이 아닌 함께 경험되는 시간(experienced time)을 통해서만이 '정말로 같은 시기(real time)'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Pinder는 내적 목표(inner aim)의 일치를 위한 세대의 잠재적인 현실성(entelechy)에 주목한 '세대의 정신(spirit of age)'을 이해하는 것은 실증주의로는 도달할 수 없으며, 낭만주의적 관점을 통해 세대현상을 이해하는 최종목적인 '내면(internal)의 측정'에 도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Mannheim, 1997: 28-31).

하지만 전상진(2002: 211)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이론들은 세대가 어떻게 역사적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집단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세대현상이 생물학적인 요인, 예컨대 유사한 출생연도(=출생코호트), 연령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무시했다는 문제를 가진다고 한다. 그리고 Mannheim의 이론은 이러한 낭만주의적 세대관념과 앞서 언급한 실증주의적 세대관념을 통합하고 있다고 한다. Mannheim은 세대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회적, 생물학적 특징을 다 고려하여(Mannheim, 1997: 35-36), 일정한 주기마다 세대교체가 일어난다는 실증주의적 관점과 집단적으로 내적인 경험을 인식함을 주목하는 낭만주의-역사주의적 관점을 통합한 세대사회적 접근 틀을 제안(전상진, 2003c)하는데, 그는 세대를 "청소년기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의식·문화·지식을 갖게 되는 동일한 혹은 유사한 출생코호트"라고 정의한다. 이는, 출생코호트가 의미하는 인구학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들에게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의식을 부여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것(전상진, 2002: 209-211)이다. 즉 Mannheim은 '세대'를 일정한 나이 격차에 의해 구분되기 보다는 집단이 공유하는 경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 경험의 '공유'가 세대정체성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세대만의 특성을 가지게끔 장기기억으로 저장(권귀숙, 2004:

53-55)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Mannheim이 세대를 ‘세대결속(generation bond)’과 ‘구체적인 집단(concrete group)’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Mannheim, 1997: 33-37).

같은 계층(class), 같은 세대나 같은 연령 집단들의 속성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모두에게 사회적, 역사적 과정 안에서의 공통의 위치를 가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역할을 공유하게 된다. ... 그들에게는 행동의 특징적인 유형이 있다. ... 이러한 특정한 유형들은 ‘내적으로 본래부터 타고난(inherent-in)’, 즉 모든 사회적 위치에서 원래부터 타고난 고유의 경향이 있다(Mannheim, 1997: 36).

세대는 단체(community)안에서 구체적인 집단(concrete group)이 아니다. ... 육체적 근접성(physical proximity)이 파괴되자마자 정신적, 영혼적 결속이 중지되는 그러한 그룹이 아니다. 비록 세대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함께 행동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사이의 결속이 ‘구체적인 단체’ 안에서의 결과를 가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상황을,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세대의 본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Ibid: 33-34).

Mannheim에게 있어서 세대는 ‘본래부터 타고난 결속’을 가지는 고유의 경향, 즉 세대 구성원들이 서로 역할을 공유하는 ‘세대결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대결속’이 구체적인 모습을 가진 채 완벽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되어 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Mannheim은 ‘제한된 유연성(limited elasticity)’이라는 인간의 특징으로 인해 그것이 불가능(함인희, 2000: 193)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완벽성’은 바로, ‘세대개념’이 정확한 개념으로 고정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세대의 계속적인 등장은 ‘세대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세대가 살아있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대’는 ‘세대결속’으로 인해 타고난 ‘공통의 특징’으로 인해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만 이는 결코 생성에서부터 사라짐까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구체적인 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로 ‘구체적인 집단’에서 이해될 수 있는 ‘타 집단에 대한 옳고 그른 기준’이 ‘세대’개념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Mannheim이 말하는 세대의 ‘역동성’은 바로 이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²⁾

32) Mannheim과 그 이전의 ‘세대인식’을 살펴보면 Mannheim 이후의 세대인식을 간략하게 살펴볼

2.3.2 만하임의 세대특징

세대의 ‘역동성’을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함을 세대인식의 기본으로 출발하는 Mannheim은 세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Mannheim, 1997: 37-45).

- a. 문화 현상 안에서 지속적인 '새로운 참여(new participants)'.
- b. 문화 현상 안에서 '이전의 참여(former participants)'에 대한 계속적인 거부.
- c. 어떤 한 세대의 구성원들은 역사적인 과정에서 제한된 부분에 '단지(only)' 참여할 뿐.
- d. 문화적 유산(cultural heritage)의 지속적인 변화의 필요성.
- e. 중단되지 않는 '세대의 연속성'(the uninterrupted generation series).

Mannheim(Ibid: 38-39)은 사회적 맥락에서 우연적(incidentally)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만남(fresh contact)’을 중요한 세대의 특징으로 규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세대문제’는 단지 이렇게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만남의 한 행동일 뿐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우연적’이지만 이 만남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 안에서의 변화의 결과로서의 새로운 만남이며, 또한 ‘마음의 융통성(elasticity of mind)’을 전제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생각과 실제 안에서의 새로운 삶(new life)’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삶을 위한 또 다른 인간 존재(human being)의 지속적인 출현이 바로 Mannheim이 규정하는 ‘새로운 참여(new participants)’로서의 세대특성인 것이다.

다음으로 Mannheim(Ibid: 39-41)은 발달과정상의 기초적 태도로서, 청소년들의 ‘새로운 것’을 향한 기존의 것에 대한 저항’을 언급한다. 이러한 이유는 간결하고도(condensed), 절대적이면서(implicit), 사실적인(virtual) 특징을 가진 기존의 정해진 법칙이 주는 ‘합리적인 설명(rational elucidation)’과 ‘숙고(reflectiveness)’는 새로운 변화가 가져다주는 경험의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기존의 생각으로 볼 때는 청소년세대가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가기 위한 기초적인 태도로서의 ‘기존의 것의 거부’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세대특성이 ‘사회가 다시 젊어지는 현상(social rejuvenation)’으로서의 역동

필요가 있을 것이다. Ryder(1965)는 Mannheim의 ‘세대’개념을 동년배(cohort)로 치환하면서, 동일 세대의 역사적 의식의 공유가 아닌 동년배 집단의 동일한 역사적 경험으로의 노출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동년배 개념을 통한 ‘집단’에 대한 단순비교가 사회구조적 변화이해에 더 용이하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었다. Riley(1988)는 ‘연령’을 사회조직의 핵심원리로 분석하는데, 사회는 연령에 따라 구조화되고, 자원과 기회의 분배방식에 있어서 연령이 매우 중요한 구분기준이 된다는 ‘연령계층론’을 발전시켰다. 자세한 것은 함인희(2000: 193-196)의 논문을 참조할 것.

적인 모습이었다면, 다음의 특징을 통해 Mannheim(Ibid: 41-43)은 ‘사회계층(stratification)’과 연관된 세대의 특성, 정확히 말해 어떠한 계층에 위치되는가에 따라 드러나는 세대의 특징을 언급한다. 여기서 그는 계통학적 세대구분으로는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세대의 위치현상을 말하는데, 즉 세대 ‘간’에 보여주는, ‘정반대(polar)’의 특성이 단순히 연령으로 구분되어지는 ‘기성세대’, ‘청소년세대’로는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Mannheim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연령적 구분이 아닌 ‘어떠한 특성을 지닌’ 세대의 구분, 더 정확히 말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세대’이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부모세대와 기성세대의 개념이 아니라 강요하려고 하는 집단(청소년세대를 이해 못하는 기성세대)과 강요받아야 하는 집단(기성세대의 것을 거부하는 청소년세대)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여 주는데, Mannheim은 각 세대들이 그러한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대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³³⁾ 이는 ‘사회적 위치의 유사성(similarity of location)’이 한 세대의 특성을 설명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비록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가 같은 경험을 할지라도 각 세대들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같은 경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세대의 구성원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역동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고 기존의 것을 거부하지만 그것은 결코 주어진 세대위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각 세대들은 ‘특별한 상호대립(particular dialectic)’이 존재하는 세대위치에 의해 주어진 공간 안에서 비록 역동적이지만, 그 위치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참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특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Mannheim(Ibid: 43-45)은 고정적인 문화상속에 의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무의식적이고 우연적으로 다루어지고 이동됨을 설명한다. 즉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거나, 또는 배우겠다는 의지를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세대의 시기적 특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러한 특징이 흡수되어 상호간에 퍼져 나간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세대는 세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점을 향해 자신을 맞추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때 겪는 시행착오는 ‘문제스러운 모습(problematical fashion)’ 같

33) 사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후반부에 다루게 될 실제사례분석(가톨릭 주일학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연령대에 의한 구분이 아닌 ‘세대위치’가 주는 특성을 이해한다면 ‘교회’내에서 청소년들과 작용하는 다른 세대들은 단순한 40대 이상의 교회지도자들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무엇인가를 신앙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모든 세대(20대의 교리교사, 30대의 보좌신부들 등)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연령’에 상관없이 세대위치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즉 ‘교회사목자’의 공통된 경험(오랜 사제 양성과정, 성직자 사회의 독특한 특성)이 주는 세대특성은 분명 ‘일반 신자들’하고는 구분되는 세대형성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은 급진적인 경향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청소년 당사자들은 급진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재의 문제(present problem)’는 잠재적으로 새로운 만남(potentially fresh contact)의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Mannheim의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대특성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Mannheim의 세대간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은 단순한 (기성세대가 청소년세대를 단순히 만나보는 식의) ‘세대간의 접촉’이 아닌 각 세대가 상대 세대에게 ‘매개체(intermediary)’로서의 역할을 할 수준의 적극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 세대상호간의 이해의 모습이야말로 제대로 된 사회의 역동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reciprocal action)이 세대간에 충돌(friction)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또 하나의 ‘세대 연속성’의 전제조건이다. 단순한 ‘갈등’이 아닌 세대위치에 따른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상대세대와 구분된 특성을 가진 세대들이 필연적인 충돌 속에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수준에 이르는, 그 규정되지 않는 과정 모두가 바로 Mannheim이 바라보는 세대의 특성인 것이다.

2.3.3 만하임의 세대 형성과정

앞에서 언급한 ‘세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더 정확히 말해, 충돌이 필연적인 상호세대들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각 세대가 세대위치에 의해 정해지는 그러한 ‘세대만의’ 특성이 성립되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Mannheim(Ibid: 45-54)은 세대상황(generation status, generation location), 세대맥락(generation as a actuality), 세대단위(generation unit)의 개념³⁴⁾을 도입한다.

사회학적으로 드러나는 명확한 구분인 ‘세대상황’, ‘세대맥락’, ‘세대단위’에 대한 이해는 세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분석보다 아주 중요하며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 없이 세대가 나타내는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Mannheim, 1997: 53).

34) 'generation status'에 대해 박재홍(2001)의 경우 ‘세대위치’로 번역하며, 전상진(2002)은 ‘세대상황’으로 번역한다. 전상진(2002: 197, 각주2)의 지적에 따라, ‘세대위치’라는 개념은 세대가 전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한 generation status는 구체적인 세대형상을 가질 수 없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대상황’으로 표기한다. 마찬가지로 'generation as a actuality'도 ‘실제시대’(박재홍, 2001)라는 표현보다 실제세대가 형성되는 맥락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세대맥락’(전상진, 2002: 197, 각주3)으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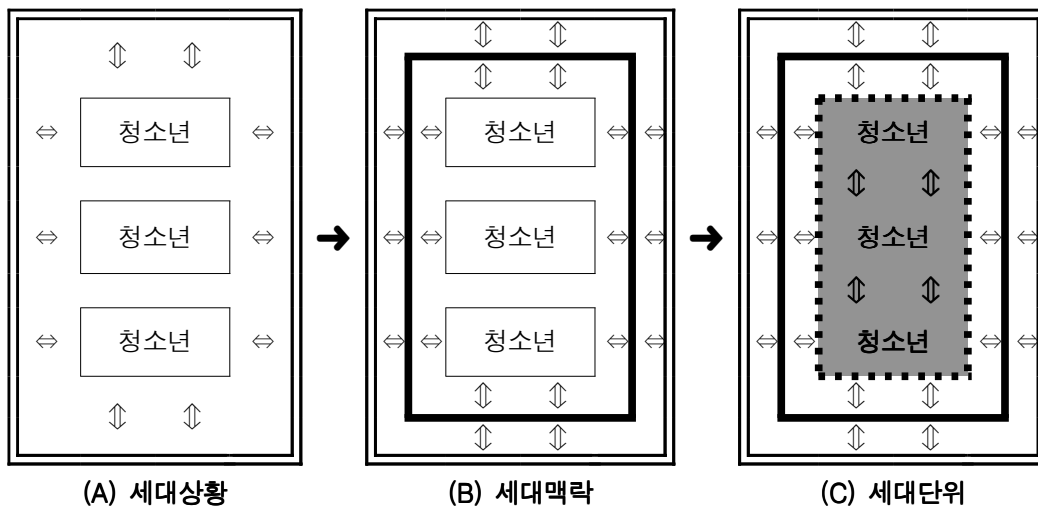
실제적으로 ‘세대’가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 주목하기 위하여 세대구분의 필수성을 강조하는 Mannheim은 ‘세대상황’이라는 개념을 통해 세대 위치(location)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 여기서 그는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세대특성의 형상을 부여(materialize)하며, 그 위치에 부합되지 않는 특성의 발생을 억제(suppressed)하며, 그 세대위치에 적합한 특성을 세대구성원들에게 체화(embedded)시키는 역할로서의 ‘세대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적 사건의 흐름에서’ 인접한 코호트에 속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처해지는 세대상황을 강조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대상황은 개별의지로서가 아니라 세대가 놓여진 위치에 의해 개별의사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그러한 특징을 ‘숙명적’으로 공유(전상진, 2002: 212-213)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상황’으로 출발하는 세대의 형성은 ‘세대맥락’의 개념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concrete) 관계, 즉 유사한 연령들로 이루어진 단순한 ‘상호존재’의 결합보다 더한 결속력을 나타내게 된다. Mannheim은 ‘세대상황’에서 형성된 세대구성원들의 결속력은 ‘공통의 숙명에 대한 참여(participant in the common destiny)’라는 맥락을 통해 좀 더 구체화된 결속(concrete bond)을 지니게 되는 ‘세대맥락’으로 이어짐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화된 숙명성, 그리고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연대감 때문에 세대의 개념은 단순한 ‘주기(time)’가 아니라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세대위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세대맥락’은 ‘역사적 생활공동체’의 의미가 부여되면서, 동일한 세대상황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들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파장에 수동적으로 접촉해서 하나의 세대에 대한 소속의식을 공유하게 됨으로, 세대생성의 잠재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세대상황과 구별되는 실재적 세대의 등장 가능성을 맥락이 있음이 내포(Ibid: 213)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대맥락’단계의 ‘세대’는 구성원들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집단은 아니다. 새로운 상황에 대해 세대 구성원들은, 단지 노출되어 있는 맥락에 의해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구체적인 결속(concrete bond)’의 모습을 보일 뿐이다. 여기에서 능동적인 세대, 즉 세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구체적인 집단(concrete group)’이 형성되는 ‘세대단위’가 등장한다.³⁵⁾

35) 하지만 여기에서의 ‘구체적인 집단’이 앞에서 언급된(34page) ‘세대결속’과의 구분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집단’과 동일하게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사용된 개념은 ‘구체적인 집단’의 느낌이 주는 ‘확실성’, ‘단일목표지향성’ 등에 무조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세대결속’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여기에서는 ‘세대맥락’에서 나타나는 세대구성원들의 ‘확실하지 않는’ 공통의 특성이 더욱 강하면서도 구체적인 ‘결속’으로 나타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세대단위’는 ‘세대맥락’보다 더욱 구체적인 결속을 지닌다. 어떠한 역사적 문제나 사건에 대한 젊은이들의 경험이, ‘세대맥락’단계에서는 단지 비슷한 부분이겠지만, 이 단계에서는 전체가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세대단위’안에서 세대 구성원들은 그들의 공통의 경험 요소를 공유하면서 특별한 ‘unity’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Mannheim, 1997: 47).

‘세대단위’는 사회적 친근함을 통해 연결된 공동체적 집단일 수도. 의도적인 목적을 지닌 단체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불완전한 ‘세대맥락’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세대’들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등 다양한 지향을 가진 세대단위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구성원들의 사회구조적 위치에 따라 상이하거나, 때로는 경우 서로 적대적인 방식으로 ‘세대단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전상진, 2002: 213-214).



〈그림 II-1〉 - 청소년과 세대개념

〈그림 II-1〉은 이러한 세대개념을 청소년이라는 부분에 적용시켜 본 것이다. 세대상황(A)에서는 개별 청소년들이 ‘청소년들끼리의 뚜렷한 접촉이 없이’, 외부적 상황(바깥쪽 겹선)에만 상호연계(⇔, ⇕)³⁶⁾되어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다. 세대맥락(B)에서는 개별 청소년들은 여전히 상호연계되는 부분이 없지만 외부적 상황과 구별되는 또 다른 경계(가운데 굵은

36) 여기서 ‘상호연계’는 청소년들이 외부적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외부적 상황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줄)가 등장하게 된다. 이 경계는 개별 청소년들을 포함한 상태에서 외부적 상황과 상호연계를 가지고 있다. 세대단위(C)에서는 개별적 청소년들이 하나의 테두리(점선)을 형성하면서 이전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청소년들끼리’의 상호연계³⁷⁾를 통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음이 의미지어진다. 또 이러한 ‘청소년들끼리의 상호연계’는 이전에 세대맥락단계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을 묶어주는 공통된 경계와 연관을 맺은 상태에서 외부적 상황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청소년기(혹은 청소년세대)라는 것은 단순한 그 또래 집단의 모임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 개별의사 없이 ‘숙명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세대상황), 이는 단순한 그룹이 아닌 ‘실제시대’로 등장할 수 있으며(세대맥락), 이러한 것이 어떠한 방식이든(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서로 연결된’ 단위(세대단위)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걱정하는 ‘도발적’이고 ‘일시적’인 문제그룹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세대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세대가 바라보는 ‘고리타본한 기성세대’들의 ‘세대특징’ 역시 무조건적인 이해부족에서 오는 현상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특징이 ‘그렇게’ 형성지어질 수밖에 없는 세대형성과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Mannheim의 세대 사회학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세대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세대의 기준에서 볼 때의 ‘문제가 되는’ 세대라고 할지라도 Mannheim의 ‘세대상황→세대맥락→세대단위’의 과정을 이해한다면, 이는 결코 문제가 되는 ‘돌출’ 세대가 아닌,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지극히 당연한 세대 본래의 모습이자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의 특징으로 인정되는 세대가 서로 같은 공간에서 ‘대립’하고 있을 때의 모습일 것이다. 여기서 이 상호세대들은 서로간의 일치여부를 떠나, ‘그러한 특성을 지닌’,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에는 대립적이면서도 개별적으로 분명한 세대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볼 때, Mannheim의 세대이론은 앞선 장에서 언급한 가족적세대와 구분되는 사회적세대와 전통적 교육세대와 구분되는 새로운 교육세대가 세대들간의 주도권 다툼에서 동등한 ‘세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끔 한다. 다시 말해, ‘세대갈등’이라는 부분, ‘세대 차이’라는 부분은 주도권을 가진 세대의 측면에서 볼 때, 새롭게 등장하는 세

37) 여기서의 ‘상호연계’는 각주 36의 상호연계와는 다른, 청소년 상호간의 공통된 아비투스³⁸⁾를 바탕으로 한 결속력(bond), 즉 본래의 ‘상호연계’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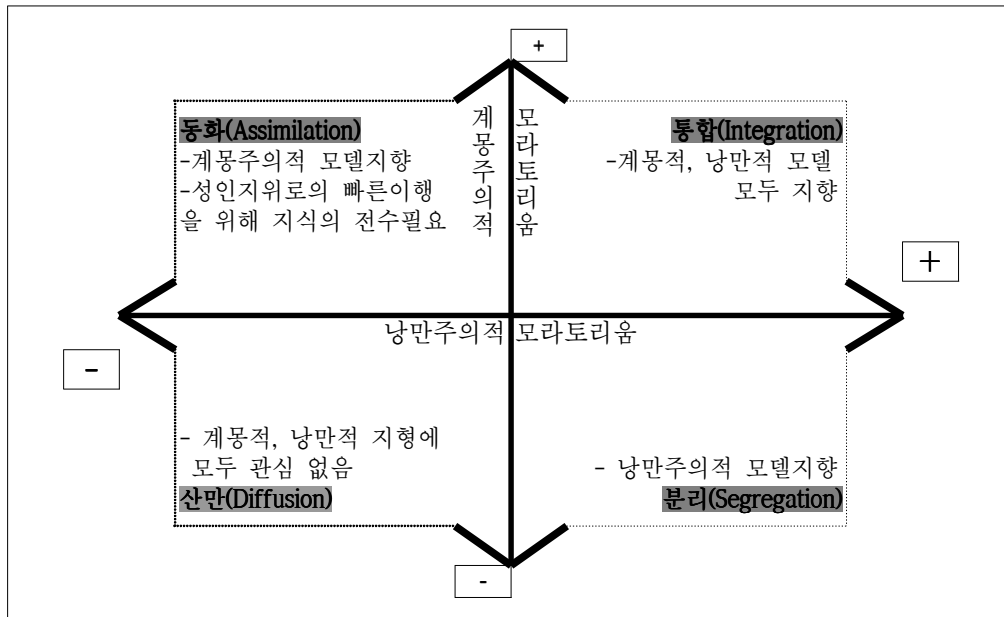
대에 대한 ‘인정하지 않음’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Mannheim의 세대이론은 이러한 ‘인정하지 않음’을 ‘숙명적인 세대형성의 필연적인 상황’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4 모라토리움(Moratorium)모델이 제시하는 청소년세대 이해를 둘러싼 상호세대간의 각축 모습³⁸⁾

‘모라토리움’이란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의무를 떠맡을 준비가 덜 된 사람을 위해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Rice, 2004: 139). 이 기간을 청소년과 사회의 관계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학적 모라토리움’인데, 여기서 청소년은 사회로부터 일정한 의무를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예를 받게 되며, 그 대가로 청소년세대는 사회적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기성세대로부터 습득해야 한다. 이 ‘유예기간’은 <그림 II-2>에서처럼 서로 상반된 관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 모델과 낭만주의적 모델로 구분된다.

모라토리움 모델의 구분은 앞서 언급된(II장 1절) ‘청소년 연구’의 편협성으로 일관하는 ‘청소년과 연관된 위기’에 대해 보다 적절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즉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청소년군상(동화, 분리, 통합, 산만)들을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두고 이해(‘동화’ 필드의 청소년이 ‘분리’ 필드로 이동한다는 식의 변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라토리움 모델이 세대차이가 나타내는 갈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여 준다기보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제’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즉 ‘모라토리움 모델’은 계몽적 모라토리움과 낭만적 모라토리움의 대비교차를 통해, 성장세대와 성인세대의 차이를 부각하면서 대립구조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대립-갈등의 구조적인 틀’을 바탕으로 세대간의 ‘관계맺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라토리움 모델은 앞서 구분되었던 세대들이 공통의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주도권 다툼을 위해 다양한 역학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38) 모라토리움 모델에 대하여서는 전상진(2004b: 203-206)의 연구에서 인용된 Reinder(2003), Reinder · Wild(2003), Zinnecker(2000)의 연구를 전면 재인용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전상진(2004b: 206-207)은 이들의 연구가 청소년들이 모라토리움의 지향점들을 무조건적으로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받아 강제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즉 ‘세대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청소년의 선택에 의거한 발달경로’가 강조되는 모라토리움의 단순한 구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라토리움 모델의 세대이론적인 재구성 부분은 전상진(2004b: 206-213)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이 단락의 전체적인 구성이 이들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세한 인용표시를 생략할 것임.



〈그림 II -2〉 - 모라토리움 모델의 구분

이러한 ‘관계맺음의 관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라토리움 모델의 구분되는 두 가지 경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을 먼저 주의하면서 아래에서 언급되는 각각의 모라토리움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³⁹⁾.

2.4.1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의 관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 자녀성공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자녀들은 부모들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며 부모의 노력에 발맞추어 자신의 권리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해 주는 일에 당연히 복종하며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113).

39) 사실 본 연구에서는 전상진(2004b: 203-214)의 연구처럼, 다양한 세대관계의 역학적 구조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가 모라토리움 모델을 제시하면서 필히 언급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상이한 모라토리움 모델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을 지닌 세대들’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그러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바이다. 현실에 공존하는 ‘상이한’ 모델들을 통해, ‘일방적인 세대차이’가 아닌 ‘세대관계의 모습’을 이해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자 결론이며, 후반부에 다루게 될 실제사례연구에서도 핵심적인 ‘세대충돌지점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이 부모세대만을 표본으로 삼아 조사한 『어른들은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성인의 의식에 관한 조사』(1990)는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 즉 청소년세대가 성인세대로 자라나면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준비해야 하는 관점을 잘 보여 준다⁴⁰⁾.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가?’ 라는 질문에 조사대상 부모의 74%가 찬성을 하였으며, ‘아동의 권리는 책임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70%의 부모들이 찬성의 뜻을 보였다. 또, ‘자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74%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으며,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것에는 67%가 자녀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럴 수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74%의 부모가 ‘자녀는 부모의 중요한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러한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 과 함께 ‘자녀에게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 에서도 기성세대들은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부모들의 행동이 자녀들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에 90%의 부모들이 그리함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물음에 64%가 찬성하였으며, 59%가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교육열’ 이라는 특징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조사결과에서 ‘부모세대’ 들이 자녀를 각 발달단계에서 나름대로의 완성된 인격을 가진 주체가 아닌 조종 가능한 객체로 보는 태도성향을 나타내고 있음(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152)은 분명히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장세대’ 가 ‘성인세대’ 로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 ‘임무’ 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제대로 성장의 임무를 보살필 의무’ 가 ‘기성세대’ 에게 확고히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 모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직업 세계로의 무리 없는 이행을 위해 학교에서 학습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며, 또 이를 이끌어 줄 ‘교사와 부모라는 성인’ 의 필수적인 동반자 인식을 그 바탕으로 한다. 청소년세대는 ‘현재의 성인상’ 을 ‘미래에 완성’ 하기 위해, 합리적 계산, 목적 · 수단의 준거를, 성과지향적인

40) 물론 본 연구시기를 볼 때, ‘한국청소년연구원(1990)’자료의 인용은 상당한 시간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의 가족관계의 변화,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 등의 급격성을 볼 때, 이러한 우려는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이 자료에 주목하는 이유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관점을 오직 어른의 시각에서(기성세대만을 표본으로 하여) 파악한 자료가 지극히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기성세대의 관점’ 에 대한 분석은 ‘자유롭고 급진적인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측면에서(특히 최근 더욱 빈번히 등장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기성세대의 분석일지라도 대부분이 ‘청소년 옹호론자’의 주장(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조한혜정의 연구 정도)인 것이 사실이다.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인의 현재는 청소년의 미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세대의 현 시점은 ‘미래를 위한 준비기, 예비기, 이행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2.4.2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

청소년이라 불리우는 아이들이 저녁식사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모의 간섭과 기존의 사회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 그들은 기존의 모든 도덕 질서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성적 윤리에 도전하고, 성실과 책임감 대신에 자유롭고 감성적인 인간관계를 요구했다(송재희 외 공저, 1993: 37).

주로 기성세대에 의해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을 강요받았던 청소년세대들은 성장세대라는 이유만으로 성인세대로부터 강제적으로 주어진 책임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 시작한다⁴¹⁾. 그리고 청소년세대들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개별적·감정적·심리적인 중요성에 강조점을 둔 인간관에 바탕을 둔 ‘청소년문화’를 통해 성인지위로의 급격한 이행이 아닌 ‘청소년기의 확장’을 꾀하게 된다. 이렇게 ‘성장세대’는 시간적 지향점을 ‘성인세대’라는 미래의 관점이 아니라 자율적인 청소년 존재의 획득을 위한 현재의 관점에 두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들 스스로를 재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이다.

현재의 사회는 우리들의 자유로운 의지를 대학입시나 졸업장으로 억압하고 강요한다. 소위 선생 또는 교수라는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인간적 문제제기를 시간이 흐르면 풀어진다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우리를 절망으로 안내한다. ... 그들은 ‘생은 이런거야’하면서 자신의 경험으로 우리의 꿈을 강제할 뿐이다. ... 우리는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라는 단계를 밟아 가면서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단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한 명의 인간으로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Ibid: 60-61).

구세대는 현대 사회의 삶의 문화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문화의 담당자

41) 물론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과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 모델이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를 명확히 구분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세대들 중에는, 기성세대에 의존하여 바람직한 성인이 되기 위해 그들의 임무를 ‘계몽적 유예기’로 인식하는 자가 있으며, 기성세대 역시 청소년세대의 자율성을 위해 기성세대의 간섭을 거부하기도 한다(일종의 세대 역학관계). 다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유예기’에 대해 구분되는 인식들이 어느 쪽에서 주로 ‘주도’되고 있는냐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이분법적 구분(계몽적 모라토리움=기성세대, 낭만적 모라토리움=청소년세대)을 사용함을 밝힌다. 비슷한 맥락에서 각주 12, 각주 39를 참조할 것.

들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라는 것을, 부모의 세대가 어렵게 살아왔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온 자신들의 삶을 이해해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삶을 우리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 신세대는 변화의 물결과 함께 이 사회를 담당해 나갈 새로운 담당자들이다. 신세대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상상력은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지배하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실현되지 못한 새로운 문명을 가능케 할 것이다(Ibid: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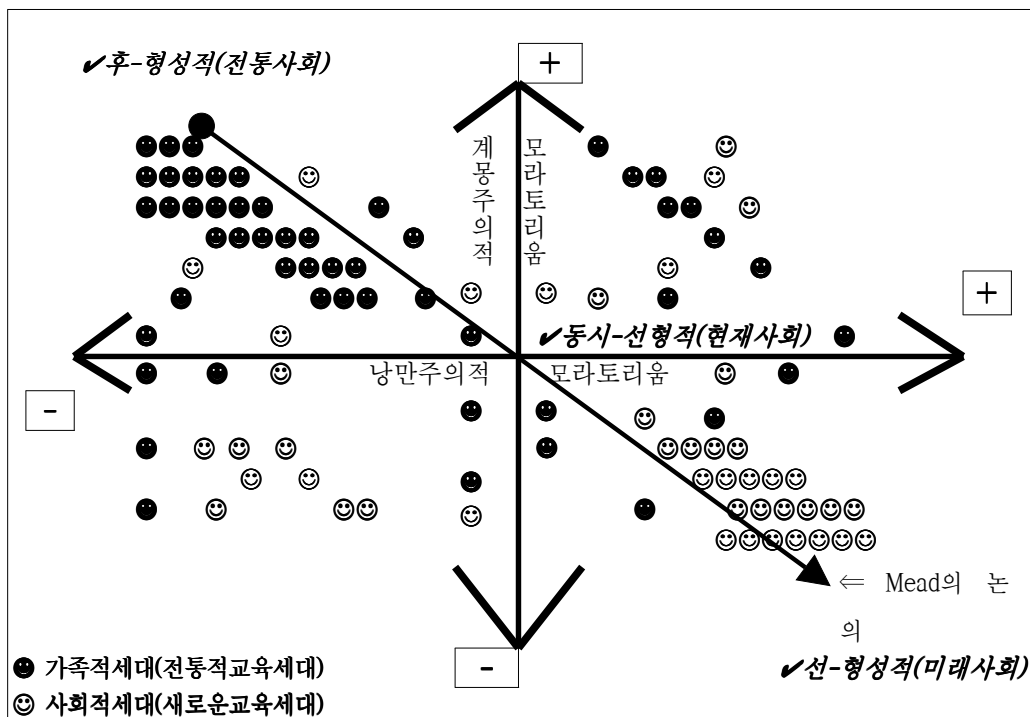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 모델을 지향하는 세대들은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 모델을 강요하는 이른바 기성세대들의 생각을 강하게 비판한다. 특히, 기성세대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옳고 그른 책임모델을 청소년세대에게 주입시키는 것에 대하여 청소년세대들은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게 된다. 아울러,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 모델은 성인이라고 불리는 멍청하고 개성 없는 악세사리 같은 존재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철없는 존재라고 부르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상상력과 창조성을 배워야 한다(송재희 외 공저, 1993: 52-53)고 생각한다. 그들의 눈에 구세대는 이미 삶의 과정에서 굳어진 가치관 때문에 자기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Ibid: 130). 청소년세대는 이렇게 계몽적 모라토리움이 주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청소년 시기 결정’에 대하여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영역확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일탈’이 아닌, 그들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문화’로서의 가능성을 굳게 가지는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2.5 세대 사회학적 논의의 지향점 -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의 논의를 중심으로

여기서의 논의는 ‘세대’에 관한 이론적 접근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세대들의 역학관계’는 어느 한쪽세대의 관점으로 ‘세대차이를 일방적으로 인식’하고 ‘세대관계를 간과’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경고를 할 수 있게끔 한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Margaret Mead의 『Culture and Commitment : A Study of the Generation Gap』(1970)의 논의를 중심으로 ‘세대충돌지점에 대한 이해’만이 아닌 미래에 예상되는 ‘세대관계의 주도권’을 예상하고자 한다.

이것은 ‘세대이론’의 핵심, 즉 ‘한쪽의 세대’가 아니라 ‘상호세대’의 인정과 그들의 관계맺음에 대한 강조라는 본 연구의 일관적인 관점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되는 ‘미래의 주도권’이란 것은 본 연구자의 세대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 자체는 아니다. 본 연구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측되는 미래의 주도권’이 현 시점의

‘세대연구’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세대간의 관계맺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세대차이’에만 집중한 현재의 세대논쟁은 분명 어느 특정한 세대(기성세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하는 ‘미래의 주도권(청소년세대)’이라는 개념은 (정말로 그렇게 실현될 여부를 떠나) 단지 그렇게 믿는 ‘가정’ 만으로도 현재의 세대간 간극을 좁혀 ‘상호세대’라는 개념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현재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Mead가 말하는 ‘미래’를 살펴보자.



〈그림 II-3〉 - Mead의 논의를 통한 모라토리움 모델의 재구성

먼저 앞서 살펴본 세대들을 ‘청소년 유예기’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모라토리움 모델에 적용시켜 보면, 〈그림 II-3〉에서 나타난 세대들의 흠어짐(●, ☺)을 통해 ‘세대의 모라토리움 지향점’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세대라는 다양한 역학관계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세대를 하나의 유형으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 ‘세대특징’의 경향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의 세대유형들의 ‘몰림’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3〉에서, 가족적세대와 전통적 교육세대(●)는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을 더욱 지향하고 있으며, 반대로 가족

적세대의 특징과는 무관한 사회적세대, 새로운 교육세대(◎)는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ead의 논의는⁴²⁾ 이러한 세대간의 각축양상에 시간적인 주도권 우위가 어떻게 전개되고, 또 예상되는지를 보여준다. Mead는 세대간의 세력관계를 후-형성적(post-figurative)인 문화, 동시-형성적(co-figurative)인 문화, 선-형성적(pre-figurative)인 문화로 구분하여 이를 시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먼저 ‘후-형성적 문화’(Mead, 1970: 19-51)는 전통사회에 배치된다. 여기서는, ‘post’라는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해 이루어가야 할 것들’이 ‘직면하는 현재’를 거쳐 준비 되어야 한다. 즉 현재에 주어지는 전통을 통해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이 추구하는 ‘성인세대의 현재가 성장세대의 미래’라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후-형성적인 문화’에서 청소년세대는 ‘그들의 선조들이 살아온 것들을 반복(to repeat the lives their ancestor)’함으로써 문화의 연속성(continuity)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Mead는 청소년과 성인이 동등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현상을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는 세대간의 ‘시간적 역할’이 아니라 ‘친숙한 동료(familiar peer)’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적 지향점이 강조된다. 즉 ‘동시-형성적 문화’(Mead, 1970: 53-88)의 형성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연령의 서열과 교육의 서열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즉 전통사회에서 거의 형성되지 못했던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아울러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은 하향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특징은 ‘co(共)’이기 때문에, 각각 고유의 생활세계와 세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어느 한쪽으로의 모라토리움 모델로 집중되어 주도권을 형성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Mead는 ‘동시-형성’보다 더 나아가는 ‘선-형성적 문화’(Mead, 1970: 89-121)를 미래사회의 모습으로 예측한다. 이 시대는 연령서열로 규정되는 것들이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 속에서 빠른 적응력을 보이는 청소년세대는 과거와 달리 연장자 세대에게 새로운 문화방식을 가르쳐 주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는 절대적으로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을 지향하는 세대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세 가지 문화전수의 방식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가능성이 혼합되

42) 여기서 나타난 Mead의 논의는 본 연구자가 연구의도를 설득시키기 위하여 ‘도구’적으로 사용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Mead의 논의 자체를 ‘일방적인 지향점’으로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Mead는 사회 성원들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위해, 다양한 사회를 하나로 묶어 보려는 총체적 입장을 가지면서 문화적 다원주의,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추구를 일생의 바탕으로 삼은 인류학자로 평가(조혜정, 1981: 246-247)받고 있다.

어 있는 상황으로 정리(전상진, 2002: 205-206; 2003b: 82-83)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분명 첫 번째는 아니지만 완전히 세 번째라고는 할 수 없는)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현재의 위치가 ‘후-형성적 문화’가 주도되는 전통사회를 지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변화 앞에서 연령관계로 구분되는 세대(가족적세대, 전통적 교육세대)는 분명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 ‘동시-형성’을 넘어서서 지극히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대간의 무조건적인 일치’ 혹은 ‘세대간의 막연한 공존’이라는 환상에 사로 잡혀 있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절한 ‘통합(integration)’과 무조건적인 ‘획일(unifying)’ 개념(함인희, 2000: 190)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공존에 대한 환상’은 혼란만을 가중시켰지만, 이제 금기시 되어 왔던 ‘비 공존’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아직도 전통사회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인세대를 절대적으로 바라보던 시기를 지나 성장세대 주도의 시기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사회적세대’와 ‘새로운 교육세대’를 아직도 ‘일시적인 등장, 간단한 사건’ 등의 차원으로 가볍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이 강세를 보일 미래 사회를 예상할 때, 이들의 모습은 시대적으로 ‘적합’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오랜 기간 세대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을 바탕으로 하는 세대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특징은, 그러한 ‘급격히 부각되는 세대’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문제해결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2.6 소결 : 세대구분을 통한 세대간의 충돌지점(세대갈등)에 대한 이해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의 갈등은 매우 길다. 예전부터 어느 지역에서나 발견되는 비난의 대체적 내용은 ‘요새’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썩어 있으며, 버릇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장자들의 경험과 식견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으로 젊은 세대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반감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세대갈등’은 전통사회에서 보여주었던 기득권자의 권력이양여부에 따른 ‘권위갈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정적이고 순환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믿음의 동요’이며, ‘전통적 연령

집단에 근거한 권위적 질서의 와해' 라고 할 수 있다(전상진, 2003b: 78-79; 8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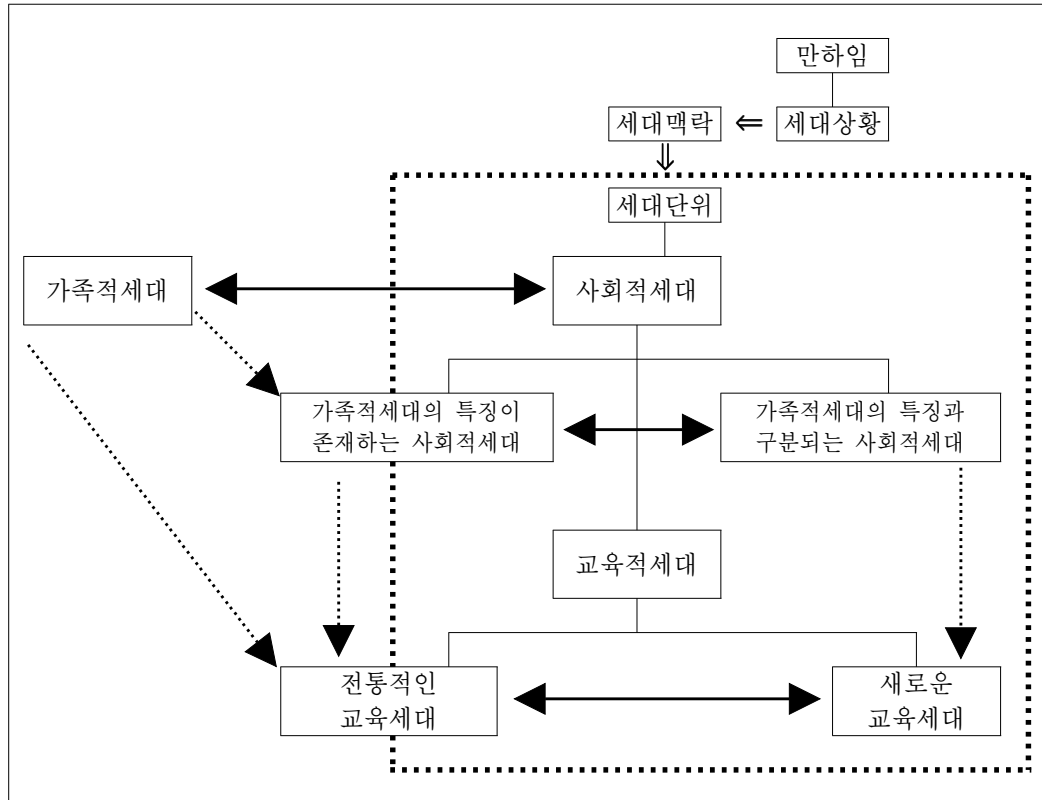
사회는 변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기준은 고착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세대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의 하나이다. ... 부모세대는 자신들이 이루지 못했던 이상(理想)을 지금 자녀세대에게 요구하는 과도한 시대적 괴리가 진행되고 있다. ... 문제는 자녀세대에게 그 압력이 더욱 강하게 가해진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부와 자원의 소유 및 통제가 여전히 기성세대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때 부모세대는 자녀세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고, 자녀세대는 자신에게 통제와 억압에 반항하게 된다(함인희, 2000: 199-200).

위와 같이, 함인희(2000)는 세대갈등의 내용과 본질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둘러싼 통제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보고 있다.⁴³⁾ 또 이러한 점에서는 '세대갈등에 대한 일련의 변화'가 있음을 강조한다. 곧 지금까지의 세대문제가 주로 부모-자녀세대를 기본축으로 하여,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의 일시적 반항과 반발을 길들이고 무마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세대갈등이 주축을 이루어 왔다면, 오늘날에는 갈등의 축이 다변화된 것은 물론, 갈등의 내용도 '길들이기 차원'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II장 2.2) '세대구분'은 이러한 갈등의 축이 다변화되어 나타나는 세대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4>는 이러한 '세대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세대간의 충돌지점'에 대해 이해를 종합적인 틀을 통해 접근해 보기 위한 것이다.

가족세대와 일차적으로 구분되면서 대립의 측면을 보이는 사회적세대는 세대형성의 필연성과 세대특징의 당위성을 증명해주는 '세대단위'의 개념을 통해 다른 세대에 의해 조망되는 세대가 아닌 '세대 그 자체'의 지위를 얻게 된다. 그렇게 '세대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세대들은 가족적세대의 특징이 강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43) 함인희(2000)의 연구가 주목되는 이유는 그녀가 세대갈등을 분석하면서, 상호세대를 모두 Mannheim의 '세대단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통제권만을 주장하는 부모세대'가 아닌 '실제세계의 냉혹성을 잘 아는 세대', '정부의 무력함을 잘 아는 세대', 그렇기 때문에 '통제권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세대에 대한 이해'는 그녀의 연구가 '세대갈등'에 대한 이해를, 단순한 갈등구조의 파악만이 아닌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세대공존'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함인희, 2002a: 213)하고 있는 것에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는 영향력 혹은 관계를, ↔ 은 세대층들이 가능함을 나타냄



〈그림 II-4〉 - 세대구분을 통한 세대간 갈등지점의 이해

‘혈통계보’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적세대와는 다른 사회적세대는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세대들을 만들어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학적 세대이다. 교육학적 세대 역시, 가족적세대의 영향력에 따라 전통적 교육세대와 새로운 교육세대로 구분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세대들은 앞서 살펴본 그 특징들을 바탕으로 볼 때, ‘수직적인 연령서열을 바탕으로 권위적인 전달자·전수자세대를 구분해 주는’ 세대(가족적세대, 전통적 교육세대)와 ‘집단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무조건적인 연령서열의 일치성을 전제로 하는 교육주체 관계를 거부하는’ 세대(사회적세대, 새로운 교육세대)로 각각 묶어져서 이차적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세대들은 ‘세대단위’가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세대’의 자격을 가지고 상호세대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관계맺음에서 발생하는 ‘주도권 싸움’이 바로

‘세대충돌’, 즉 ‘세대갈등’이다. 다시 말해, 세대충돌이란 세대들끼리의 상호간의 ‘환원 불가능성’⁴⁴⁾에 대한 이해 없이 한쪽의 개념으로 다른 쪽을 통합(전상진, 2002: 218)하고자 할 때 상호간의 꺾게 되는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이 충돌이 청소년세대의 ‘유예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앞서 살펴본 모라토리움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적세대에서 파생한 사회적세대는 사회문화과정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더 이상 가족적세대로 환원되지 않는다(전상진, 2003b: 75). 또한, 귀속적, 장기적인 상호보호에 근거한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교육세대는 ‘일생’이 아닌 ‘특정기간’의 교사와 학생으로서의 만남, 즉 초(超)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세대(전상진, 2004b: 200)와 일치하지 않는다. 모라토리움 모델에서는 청소년의 유예기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인식과 태도를 보이는 교사와 학생들이 통제권과 주도권을 둘러싼 각축전이 선명하다. 즉 자신의 통제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사들과 자신들을 통제하려는 교사와 학교에 대해 저항하려는 학생들의 대립인 것이다(Ibid: 213-214).

지금까지 살펴본 ‘세대구분’에 의해 나타나는 ‘세대들의 상이함’을 ‘청소년문제’에 적용하여 본다면 세대갈등의 다양한 진단과 처방의 취약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전상진, 2003b: 85-86). 즉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의 충돌은 단순히 하위문화들의 대립을 통해 바라보는 ‘세대차이’로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지배적 문화’에 대한 주도권 다툼, ‘정당한 문화와 지식의 주도권’을 둘러싼 권력 다툼 등(Ibid: 85), ‘세대 관계맺음에서 나타나는 충돌’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세대간 인식의 각축양상에서 주도권을 가진 세대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가 얼마나 세대의 고유한 특징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그 충돌의 필연성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4) 모든 세대간의 ‘환원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족적세대의 특징이 존재하는 사회적세대’와 ‘전통적인 교육세대’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적세대’와 ‘새로운 교육세대’의 경우는 환원 불가능성이 분명히 나타난다.

45)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이 상호간의 ‘연관’자체가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전상진(2002: 219)은 이에 대하여 ‘어떤 특정 사회적세대의 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가족세대에서의 위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역으로 어떤 세대운동에 의해 확산된 특정한 시대정신은 가족세대간 관계양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3. 한국 가톨릭 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이해

3.1 주일학교를 둘러싼 문제양상

주일학교(sunday school)는 주일마다 성당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학년에 따라 구분하여,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심화시키는 조직적 교리교육(catechism)의 한 형태로서, 이를 통해 교회는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다시금 신앙에 입문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교육하고 양성하여 하느님의 부르심에 전인적(全人的)으로 응답하는 신앙인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한국 가톨릭 대사전, 2004: 7863).

처음의 주일학교는 1700년대 후반 영국 런던 근교에서 빈민들을 대상으로 주일에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시작하였지만(Livingstone, 1977: 493-494) 후에 미국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 현재의 주일학교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의 주일학교 역시 1930년 ~ 1970년대에 걸쳐 현재의 주일학교 형태를 형성하였으며,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인성발달을 도모하며, 획일적인 교육환경에서의 유일한 해방구 역할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서구와는 달리 일반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는 종교교육의 역할로서 그 위상을 보이고 있다(신장호, 2003: 4-9).

하지만 주일학교는 언제나 ‘청소년 신앙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러한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상의 특수성’을 이해할 때 주일학교라는 곳이 정적인 공간이 아닌 역동적인 삶의 현장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주일학교라는 공간 역시 ‘청소년을 둘러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주일학교 문제제기는 과거에 비해 훨씬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그 분석 측면 역시 청소년 사목자의 짧은 임기, 열정 부족, 교리 교사들의 부족과 짧은 재임기간, 주일학교 프로그램의 즉흥적 이벤트성,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부재 등(조재연, 2004b: 91)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종교가 없는 학생들까지 이성친구와의 만남을 위해 ‘연애 자유구역’인 성당과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때문에 항상 젊은이들로 북적였던 주일학교가(동아일보, 2005. 1. 10) 최근에는 낮은 미사 참여율과 주입식 주일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적인 주일학교가 아닌 원하는 학생들만 등록제로 주일학교 운영하려고 하는 현상(가톨릭 신문, 2004. 3. 28)까지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주일학교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일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가톨릭 신문, 2004. 3. 21; 한명수, 2005), 학생교육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리교사들의 철저한 재교육을 통해(가톨릭

신문, 2002. 9. 1; 최금자, 2005) 주일학교가 다시 태어나야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대안들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주일학교가 현재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⁶⁾ 이처럼 주일학교라는 공간은 청소년들을 필연적으로 중심에 둔 채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청소년이 존재’ 하며 ‘청소년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주일학교라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세대간의 모습들을 세대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가 도입하는 ‘주일학교에 대한 세대 사회학적 접근’은 ‘청소년을 둘러싼 세대간의 각축양상’을 알아보기 위함에 그 연구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가톨릭 교계제도’라는 거시적 틀에 대한 문제제기(예를 들어, 이제민, 1995; 1998, 서공석·정양모, 1998; 1999, 민경석, 2000)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⁴⁷⁾ 본 연구는 ‘교회 권위주의’나 ‘성직자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며 다만 ‘주일학교’라는 곳에서 보여지는 세대간의 모습과 청소년 이해에 대한 ‘세대간 각축전’을 나타내고자 할 뿐이다. 즉 ‘세대 사회학적 논의’가 청소년을 둘러싼 현상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분명한 목적임을 밝히는 바이다.

3.2 기존연구들의 이해

3.2.1 주일학교 학생 수의 감소 - 위기 위식의 출발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⁴⁸⁾ 가톨릭 청소년 70-80만명 중(문용린, 1997: 27), 주일학

46) 이러한 문제점은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조종제(1999), 박용진(2000), 최윤식(2001) 등은 청소년이 주일학교를 떠나는 것을 ‘위기의 교회’를 나타내는 현상이라 말하며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의 청소년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47)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드러날 부분이 상당부분 ‘가톨릭 교계제도’에 따른 상호간의 역할과 임무에 따른 갈등양상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자가 ‘세대간 각축양상’만을 특정한 유형으로 부각하여 살펴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세대간의 역할구분은 특별함을 떠나 ‘기본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의 다름’은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은 사목자에 대한 존경과 순명의 자세를 보여야 하며(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8조2항), 사제들은 평신도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목활동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사제 사목 생활에 관한 규범, 92항 참조). 이렇게 볼 때, 교회 내 ‘기본적인’ 역할의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특별히’ 부각시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본 연구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48)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통계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2003년 현재, 한국의 가톨릭 신자는 총 인구 48,823,837명의 9.1% 수준인 4,430,79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본당 1,359개, 공소 989개가 운영 중이며, 주교 31명, 신부 3,584명(신자 1,237명당 1명 꼴)이 이를 책임지고 있다(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통계자료).

교에 등록된 학생의 총 수는 1999년 초등부 18만 1046명, 중·고등부 10만 7492명에서 2003년 초등부 17만 7340명, 중·고등부 9만 9312명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주일학교 대상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실제로 출석하는 예를 살펴보면 마산교구⁴⁹⁾의 경우 초등부가 49.0%, 중등부가 27.2%, 고등부가 26.1%로 조사됐다. 대구 대교구의 경우도 2001년 말 49개 본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교적 대비 주일학교 등록 비율을 57%에 불과하였다. 중·고등부 주일학생들은 45개 본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적대비 주일학교 등록률은 41%, 교적대비 주일학교 출석률은 32%로 조사되었다. 인천교구도 교적대비 주일학교 대상자들의 전체 출석률이 초등부 55.3%, 중등부 29.2%, 고등부가 16%에 그쳐 학년이 높아질수록 출석률이 떨어졌다.⁵⁰⁾

이러한 ‘주일학교 학생 수의 감소’는 주일학교에 대한 일차적인 문제점 인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주일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감소’라는 측면이 눈에 드러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교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일학교 학생 수의 감소’는 바로 주5일제 문화의 가족의 여가활용 측면과 함께 맞물리면서(가톨릭 신문, 2002, 4. 21; 조재연, 2004g: 95) 주일학교의 입지 약화의 측면으로서의 ‘주일학교의 위기 - 학생 수의 급감’이라는 초점(가톨릭 신문, 2001. 5. 27; 2002. 4. 14; 조재연, 2004g: 94-95; 평화신문, 2000. 3. 19)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현재의 청소년 신앙 교육에 관한 모든 우려의 목소리는 ‘청소년 수의 급격한 감소’라는 위기위식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목표점 역시 어떻게 하면 청소년 들을 성당에 나오게 할 것이라는데 집중이 되고 있다(이미영, 2005: 5-6).

이러한 ‘위기의식’이 바탕이 된 주일학교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장호(2003)는 학생인원의 감소를 주일학교의 위기라고 하면서 주일학교의 문제점을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교리교사의 자질 부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화시대와 맞는 교육방법을 통해 주일학교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한다. 문용린(1997)은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의 모습을 ‘교회의 텃밭 가꾸기의 실패’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을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로 세우는 교회의 모습을 ‘분파주의(sectism)’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설

49) ‘교구’라는 것은 부분교회의 기본단위라고 할 수 있다. ‘교구’들이 모여 ‘관구’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4개의 관구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1)서울관구=서울대교구, 의정부교구, 인천교구, 수원교구, 춘천교구, 원주교구, 대전교구 / 2)광주관구=광주대교구, 전주교구, 제주교구 / 3)대구관구=대구대교구, 안동교구, 부산교구, 마산교구, 청주교구 / 4)군중 교구.

50) 여기에 사용된 통계 자료는 한국 천주교 중앙회의 통계자료, 가톨릭 신문, 평화 신문 등의 자료를 통해 재구성 한 것이다. 세부 인용사항은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명하고 있다.

조재연의 경우는 좀 더 분석적인 연구를 통해 주일학교의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 하는데, 청소년들이 주일학교를 외면하는 이러한 ‘주일학교의 위기’의 원인을 교회와 청소년 사목자들이 청소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조재연, 2004a: 80-81; 2004e: 108)이라고 하면서 청소년 공청회 결과자료와 시노드(synod)⁵¹⁾ 자료 등의 분석(조재연, 2004a: 81-90; 2004c: 85-93)을 통해 단순히 교육환경에 의해 주일학교 감소만이 아닌⁵²⁾(조재연, 2004b: 92) 다양한 측면에서의 위기사향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관계성에 대한 회복(Ibid: 95-98)을 중점으로 하는 또래사목(peer ministry)에 대한 강조(조재연, 2004f: 97-105)를 통해 낡은 사목방침으로는 더 이상 청소년 사목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조재연, 2004d: 106-117)함을 강조하고 있다.

3.2.2 청소년기의 종교 심리학적 이해 - 위기에 대한 진단기제

앞서 언급한 ‘주일학교 학생 수’의 감소라는 ‘위기’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분석의 우선적인 진단기제는 ‘청소년기의 종교적 성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즉, 사목방침과 교육학적 접근 등, 주일학교에서 청소년을 상대해야 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청소년기의 종교성’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의 결과’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연구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인용은 이러한 ‘청소년기의 종교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윤주병(1986)의 논의들이다.

청소년기에는 종교적 행동에 새롭게 변화된 형태가 생겨나고, 아동기에 가졌던 연약한 신앙심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아동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실천’적인 데 반해, 청소년들은 주어진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고, 궁금증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요구한

51) '시노드'란 교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회의의 명칭이다. 시노드는 크게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교구 시노드와 주교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주교 시노드로 구분된다. 자세한 것은 <http://www.synod.or.kr/html/synoran-1.html> 을 참조할 것.

52) 후반부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일학교 위기’에 대한 원인에 대한 많은 청소년 사목자(주로 사제집단)들이 ‘사교육 측면’ -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식 - 에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주일학교의 가운데에 있는, 그리고 실제로 주일학교를 떠나고 있는 청소년들은 ‘공부’가 아닌 ‘재미없는 주일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놀러가느라’ 주일학교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평화신문, 2000. 3. 19). 이러한 점에서 ‘교육환경’ 이외의 요인을 찾아내는 조재연의 연구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 아동기에는 무조건 믿었지만 청소년기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체계에 부합하고 이치에 합당할 때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해지거나 쉽게 종교 생활을 포기한다(윤주병, 1986: 178).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전통적으로 전수된 종교적 가치가 자기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함을 발견한다. 이러한 종교심의 거부능 가정의 전통적 가치로부터 탈피하여 다른 여러 가지 기반 위에 자유와 자기실현의 새로운 미래를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ibid: 196).

이러한 논의에 기반을 두고 주일학교를 이해하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신현석(1995)은 청소년기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와 청소년기의 종교적 자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이 주일학교 미디어 교육과 어떻게 병행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박상준(2002)은 청소년기의 가치관 및 종교성에 비추어 주일학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리교육이 교육내용, 교리교사수준, 교육환경 등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며 바람직한 대안으로 신심운동을 통한 청소년 신앙성숙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주일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최호(2002)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종교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가톨릭계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앞선 언급한 조재연의 경우도 청소년기의 특징을 종교적 성향과 비교하면서(조재연, 2004b: 94-95; 2004f: 95-96) 주일학교의 발전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표 II-3>에서 알 수 있는 청소년기의 종교적 성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출발하며, 또한 처방 역시 이러한 청소년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⁵³⁾

여기에 나타난 청소년기의 종교적 성향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기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특징은 또래와 관계를 맺기 원하며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바로 ‘소속되어진 신앙(affinitive faith)’인 것이다

53) 여기에서는 ‘청소년기의 종교심리학적 성향’을 언급하였지만, 이는 결국 ‘발달심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II장 1절 - 청소년기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입장에서 언급한 여러 이론들이 본 연구방향에 어떠한 함의점이 있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발달심리’와 ‘신앙교육’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이금만(2000)을 참조할 것.

구 분	종교를 받아들이는 단계		
Westerhoff (1974)	체험된 신앙 (experienced faith) : 받아들여진 신앙	▶ ‘역동적’ 으로 소속되어진 신앙 (affinitive faith) : 자기것이 된 신앙	▶ 추구하는 신앙 (searching faith)
Boran (1996)	가슴의종교 (the religious of heart)	▶ 머리의 종교 (the religious of head)	
Fowler (1987)	종합적-인습적 신념 (synthetic-conventional faith)	▶ 개별적-반성적 신념 (individual -reflexive faith)	▶ 역설적-통합적 신앙 (paradoxical-consolidated faith)
성장단계			

〈표Ⅲ-3〉 - 청소년기에 대한 종교심리학적 이해

그러나 이 ‘소속되어진 신앙’ 이 의미하는 것이 청소년기가 종교적 단체에서 요구하는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무비판적으로 신앙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가슴의 종교),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여 이지적으로 신(神)에게 다가가는 ‘머리의 종교(religion of head)’로서 절대자에게 다가 가게 된다. 다시 말해, 가슴으로 체험되어서 단순히 받아들여지는 신앙심이 아니라 개별적인 기준에 의해 성찰적인(reflexive) 자세를 통해 ‘소속감’ 과 ‘소속되는 신앙의 타당성’ 을 심사숙고하는(장휘숙, 1999: 258-259)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⁵⁴⁾

이러한 청소년기의 종교적 이해를 간과한 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거부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연구들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3 주일학교 공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다양한 측면의 간과

‘청소년 사목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성체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는 이는 아주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그냥 상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경건한 자세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미사는 흥미나 오락으로 전락되어 갑니다. 그들을

54) 실제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는 대학생들의 수가 증가(장휘숙, 1999: 262)하고 있는데 이는 고차원적인 교육을 습득할수록 젊은이들이 종교에 대한 전통적 신념에서 탈피하고 한층 더 개별적인 사고를 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하는 이가 신앙의 신비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이들을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 거룩함만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킵니다(가톨릭 신문, 2005. 1. 9).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주일학교를 재정비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장으로 바꿔줘야 한다. 더불어 주일학교에서 벗어나 생활과 접목되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활동을 제공하면서 다수의 비신자 학생들의 전인교육에도 적극 나설 때이다(가톨릭 신문, 2002. 4. 28).

어느 샌가 주일 미사만 꼬박꼬박 나갈 뿐 주일학교에 가고 싶다는 맘은 사라져 버렸다. 성당 갈 날을 손으로 꼽던 나에게 가기 싫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어색하기만 하다. 사람들과 만나는 즐거움이나 정이란 게 없어졌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계속되면서 성당이 재미없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정말 성당에 열심히 다닐 줄 알았는데 교리 시간도 피하고 성당은 나가지만 정작 나를 위한 청소년 미사는 빠지는 아이들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언제 성당을 재밌게 다녔냐는 듯이 말이다(월간 가톨릭 디다케, 2005. 3).

위의 세 가지 인용은 주일학교의 현 실태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우선 처음의 인용은 주일학교가 흥미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경건한 신앙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함이 청소년 사목자의 입장에서 강조되고 있고 다음의 인용에서는 기존의 주일학교 형식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롭고 흥미로운 분위기를 통해 청소년 신앙교육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당에 가지 않는 것을 ‘사람들과 만나는 즐거움과정이 부족한 것’에 대치시켜 설명한 청소년의 입장이 인용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든 주일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문제의 원인과 그 원인으로부터의 대안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각기 다른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앞선 연구들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주일학교 학생 수의 감소’라는 측면을 ‘주일학교의 위기’로 상징할 경우, ‘주일학교의 위기에 대한 분석’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일학교에 학생이 급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대한 원인을 신앙심의 부족으로 흘러가는 흥미위주의 전례, 아니면 너무 격식에 집착하여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어우르지 못한다는 지적, 친구와의 관계를 잘 파악해주지 못하는 주일학교의 딱딱함 등으로 서로 각기 인식하는 것은 그 원인의 분석이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히 검토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주일학교 학생 수의 급감’을 ‘청소년기의 종교성’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는 ‘교리교사들의 수준적 문제’와 ‘시대와 동 떨어지는 교육적 환경’ 등으로 위기에 대한 원인을 상정하는 편협성을 보여주고 있다.⁵⁵⁾ 즉 ‘청소년기의 종교적 심리’라는 부분이 어떠한 양상으로 주일학교라는 공간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등장하는 지에 대한 분석이 간과된 채 단순히 교육내용의 저하와 교리교사수준의 미흡함이 청소년의 종교적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인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소결 - 세대 사회학적 관점의 이해를 통한 주일학교 연구의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편협한 청소년연구를 극복할 방안으로서의 세대 사회학적 관점이 역동적인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있으면서도 일괄적인 문제제기와 단편적인 처방만이 존재하고 있는 주일학교라는 공간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청소년연구의 편협성을 극복하기 위한 세대 사회학적 관점이 어떠하였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세대와 관련된 문제분석에 있어서 접근방법의 편협성이 존재하는가?
(세대이론 간과)
2. 동일한 현상에 대한(청소년문제) 세대들간의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는가?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
3. 차이를 보이는 각각의 세대들은 어떠한 특징을 통해 자기 ‘고유한’ 세대를 형성하는가?
(세대형성의 숙명성)
4. 고유한 세대로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세대들은 동일한 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틀에서 어떠한 전략적 위치로 상호간의 관계맺음을 이루고 있는가?
(모라토리움 모델에서의 세대 각축양상)

위와 같은 논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사례연구인 ‘한국 가톨릭 교회의 주일학교’에 적용될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주일학교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법에서 ‘편협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가?
2. 주일학교 문제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55) 특히 이 부분은 앞으로 전개될 사례분석에서 한쪽 세대만의 관점으로 잘 나타날 것이다.

3. 한국 가톨릭이라는 특성이 각 세대들의 고유한 ‘숙명적 세대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내고 있는가?
4. 주일학교에서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의 주도권 다툼이 ‘종교교육, 신앙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각축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위의 연구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주일학교를 둘러싼 일반적인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미 살펴보았다.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주일학교에 관한 연구’는 ‘주일학교 학생 수의 감소’라는 공통된 위기의식의 출발과 ‘청소년들의 종교적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일학교 교육’이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와는 별도로 주일학교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바라보는 인식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편협적인 주일학교 접근’이 일련의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시각의 ‘일방성’이 주일학교라는 필드 안에서 존재하는 세대간의 인식 차이와 상호 대립되는 충돌지점을 과연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편협성’에 대한 극복을 위해 다음 장에서 ‘주일학교에 대한 세대 사회학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그러한 접근을 통해 ‘주일학교의 위기’라는 공통된 이슈에 대한 ‘위기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게 펼쳐지는 각축양상을 주일학교 공간에 존재하는 각기 세대들, 사제, 교리교사,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각기 세대들에 대한 심층적 개별 인터뷰를 바탕으로⁵⁶⁾ 전개될 연구과정을 통해 주일학교를 둘러싼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 그러한 인식차이를 나타내는 세대특징의 숙명적인 이해를 하게 될 것이며, 주일학교 내에서의 세대간 각축양상을 거시적 틀로 시각화시키는 것에 본 연구의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즉 세대 사회학적 접근이 과연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이해, ‘청소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적합한 답을 제공해주는지가 다음 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6) 인터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I 장 2절을 참조할 것.

Ⅲ. 한국 가톨릭 교회의 주일학교에 대한 세대 사회학적 접근

1. 세대간 인식의 차이⁵⁷⁾

1.1 사제들의 인식

현재 주일학교에서 교육 전달자세대로서 위치하고 있는 ‘사제’ 집단들을 통해 주일학교 위기에 대한 원인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자.

우선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사교육’ 즉 학원문화가 이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입시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학원 때문에 가지 못간다’ 라는 말은 9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늘기 시작하였다. 주일학교의 내용을 떠나서, 토요일 오후, 주일 오전 이 시간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원을 가야 하는 시간이다. 남들 다 학원 가는데 누가 주일학교를 보내겠는가? (사제 A)

일차적으로 주일학교 환경여건이 노화되어 있다. 70-80년대 건물수준이 태반이다. 그리고 최신식 건물이라 하여도, 실질적인 교육여건은 그대로다. 반대로 성당 말고 외부적인 시설은 과거에 비해 놀랄만한 정도로 발달되었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의 놀랄만한 확장으로 인해 이제 굳이 성당 나올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일차적으로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교리수준이 설득력이 전혀 없다. 현대사회는 시각적, 감각적 교육을 원하지만 여기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항상 주입식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아울러 ‘교리교사의 수준’도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 교리교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그저 ‘자기들 동료와의 관계’, ‘학생들과의 관계’에만 집착한다. 그리고 본당의 ‘재정적 문제’도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아울러져서 현재의 주일학교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사제 C)

사제 A의 경우, 토요일과 주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교육을 주일학교의 위기가 초래된 이유로 말하고 있으며, 사제 C의 경우는, 환경의 노후, 교리수준의 저하, 교리교사수준의 미흡, 재정적 문제 등 조금 더 복합적인 요인들을 결부시켜 주일학교의 문제를 말하고 있

57) 본 연구에서는 주일학교의 공간을 핵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사제세대, 교리교사세대, 청소년세대라고 미리 설정하고 연구를 전개함을 밝힌다. 실제로 주일학교라는 공간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가톨릭의 교계제도라든지 본당의 재정상태, 자모회의 역량, 상급단체와의 연계문제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함이 아닌 주일학교 안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세대간의 인식차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각주 47을 참조할 것.

다.

1.2 교리교사들의 인식

주일학교 내에서는 청소년 사목자의 대표로서 ‘사제’, 특히 본당의 보좌신부들이 그러한 자리를 대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청소년들과 교육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교리교사라고 할 수 있다.⁵⁸⁾ 아울러 교리교사들은 청소년 사목자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로서 주일학교 내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전달자와 교육전수자 위치를 모두 다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일학교 교리교사들이 판단하는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수치상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종교’라는 곳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 다들 종교를 떠나니까... 다만 주일학교 내에서의 문제를 보자는 거다. 가장 큰 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누군가가 종교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일학교에 왔다가 발을 붙이느냐, 못 붙이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과거부터 계속된 잘못된 청소년 사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뭐 간단하게 말해 열심히 하는 자는 예뻐하고 챙겨주는데 반해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관심조차 없다. 어려운 고민 끝에 나오더라도 누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다. (교리교사 D)

사회에 비해 엄청 처져있는 주일학교의 문제는 교리교사의 위치가 보좌신부의 ‘도우미’ 이상 이 될 수 없음에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엄연한 교육자라고 생각하는 교리교사들이 현재 주일학교 내에서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보좌신부의 스타일에 좌지우지되어야 하고 ‘성직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본다. 물론 교육적 역량이 부족한 것도 사실지만,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은 신부님이 아니라 교리교사회 자체의 능동적인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보좌신부는 일종의 ‘보스’이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왜 그렇게 ‘보스’가 자주 교체되나? 교체될 때마다 죽을 지경이다. 새로 부임한 보좌신부님 ‘나는 이렇게 한다.’ 혹은 ‘내가 있을 때 그런 것은 허용 안 한다’식의 연설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신다. 결국 교리교사들은 ‘보좌신부 스타일’ 따라가기 바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스타일도 내가 보기에 제대로 효과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교리교사 9년 동안 하면서 7명의 신부님이 거쳐 갔다. 언제나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은 관심 없고, 교리교사들은 신부님들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항상 갈등관계에 있었다. (교리교사 E)

58)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2003년 기준), 현재 한국 가톨릭 주일학교의 교리교사는 17,45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주일학교 학생 수 246,169명에 비교할 때, 학생 14명당 1명꼴이라고 할 수 있다.

교리교사들은 사제들이 외부적 요인(학원문제)과 부가적 요인(시설 및 교육수준)을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것에 반해 교회 내의 시스템 적 문제가 청소년들이 주일학교에 발을 돌리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교리교사 D의 경우, 주일학교에 발을 붙였다고 다시 돌리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E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을 돌리게 되는 시스템적 문제를 보좌신부의 지나친 권한과 교리교사와의 갈등관계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갈등관계를 만들어내는 짧은 임기 등에 주목하여 주일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떠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1.3 청소년들의 인식

교육 전달자의 위치에 있는 사제와 교리교사들과는 다르게 주일학교 내에서 교육 전수자의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주일학교의 위기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자⁵⁹⁾.

재미가 없지 않느냐! 내가 성당도 오래 나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주일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또 그런다. ‘성당이 놀이터냐고!’ , 하지만 재미가 있고 없고가 왜 놀이터가 되는지 모르겠다. 훨씬 더 경건한 미사를 드리고 심오한 교리를 배워도 재미가 있을 때는 재미있다. 하지만 지금 성당에서 오는 많은 관심들(일단 관심이라고 하자. 내가 보기에 별 관심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생각해 주니까), 그러니까 간식도 주고, 행사도 있고 등등. 이러한 것들 다 재미가 없다. 왜 그런지는 본인들이 잘 알지 않는가? 모르는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뭘 해도, 뭘 해도 절차가 있고 따라야 하는 규율이 있다. 또 뭘 하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것은 절대 이해 못하지 않지 않느냐. 일단 그게 싫다. 무조건 뭘 해야 한다고 하는 거. 행사도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몇 주 전부터 난리다. 가고 싶어도 그럴 때면 가기 싫어진다. (청소년 H)

하기 싫은 것을 시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기 싫은 것’이 나에게서는 정말로 ‘별 필요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성당에서 얻는 것이 수학공식이나 수능예상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고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은 매주 미사

59)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주일학교의 위기’라는 것은 교육전달자의 입장에서의 ‘위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주일학교의 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이를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시킬 경우 ‘주일학교 위기를 초래한 주 대상자’라는 인식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도중에도 교육 전달자에게는 ‘주일학교의 위기를 어떻게 보시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는 ‘왜 주일학교에 관심이 없습니까?’, 혹은 ‘주일학교에서 발을 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를 드리고, 1분이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기도를 한다. 나는 이것이면 충분히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교리시간에 배우는 것들, 정말 예전에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였는데, 이제는 ‘저것이 도대체 저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게 제일 싫다. 상관없는 것을 자꾸 얘기한다. 근데 지독히도 이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교리교사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뜻을 받아들이어서인지 때때로 재미있게 교리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한다. 야외수업도 하고 개방수업도 한다. 물론 ‘참 재미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형들, 누나들의 노력이 참 좋아도 보인다. 근데 그러다가 금방 제자리로 돌아간다. 신부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단다.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내가 재미있고, 그래서 성당 나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지 모르겠다. (청소년 G)

청소년들의 경우, 사제와 교리교사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스스로에게 느껴지는 것을 불만사항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의 경우, 절차와 규율이 가져다주는 재미의 반감을 주일학교가 싫증나는 주요한 원인으로 말하고 있으며, G의 경우, 교리의 내용과 전달방식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1.4 각 세대간 인식에 대한 상호반응들

여기서는 각 세대간의 인식에 대하여 상호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최초 인터뷰 과정에서, 사제 B, 교리교사 F, 청소년 I의 경우는 다른 대상자들의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다(각주 7 참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인식에 대한 상호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앞선 장에서 진행한 단편적인 질문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에서 나아가 대립되는 관점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드러나는 뚜렷한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이다.⁶⁰⁾

먼저, 사제 A, C의 인식에 대한 교리교사 F, 청소년 I의 반응을 살펴보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학원, 학원 그러는 것이 하루 이들의 일인가? 그리고 요즈음 청소년이 학교와 학원만을 가는가?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더욱 다양한 체험을 위해 주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도 학원은 안 다니면서 공부 잘 하는 애들도 수두룩하다. 반대로 주일학교를 학원 때문에 빠지지

60) 아울러 이러한 뚜렷한 세대간 인식차에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각주 47; 57), 근본적으로 ‘가톨릭의 교계제도’를 바탕으로 한 구성원들간의 역할구분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이 잘 드러날 것이다.

만 공부량은 거리가 먼 학생들도 많다. 그리고 교리교사 얘기는 나올 줄 알았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말도 안 된다. 일단 교리교사들의 수준이 있는데 ‘없다고 해서’ 내가 흥분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부분 인정한다. 근데 왜 그것이 교리교사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다. 최초에 교리교사가 주일학교에 투입될 때, 교리교사수준을 떠나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 아니었나? 나도 그런 식으로 시작했고 지금 대다수가 그렇게 시작한다. 교리교사의 교리에 대한 지적 수준이나 교수방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다. 최초에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단지 교리교사회 수 불려서 본당의 청년사목이 잘 되고 있는 데에만 목숨 걸었던 사람이 왜 지금 와서 뜬 말인지 모르겠다. (교리교사 F)

애초에 교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것이 새삼 시대에 뒤쳐진다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리교사가 수준이하라든지 생각해 본적이 별로 없다. 어차피 교리교사들은 몇 년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친한 오빠, 언니들이지 않는가? 같이 ‘스타 크래프트’ 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도 간혹 보면 게임이나 한판하지, 뭐 사제와 제자간의 그러한 격식 있는 관계에는 애초에 관심 없었다. (물론 그걸 자주 강조하니까 지금 내가 냉담중이지만) 내가 오랫동안 냉담중이라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지만, 웬지 ‘시대에 뒤떨어져있는 현상’이라는 부분에서 시설면이라든지, 아니면 성당 밖에서는 할 것이 많은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식은 좀 아니지 않은가? 친구들 중에 훨씬 시설이 뒤떨어져도 본인이 원하면 그곳에 가서 춤도 배우고 마술도 배우고 그러더라. 많은 분들이 우리들을 이해하려면 마치 초첨단 현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기자개가 필요한 수업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주일학교를 그것 때문에 가고 안 가고 할지는 의문이다. 나? 난 그냥 싫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청소년 I)

청소년들의 사교육문제와 주일학교의 시설 및 교리의 질적 수준, 교리교사들의 자질 등을 문제 삼았던 사제들의 의견에 대해, 교리교사 F는, 청소년들이 오직 학원이라는 문제 때문에 주일학교를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하였으며⁶¹⁾, 또한 교리교사들의 수준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그러한 교리교사들의 수준저하의 원인을 교리교사들의 잘못으로 보아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청소년 I의 경우, 교리의 수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시설낙후 등의 문제로 주일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의 이유를 상정하는 것에 수긍하지 않았다.

61) 이 부분의 의의에 대하여서는 각주 52를 참조할 것.

다음은 교리교사 D, E의 인식에 대한 사제 B, 청소년 I의 입장을 살펴보자.

무조건 신부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싫다는 것인가? 그리고 신부의 임기가 짧은 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제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 차후에 본당에서 사목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면 본당에서 기존의 틀만을 따라서 사목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닌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신부가 무조건적으로 결정권자로서 교리교사들을 대한다면 분명 반발을 있을 수는 있으나, 신학적 지식이 미흡한 교리교사들에게는 신부의 절대적인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톨릭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 교리에 어긋나거나, 허구한날 인생얘기만 하면 그게 왜 교리교사냐?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신학적 지식을 못 가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원래부터 그러한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기초적인 교리전달도 모른 채 서로간의 친분만 쌓아 갈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러한 교리교사들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사제 B)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너무 보좌신부의 영향력을 너무 과대평가 하는 거 아닌가? 오빠들한테 얘기 들어서 교리교사랑 신부님들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은 대충은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뭐... 뭐 같은 신부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성당 나오고 안 오고가 결정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 나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이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생기면 신부님들이 잘 챙겨 주시기도 하더라. 밥도 사주고 뭐 그렇다. 그리고 내가 과거의 청소년사목에서 답습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 뭐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가 전반적으로 고리타분한 것은 사실이다. 학교 선생님이 맨 날 ‘요즘 너희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예전 같으면 죽을 때까지 맞고도 아무런 소리 안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주일학교는 적어도 내가 초등학교 때와 비교할 때 많이 변한 것은 없다. 신부님이든, 교리교사든 굉장히 학교보다 더 권위적일 때가 있다. (청소년 I)

사제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스템적 문제를 주일학교 문제로 지적한 교리교사에 대해 사제 B는 임기가 짧아서 문제되어지는 부분은 시스템적 취약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교리교사들에게 사제집단의 권한행사가 어느 부분에서, 특히 신학적 지식에 관한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교리교사들이 신학적 수준을 외면한 서로의 관계맺음에 주목하는 자세를 비판하였다. 청소년 I는 교리교사들이 사제들하고의 갈등 관계에 주목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다’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제들 때문

에’ 주일학교에 등을 돌린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주일학교를 전반적으로 ‘고리타분’ 하고 ‘권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은 청소년 G, H의 인식에 대한 사례 B, 교리교사 F의 입장을 살펴보자.

학생의 말이 이해는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를 ‘놀러오는 곳’으로 무조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일학교는 분명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임에는 분명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 바티칸에 갈 때 복장규정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 태국의 왕실을 관광코스로 방문할 때는 반바지 못 입게 한다. 그렇게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그것을 강조할 뿐이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나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난 예의를 지키는 청소년들을 택하겠다. 예의를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 학생이 예의를 지키게끔 할 것이다. 성당을 놀이공간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문제다. 하지만 신부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신부의 입장이 교리교사에게 전달되면서 다시 학생에게 전달될 때 모종의 강압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이 시켜지고 받아들여지고 거부되고 하는 것 같다. (사례 B)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교리교사들도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아 달라. 우선 교리교사회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탄생한 동호회도 아니고 힘든 좋은 본당의 기구이며 보좌신부를 지도자로 두고 있는 엄연한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과, 교육적 의무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그러한 과정이 너무 보좌신부의 권위로, 본당의 구태연한 시스템으로 일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학생들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할 말 없다. (교리교사 F)

딱딱한 주일학교 운영체제에 불만을 가지는 청소년들의 의견에, 사례 B는 주일학교라는 특성이 ‘딱딱함’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일학교의 목적과 방향을 간과한 채, 단지 즐겁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B의 인식이었다. 교리교사 F는 학생들의 인식에 많은 부분 동감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시스템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도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대간 인식의 대한 상호반응들을 정리하면 <표Ⅲ-1>과 같다.

구분	'위기의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	다른 세대의 인식에 대한 반응 양상		
		사제	교리교사	청소년
사제	외부적 요인(사교육, 청소년문화) 교리수준저하, 교사수준 저하		신학적 지식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한 필요함	성당만의 예의를 간과할 수 없음
교리교사	사제들하고의 갈등 (갈등을 야기 시키는 시스템)	외부적 요인은 예전에도 있었음 / 교사역량문제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님		전적으로 동감하나 조직적 문제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함
청소년	사제와 교사의 인식에 동감은 하나 상호간 심각한 갈등상태는 아니며 전반적으로 '고리타분'한 주일학교의 '재미없음'에 주목	주일학교 환경의 뒤떨어짐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님	사제문제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 하는 것 같음	

〈표Ⅲ-1〉 - 주일학교 내에서의 세대간 인식의 차이

〈표Ⅲ-1〉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일학교를 구성하는 각 세대간에는 서로 상이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먼저 사제들의 경우는 주일학교 외부적 요인과 교리의 수준, 교리교사 역량 등을 강조하였으며, '고리타분함'을 지적하는 다른 세대에게 '그렇다고 권한 행사를 무조건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즉 '신앙교육'의 필연적 방향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리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교리교사들은 거의 전반적으로 '사제들하고의 갈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상정하였다. 짧은 임기로 자주 교체되면서 주일학교의 전반적인 사향에 대해 간섭을 하는 것을 체계적인 시스템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사제들이 '교리교사의 수준'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청소년들의 입장에 대해 교리교사들은 상황의 이해를 요구하면서도 그 지적의 핵심에 대하여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제와 교리교사들이 상호 갈등관계 속에서 주일학교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학생들은 사교육 문제, 시설낙후, 교리교사 수준, 사제의 권위적인 문제 등에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교리교사들하고는 어느 정도의 친분 상태가 존재하였으며, 또 그렇다고 사제들하고 심각한 갈등수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전반적으로 주일학교의 고리타분으로 인한 '재미없음'을 그들이 주일학교에서 받을 돌리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강조하였다.

2. 세대간 특징에 대한 이해

앞장에서 살펴본 ‘주일학교 위기’에 대한 각 세대간의 인식은 각기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인식의 편협성’이라는 부분이 어느 한 세대만의 입장에서 전개됨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세대간의 인식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만 주일학교를 분석할 경우, 그 방향점은 전체적인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주일학교라는 공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다양한 양상들, 특히 세대간의 갈등구조 양상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주일학교 내에서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는 분명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세대마다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그 특징되는 세대간의 충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annheim이 언급한 것처럼, ‘세대의 숙명성’이 의미하는 세대충돌의 필연성을 함께 이해하면서 갈등구조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2.1 사제세대의 특징

2.1.1 가족적세대의 특징이 강한 사회적세대

교육 전달자세대로서 주일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사제세대들은 교리교사들하고 갈등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그러한 주요한 이유로는, 교회 시스템적으로 교리교사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하여서도 ‘신앙교육’의 ‘엄연한 목적’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그들의 인식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을 살펴보자.

본당의 보좌신부는 ‘본당의 보좌’가 아니다. 주임신부의 ‘보좌’이다. 일종의 도우미이다. 이 관계를 굳이 말하자면 ‘상하복종’이다. 이것이 너무 지나쳐 때론 심각한 고민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일단은 보좌신부가 주임신부님의 ‘꼬봉’이라는 것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심각한 후폭풍을 맞게 된다. 신부세계는 굉장히 무섭다. 금세 소문이 나 버린다. 보좌신부가 주임신부에게 대들었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버리면 그 보좌신부는 단번에 요주의 인물이 되어 버린다. 특히 연배 있으신 신부님들에게 이런 인식이 들어가면 그 신부는 그야말로 파란만장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제 C)

신부세계에서 ‘복종’이란 말은 없다. ‘순명’이다.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단지 인간의 관점에서 조금 짜증나고 부담되는 ‘상하관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제 B)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제세대의 특징은, 사제들이 엄격한 상·하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당의 주임신부와 보좌신부사이에는 그러한 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사제 스스로 ‘복종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 이를 ‘단순한 복종’이 아닌 ‘순명’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음은 엄격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사제세대가 주일학교의 다른 세대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모습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자.

신부들이 상·하 수직적인 세계라는 것은 자기들만의 조직적인 체계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그것이 교리교사들에게 그대로 강요되는지 모르겠다. 한번은 행사 준비관계에 있어서 의견충돌이 있었다. 여름행사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었는데 교리교사들은 최대한 신부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다. 그런데 조금만 의견이 맞지 않으면 결국 한 소리 하신다. 교리교사들은 신부의 사목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그러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고 하신다. 그렇다고 교리교사들이 사목방침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좀 더 청소년위주로, 흥미와 신앙적 측면을 고루 담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생겨나는 일종의 의견차이일 뿐이다. 그런데 신부들은 이 프로그램의 활용가치를 떠나서 교리교사들이 자신의 방침대로 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 (교리교사 D)

모든 사목자는 ‘자기중심적’이다. 그렇게 일하기를 원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것이 지속되기를 요구하면 ‘지금부터는 내 방식’을 주장한다. 갈아엎어버린다. 원점으로 돌려버린다. 그 점이 가장 어렵다. (교리교사 E)

교리교사들은 사제들의 ‘자기중심적’인 사목방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본인의 사목적 권한’을 강조하면서 교리교사들 나름대로의 결실을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사제세대들은 그들의 세대안에서의 엄격한 ‘상·하 관계’를(사제라는 사회적세대안에서 ‘cohort와 cohort사이’의 수직적인 가족적세대의 구성) 그대로 교리교사들에게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잘은 모르겠지만 보좌신부님들이 주임신부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본당은 매년 주임신부님 축일을 전후하여 본당잔치를 한다. 주일날 교중미사가 끝나고 성당 마

당에 전 신자들이 국수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런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행사 전날부터 작업 끈으로 변신한다는 것이다. 교리실에 있는 그 많은 책상을 날라야 하고, 행사 당일에는 서빙을 해야 한다. 다 좋다. 아니 좋다고 치자. 그런데 그때 보좌신부님들이 왜 그렇게 민감한지 모르겠다. 책상 대충 놓았다고 노발대발이고 국수 좀 흘렸다고 마구 뭐라 그런다. 이런 말해서 그럴지만, 솔직히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생일날 이렇게 하는가?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그런다. 그리고 보좌신부님은 어떻게 해서든 주임신부님에게 잘 보이려고 오바하는데 밥맛이다. 완전히 공화국이다. (청소년 G)

우리 본당은 성탄 전야미사 때 주일학교에서 강론을 맡아서 성극을 보여줄 때가 있다.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연극 쪽에 유능한 교리교사가 있어서 몇 년은 잘되었는데 그 후에는 전문가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가 잘 안된 적이 있었다. 그래도 우리들은 이런 것이 학창시절의 추억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대본도 만들고 준비도 했다. 물론 미흡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1-2주를 시간 다 쪼개가면서 연습을 했는데 전야미사 이를 전에 주임신부님이 우리 연습하신 것을 한번 보시는 것 같았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보좌신부님이 우리 연습하는데 오셔서 ‘행사취소’를 통보하셨다. 연습 많이 했다고, 왜 그러냐고 따져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다. ‘주임신부님이 보셨는데, 이런 수준으로는 신자들한테 망신만 당한다구’.. ‘정말 웃기는 소리이다. 성당이 그렇게 대단한 곳인가? 여기가 돈 받고 연극공연 하는 곳인가? 열심히 하면서도 실수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때 성극 준비한 친구들 중 거의 대다수가 그날부로 성당 끊었다. 지금도 만나면 욕만 한다. 슬프지만 신부님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본다. (청소년 I)

청소년들의 경우도 교리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사제들의 일방적인 지침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보좌신부가 주임신부의 관계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해한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제구조라든지 본당시스템을 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니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 교리교사들은 분명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교리교사라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대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니, 행사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연히 지도신부가 수정을 가해야지, 무슨 지도신부가 결재만 하는 사람인줄 하느냐? 우리 본당도 매년 그런 일 일어난다. 지난여름에 초등부 물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을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전히 먹고 놀자는 판이다. 그걸 바에는 왜 주일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를 하느냐? 신부가 이럴 때 캔슬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

었다는 것인가?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그 지도자가 결재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누가 욕하더라고 이것은 지켜줘야 할 부분 아닌가? (사제 B)

하지만 사제 B의 경우, 교리교사와 청소년들의 사제들의 위계적인 분위기에 대한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제의 임무를 ‘신앙교육의 확실한 목적 달성’을 위한 권력행사라는 것에 두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일정부분 절대적인 권한이 사제들에게 있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근데 난 이렇게 묻고 싶다.⁶²⁾ 우리 본당도 비슷한 상황이라 말하겠는데, 그런 컨셉도 그 전의 보좌신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물론 그때의 보좌신부는 그 전의 보좌신부의 방침이 고리타분하다면서 그냥 놀자는 식이었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보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신부님은 자기의 선배가 행상 업적을 마치 교리교사의 수준이하로 취급하면서 굉장히 노발대발 한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신경 쓴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런 것을 보고 어른들은 ‘열정이 있다’고 하신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 보좌신부는 초임지에서, 아니면 본인이 경력이 미흡할 때 무엇인가를 아주 획기적인 열정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서든 말이다. 주임신부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거 다 안다. 그리고 그렇게 점수를 잘 따야지만 앞으로의 인생도 탄탄대로 아닌가? 그러나 눈물은 언제나 교리교사들만 흘린다. (교리교사 F)

교리교사 F는 이러한 사제들의 ‘신앙교육의 목적’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적응해야 하는 교리교사들만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교리교사 F는, 사제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목적성’보다, ‘그 목적을 위한 방향성’, 즉 일방적으로 지시 내려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제세대는 가족적세대의 특징이 매우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⁶³⁾ 앞서 언급한 가족적세대의 상·하 수직적인 엄격한 위계질서가 사제세대 안에서 그래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사제세대가 주일학교 안에서 다른 세대를 상대하는 과정

62) 이 부분은 전반적인 사제의 인식에 대한 질문의 답이다. 바로 위에 언급된 사제B의 의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길 바란다.

63) 사제집단은 ‘혈통계보’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세대’가 될 수 없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가족‘적’ 세대의 특징을 사제세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제세대는 같은 목적을 향해 공통의 경험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엄연한 ‘사회적세대’이다.

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전통 사회에서 부모라는 지위에 부여되었던 ‘지위적 권위(positional authority)’, ‘일방적 권위(unilateral authority)’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제세대 내에서는 이러한 지위에 따른 관계가 ‘순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지만(70page의 사제B 참조), 다른 세대와의 관계에서는 ‘일방적인 복종강요’라는 인식으로 인해 상호간에 ‘갈등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1.2 전통적 교육세대

가족적세대의 특징이 강한 사제세대가 주일학교의 교육 전달자적 입장에서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신부들이 신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보좌신부가 교리교사들이 대학생이어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교리교사가 다들 40대라고 하여도, 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교리교사라도 보좌신부한테 교육의 임무가 있다. 또 임무를 떠나 신부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 우선 7년 동안이나 신학교에서 한 가지만을 공부하는데 어찌 평신도가 배운 신학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나 말이다. 보좌신부가 느끼는 하느님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핵심인 것이다. (사제 C)

교리교사들의 수준을 보면 되지 않은가? 일단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 발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리교사로의 점수는 거의 뺑뺑에 가깝지 않은가? 다만 젊은이로서, 그래서 청년사목의 차원의 중요성과 그들의 열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좋은 식으로 내버려두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리의 무지함에 대해서 신부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제 A)

사제들은 신학적 우위성이 확실하게 자신들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우위성을 바탕으로 신자들과 교리교사들을 교육시켜야 함은 ‘분명한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교육 전달자와 교육 전수자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은 바로 ‘전통적 교육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학적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학적 오류’를 확인 하는 것보다, ‘신학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신부님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학생이고 교리교사이고 삼위일체다, 성령강림이다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이 들어왔고, 또 이제 이골이 나서 별 다른 것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항상 이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가 고민이다. 그런데 신부가 이것을 마치 전문가스럽게 터치한다는 것이다. 이게 제일 문제인데, 본인들은 ‘신학적 오류’를 잡아야 하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그 대립이 깊어지는 것이다. 몇 년 전 일이지만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을 가르칠 때의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안발표를 하는데 내가 ‘천주교 4대 교리’에 접근하면서 그리스도교와 불교를 비교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단다. 이유인즉, 불교를 너무 미화시켜 그리스도교의 좋은 점이 덜 부각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식이다. 예를 들어 불교가 좋고 그리스도교가 좋지 않다고 내가 말한다면 분명 내가 지적받아야 하지만 이해를 위해 비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도무지 무슨 배짱인가? 근데 더 웃긴 것은 결국 교리실에 들어와서 확인 하는거 아닌가? 나도 짬뽕도 있고 해서 학생들한테 쪽도 있고 해서 소신껏 했는데... 결국 문제는 그 다음에 돌아왔다. 어디 교리교사가 신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개뿔도 모르는 놈이 이단을 가르친다고.... 어이없더라. 나이차도 별로 없어서 한번 싸우고도 싶었지만 참았다. 인생이 불쌍해서. (교리교사 F)

타협이 없다. 신부님들은 ‘교재중심만’인 주일학교를 항상 탓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결국 ‘교재중심’이라는 것이다. 내가 교리교사회장 시절에, 2주간은 교리중심의 시간을 가지고 2주는 활동교리를 주장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더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너무 자유롭게 풀어지고 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중지하는 것이다. 항상 이런 식이다.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새로움을 추구는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꺼린다고나 할까? 뭘 하든 ‘새로운 것’이 한 한기 이상 한 적이 없다. 결국 다 부질없다고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다. 그 결과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교리교사 D)

하지만 사제세대들의 ‘교육 전달자의 확실한 위치’라는 인식이 교리교사세대들에게는 분명한 ‘갈등구조’를 양상하고 있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교리교사들은 ‘신학적 오류’가 아닌 ‘교육 스타일’까지를 일방적으로 간섭하는 사제들에게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앞서 언급한 가족적세대의 특징을 지닌 사제세대의 ‘일방성’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다시 말해, 교육 전달자로서 교육 전수자에게 신학적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 사제세대들은(전통적 교육세대) 사제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교리교사들하고의 상·하 수

직적인 관계(가족적세대)를 통해 일방적으로 관계맺음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사제세대의 교육전달을 직접적으로 받는 교리교사들에게 많은 불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2.1.3 사제세대의 숙명성 이해⁶⁴⁾

이 장에서는 ‘세대이론’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특징이 형성되어지는 숙명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II.2.3.3), Mannheim의 세대형성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대단위(generation unity)의 성립을 위한 ‘숙명성’은 단순히 세대간의 차이를 통해 갈등을 보는 것을 지양한다. ‘세대간의 차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숙명성’은 갈등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닌,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신부세계처럼 선후배 개념이 철저한 곳도 없는 것 같다. 그들은 마치 ‘잘못된 것’이라도 서품을 먼저 받은 선배라면 아무런 의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다. 자기를 말로는 ‘순명’이라한다. 그렇게 교육된 신부들이, 본당에서 ‘반항하는 교리교사들이나 말 안 듣는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그들이 기를 쓰고 ‘자기주장’에 집착하는 이유는 일종의 주어진 서열관계를 교리교사와 학생들에게도 적용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신학교에서는 복종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것 아닌가? (교리교사 E)

교리교사 E는 앞서 언급한 사제세대의 특징 중에서 교리교사 등과 갈등양상을 보여 지는 것을(가족적세대, 전통적 교육세대의 특징이 다른 세대에게 강요될 때) 사제세대 안에서의 엄격한 관계가 그대로 세대간에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순명’의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사제세대는 교육 전달자로서의 위치에 있을 때, 교육 전수자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숙명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기숙사 생활, 수많은 봉사활동, 사회경험 활동, 엄격한 학사관리 등을 거쳐야지만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프라이드’가 정말 너무

64) 이 부분에서 세대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특히 ‘사제세대의 숙명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제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인터뷰과정에서 대다수의 사제들이 ‘사제들의 이러한 세대특징이 사제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경험 때문 아닌가?’라고 접근하는 본 연구자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

대단하다. 그 기간에 제공하는 지식과 체험활동수준이 여러 사회경험(물론 순전히 내 생각이다)이 마치 자신의 몸속에 깊숙이 경험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교리교사 D)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들어간다. 많은 공부를 하고, 일종의 엘리트 코스를 훈련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경험’ 아닌가? 사람들을 상대해본 경험 말이다. 그들의 제한된 경험으로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리교사 같은 젊은 집단들의 ‘일탈’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알 턱이 없다. (교리교사 F)

교리교사 D는 사제세대들의 특징을 신학교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사제들의 프라이드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리교사 F는 신학교 과정이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교리교사들의 입장은 사제들의 세대특징이 갈등구조로 나타나는 것은 신학교 기간 동안 체험된 사제세대들만의 특징과 사제세대 자체의 엄격한 위계질서가 그대로 세대간에도 표출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쁘게만 바라보니 마치 신학생 시절이 현재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의 출발점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동료신부의 경우 10년을 같이 살았다.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이 청소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가고 같은 날에 서품 받아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상황에서 사목을 하고 있다. 연차가 작은 선후배라면 거의 7-8년은 함께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절에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제가 되기 위하여 많은 수양을 쌓아간다. 우리에게서 공통의 지향점이 있으며, 공통의 과제가 있다. 주일학교로 좁혀보자. 거의 대부분이 방학 때마다 본당에서 교리교사들과 어울리며, 학생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 그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학기가 시작되면 모아서 토론하고 그런다. 그렇게 사제가 되면 가장 먼저 청소년사목의 임무를 받게 된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의논하고 토론했던 것을 우리는 실천에 옮길 뿐이다. (사제 B)

사제세대들만의 숙명성은 사제 B의 입장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다. 사제 B가 강조하는 것처럼 사제들은 10년의 긴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간의 의견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통의 지향점’은 바로 사제세대가 주일학교 공간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숙명성’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게 핵심이다. 신부들은 모두가 그렇게 청소년사목의 엄청난 책임자임을 자부하고 있으며, 그 방향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기분으로 정해서 사목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문제

이다. 신부들보다 더 오래 주일학교에 있는 교리교사도 있고, 심지어는 더 박식한 교리교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새 신부님이 청소년사목에 대한 제반사항을 마치 일반회사에서 사장이 교체된 후 부서마다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체크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다.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거. 보라. 그 오랜 기간 동안 신학생들이 그러한 ‘자신들만의’ 토론을 했으니, 신부가 되더라도 당연히 그러한 거지. (교리교사 F)

사제 B가 표출한 사제세대의 숙명적인 과정은 교리교사 F가 말하는 것처럼 사제와 교리교사의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교리교사 F는 사제들이 ‘공통의 주제로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한 청소년 사목 방향의 정당성’이라는 그들만의 숙명성이 바로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지는 상호간의 관계맺음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2.2 교리교사세대와 청소년세대의 특징⁶⁵⁾

교리교사세대와 청소년세대는 사제세대와는 다르게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앞에서 알 수 있었다. 특히 교리교사는 주일학교 운영에 있어서 ‘사제와의 관계’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었으며, 청소년들은 ‘고리타분함에 재미반감’을 탈 주일학교의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사제들이 사교육 등에 주목하는 주일학교 외부적 요인이나, 주일학교 시설이라든지 교리교사수준 같은 주일학교 부수적 요인에 주목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유의하면서 교리교사세대와 청소년세대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2.2.1 가족적세대의 특징이 약한 사회적세대⁶⁶⁾

사실 예전에는 교리교사회의 군기가 상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때는 교리교사회의 군기도 신부와 교리교사와의 관계도, 그래서 덩달아 교리교사와 학생의 사이도 굉장히 권력적인 종속관계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학창시절에 성당에서 기합 받는 것은, 심지어는 맞은 적도 있는데, 별로 대단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너무 정도가 빈번해서 별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관계가 엄청나게 변했다. 먼저 연차 높은 교리교사들

65) 이 부분에서 교리교사세대와 청소년세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세대특징’을 서술하는 것은 이 두 세대가 사제세대와는 다르게 ‘동일한 cohort’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통경험과 그로인한 유사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또한 앞서 사제세대를 설명하면서는 ‘사제세대가 형성되는 숙명성’에 대한 부분을 따로 언급하였지만, 여기서는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본문 전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할 것.

66) 교리교사세대와 청소년세대 역시 ‘엄연한 사회적세대’이다. 여기서는 사제세대와 비추어 얼마나 ‘가족적세대’의 특징이 있는지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각주 63 참조.

이 대거 감소하였기 때문에 20대 초반의 교리교사들의 ‘신세대성’이라고나 할까? 하여튼 예전의 그렇게 선배, 후배 개념으로 생각하다가는 문제가 많다. 사실 문제라기보다 아무도 교리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과거의 악습을 버리고 있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교리교사 E)

내가 20살 때, 선배교리교사들이 교리교사생활 2년하고 군대 가면 군대생활 절로 적응된다고 했다. 실제로 2년하고 군대에 가보니까 군대의 기합이 교리교사생활에 받았던 기합하고 비슷하더라. (웃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러한 교리교사들 내 군기가 엄청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한번은 여름행사 준비하는데 후배들이 정신을 못 차렸는지, 선배들이 가장 구석진 교리실로 다들 집합시켰다. 그 곳이 굉장히 밀폐되어 있어서 여름에 창문 닫고 있으면 땀이 절로 흐르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서 선배들이 일장 연설하다가 어깨동무해서 앉았다 일어서기 하는데 그만 한명 기절한적 있었다. 굉장히 공포스러웠지. 최근에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불과 7-8년 전에만 하여도 존재하였던 일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일학교에 학생 수도 많았으며, 학부모님들의 기대도 많았으며, 그러한 부담감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작용한 것 아닐까 한다. 지금은 뭐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와 주는 사람 자체가 고마울 뿐이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버릇없어서 이래서 안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주일학교의 존립을 위해서 다 받아준다. 이러니 교리교사회 자체도 ‘좋은 게 좋다’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교리교사 D)

교리교사 E와 D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교리교사세대들은 자체적으로 매우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명 모두, 최근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엄격한 권력구조’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에 대해, 주일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고, 교리교사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연한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단 두 명 모두에게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상·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교리교사세대 분위기가 최근에는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교리교사들하고는 선생과 제자 관계라고 할 수 있나? 어릴 때는 함께 복사단도 하고 같이 여름캠프도 가고 그랬는데 말이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교리교사가 되면 호칭 때문에 곤란하기도 하다. 대학생이 되어서 교리교사가 되어 처음에 수업에 들어오면 그 긴장의 눈빛과 버벅거림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다. 양복도 입고, 전혀 안 그랬던 사람이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니 참 재있다. 내용? 에이 누가 내용을 듣는가? 그냥 친구 같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지. 결국에는 뭐 인생얘기 신나게 한다. (청소년 G)

가장 먼저 교리교사들하고 친해져야 한다. 그것이 오랫동안 주일학교에 나오게끔 하는, 그리고 신부님들이나 교리교사들이 원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길이라면 길일 것이다. 나 처럼 오랫동안 성당에 나온 사람은 원래부터 교리교사들하고 형, 동생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친구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 그렇다고 주일학교 교사에게 ‘선생님’이란 호칭이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렇게 친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고민거리도 못 털어놓고 그러면서 성당에 오기 싫어하는 것이다. (청소년 H)

어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에 동원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었다. 모든 것이 ‘어른들’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게 제일 싫었다. 매년 느끼지만 성탄예수제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과연 ‘우리들의’ 축제인가? 우리는 매년 ‘어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발표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도 안 즐겁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끼리 기획하고,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매년 ‘성가합창’이나 ‘수화공연’이 대다수다. 아무리 여기가 성당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즐겨야 하지 않은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권한이 있으면 일단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면 되지 않은가? 왜 맨날 우리보다 어른들을 먼저 생각하는가? (청소년 I)

청소년세대의 특징은 그들이 교리교사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원하고 있는지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G의 경우, 교리교사들하고 함께 학창시절을 보낸 것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교리교사와 자신의 관계가 ‘사제지간’ 이라기보다 예전의 ‘친구사이’ 라는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H의 경우, ‘교리교사와의 친분 쌓기’가 주일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멀어지지 않기 위한 주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세대들은 교리교사세대들과 함께 경험하였던 학창시절에 대한 공통의 경험이 기반이 된 ‘상호간의 좋은 관계’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를 통해서도 청소년세대들이 ‘어른위주’의, 혹은 ‘어른에게 보여주기 위한’ 주일학교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청소년세대들이 상·하 종속적인 개념으로 진행되는 주일학교 행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은 ‘우리’라는, 자신들을 위한 무언가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다.

2.2.2 새로운 교육세대

앞서 살펴본 사제세대들은 다른 세대와의 교육적 관계에 있어서, ‘신학적 우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전달자의 확실한 역할을 사제들이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미 교리교사들과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제세대들의 일방적인 인식에 대해 반감을 처음에 드러낸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교육적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신부님에게 교리교사들이 배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신부님에게 무조건 배울 것이 있다’는 식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한번은 신부님께서 1년에 1회 실시되는 교리교사 신입학교에 신입교사를 보내지 않은 적이 있다. 신부님이 말씀은 교구 쪽 프로그램이 형편없기 때문에 자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보기엔 신부님의 교육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차라리 레크레이션을 병행하여 주는 교구 쪽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았다. 결국 ‘계시’와 ‘성서’, 그리고 ‘삼위일체’ 수준이다. 이걸 우리도 다 안다. 교구에서도 이걸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연령에 맞추어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이러한 전달을 위해서 레크레이션이 가미된 흐름이 무엇인지를 교구에서 가르쳐주는 것인데 교리교사들에게는 이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신부님은 무슨 생각인지, 자신의 방식으로만 밀고 나갔다. 그해, 신입교사들은 들어오자마자 난해한 신학적 지식을 멋모르고 습득 한 채,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청소년들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고 말았다. (교리교사 E)

주일학교가 일반 학교처럼 어떠한 지식의 우위자가 전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재전수하는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오산이다. 참고로 내가 교리교사 시작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아는 신학적 지식은 별반 다르지 않다.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래서 그때 알게 된 신학적 지식보다 별반 수준 높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 주일학교는 학문적 우위자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배우는 곳이 아니다. 주일학교는 정해진 교리가 지속적으로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배우는 사람들을 교회공동체로 끊임없이 유도하고 그들의 생활환경을 잡아주는 것으로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본다. (교리교사 D)

교리교사 E와 D는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우위성’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E의 경우, 신학이 주일학교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연히 접근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제들의 일방적인 전달루트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D의 경우, 신학적 가르침이 주일학교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즉 이미 정해져있는 교육 전달자와 전수자 관계를 벗어나서 공통의 목표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가 ‘교

육관계’ 보다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교리교사의 현재 상황하고 관련 있지 않은가? 얼마 전에 본당에서 교리교사 재교육을 일주일동안 한 적이 있다. 성서위주로 내가 하였는데, 교리교사들이 다들 바쁘니,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다. 신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신부가 무엇을 하든 간에 교리교사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부가 가르치고 교리교사가 그것을 받아서 다시 가르쳐야 하지만 그것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부들도 본당 구조상 주임신부님 보필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잘 그러하지 못 하는 것이 사실이다. 즉 신부와 교리교사와의 교육적 관계가 어떻다고 말하기 이전에, 지금 상황이 둘 사이의 관계형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하지 않은가? (사제 C)

그것은 그들이 ‘가르쳐 줄’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교육의 전달자와 전수자가 굳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럼 왜 교리교사 하는가?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교리교사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다. 가르침이 먼저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하고 관계는 그 다음이다.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리교사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가르침을 포기하고 관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사제 B)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리교사들의 ‘새로운 교육세대’ 적 특징이 사제들의 교육방식에 대한 반감이 아닌 그들의 상황과 역량이 그러한 특징을 만들 수밖에 없음이 사제들의 의견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사제 C는 교리교사들이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사제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관계가 이루어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으며, B의 경우 교리교사들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식전달의 수준’이 ‘교육 전달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제들의 인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리교사들이 전통적 교육세대의 개념에서는 어떠한 의미에서든 일정 부분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일학교가 가장 재미없는 이유는 여기는 ‘일장연설’위주라는 것이다. 강론도 그렇고 교리도 그렇다. 우리들이 가는 다른 곳은 서로서로 얘기한다. 자꾸 자꾸 학원문제를 주일학교랑 들먹이는데, 사실 학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청소년 I)

일방적인 교리는 이제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다. 조금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축구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여긴 영화를 보여줘도 맨

날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화질도 더럽고, 적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교리교사가 전해주는 교리가 아니라 교리교사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짜증내지 않고, 계속 여기에 나오는 것이다. (청소년 G)

청소년들은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장연설’ 위주의 지식전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I는 이러한 불만과 아울러, 다른 세대들이 사교육의 측면을 주일학교의 위기와 비교하는 것을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친절한 교육관계’에 주목하여 말하고 있고 G의 경우, 주입식 교리, 고리타분한 교리에 싫증을 내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좋은 교육은 ‘좋은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발을 붙일 수 있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3. 청소년의 신앙교육을 둘러싼 세대간 각축양상 - 모라토리움 모델의 적용

앞서 살펴본 세대이론에 있어서 모라토리움(moratorium)모델은 각기 다른 세대특징을 지닌 여러 세대들이 ‘청소년의 유예기에 대한 정의’를 둘러싼 다양한 인식의 차이, 즉 청소년의 미래상을 위한 각기 제시하는 방향들의 각축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것에 주목하여 모라토리움 모델을 주일학교라는 공간에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장에서는 ‘주일학교 청소년들의 미래적 모습을 위한 현 시점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세대간 인식의 차이 ① - 사제들의 인식

가족적세대의 특징을 지녔으며, 전통적 교육세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제세대들은 주일학교의 위기의 원인을 ‘사교육문제’, ‘시설문제’, ‘교리교사수준’ 등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한 사제세대들이 교회 청소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청소년세대의 다변적인 모습, 활기찬 모습 등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지만 ‘신앙교육’에 있어서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기는 무리 아닌가? 왜? 교회는 그들을 신앙인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신부의 의무감이라고 생각한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교회의 도움으로 혼탁한 현대 사회를 이겨내야 한다는 식의 의무감 말이다. 주변에서 많은 토론이 있지만, 청소년들을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다. 교회 안에서 ‘망나니 같은’ 청소년들이 있다면 반드시 신앙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 (사제 A)

종교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학생들이 하느님을 알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커야 하냐고? 당연한 신앙적 삶을 사는 것이다. 사목자는 그러한 삶을 위해 잘 이끌어줘야 한다. 이런 관심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다른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먼저 ‘사랑’이 표시되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위해 때로는, (예를 들어) 매를 들어도 된다는 것이다. 즉 신앙교육을 위해 사랑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한다면 효과도 없을뿐더러 주일학교의 의미가 없다. (사제 C)

사제들은 청소년들이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을 중요시 여겼으며, 또한 그러한 길을 위해 자신들이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청소년들의 일탈을 이해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강압적으로라도 그러한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A의 경우, 신앙교육의 선택권을 청소년에게 줄 수 없다는 식의 표현을 통해 ‘청소년 유예기’를 나타내고 있다. C의 경우, 청소년들이 신앙교육을 통해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사목자가 ‘잘 이끌어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하면서 청소년 유예기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신부님이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아주 엄격한’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그러한 청소년들인 것 같다. 심지어 일상적인 생활도 그러하길 바라시는 것 같다. 마치 자신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신부님들이 생각하는 신앙교육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인격적으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아주 유치하게 예를 들면, ‘착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로의 구분 같은 것인데, 뭐 미사시간의 자세 정도? 근데 조금 기준에 어긋난 보이는 학생들을 ‘해롭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 (교리교사 E)

사제들의 ‘청소년 유예기’에 대한 인식은 교리교사 E가 인식하는 것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E에 따르면, 사제들은 ‘아주 엄격한’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청소년들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제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춘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려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미약한 부분이지만 사제들의 청소년기의 유예기에 대한 인식이 다른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내가 분명 전문적으로 교육자는 아니다. 하지만 신학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명 나의 위치다. 성당에 올 때, 하느님을 위한 경건한 복장, 성전에 들어서는 올바른 태도 등

은 마치 길을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고 초등학교 시절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학창 시절 그러한 올바른 태도가 몸에 익숙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성당은 청소년들만의 공간은 결코 아니다. 학생미사에도 어른들이 오시고, 주일 내내 성당에는 여러 어른들이 계신다. 일종의 예의 아닌가? 단지 유행이 그렇다고, 덩다고, 어떻게 성당을 무슨 롤러장처럼 생각하면 되겠는가? 반대로 인라인을 탈 때 안전장구를 강요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강요해야 할 안전수칙이 있을 뿐이다. (사제 B)

사제들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대한 인식은 위와 같은 부분, 즉 복장이라든지, 미사에 참여하는 태도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사제 B는 청소년들이 성당에 참여하면서 지켜야 할 예의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 이를 위해 사제들의 이끌어줌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사제세대들의 교회청소년이 미래의 어떤 성장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미래를 위해 어떠한 ‘유예기’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⁶⁷⁾

3.2 세대간 인식의 차이 ② - 교리교사들의 인식

사제와의 갈등구조가 여러 번 확인이 된 교리교사들은 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굳이 신앙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일차적으로는 관계형성이 중요한 것 아닐까? 관계만 형성되면 차후에 천천히 신앙교육이 절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엄격한 신앙교육과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축구도 하고 영화도 보고 PC방도 가야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십계명과 삼위일체를 외쳐야 하는데, 아무리 개방형 수업이라도 학생들은 이런 단어들만 보면 그저 짜증부터 내고 본다. 일단 관계부터 맺고 보자. 신앙교

67) 사제세대들의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된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 교육의 중대성 (Gravissimum Educationis)’ 1항은, ‘청소년들이 그 육체적, 도덕적, 지성적 자질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점차 더욱 원숙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올바르게 계발(啓發)하도록, 담대하고 확고한 정신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기술을 잘 배워 인간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기꺼이 노력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공의회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양심으로 도덕 가치들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격적인 동의인 동의로 받아들이며 또한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도록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라는 구절을 통해 ‘교회가 청소년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지’를 확실히 명시하고 있다.

육? 그거 따지다가 ‘나쁜 이미지’만 더 생긴다. 관계를 맺으면 신앙은 두 번째라고 쳐도 일단 나쁜 이미지는 없다. ‘적어도 여기는 나를 대화의 장소로 받아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닌가? 심계명과 주기도문은 두 번째 문제다. (교리교사 E)

교리교사 E의 경우, 지나친 신앙교육의 강조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가톨릭을 바라보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란 점을 말하고 있다. 먼저 ‘관계’를 통해, 그러한 ‘관계의 확립’을 위해, 신앙교육과 거리가 먼 것이라도 서로간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이 이루어져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당위성⁶⁸⁾이 별로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학생 10명중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느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은가? 라고 의문을 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들 스스로 타당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양말을 신어야 한다, 민소매를 입어서는 안 된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도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웬지 성당이면 이러한 청소년들의 유행성을 이해해 줄 것도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러한 의심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중일 청소년들에게 마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세운다면 충격이 클 것이다. 개인적으로 복장규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할 위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고 지키지 못한 자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 등은 ‘교회답지 못함’이라는 범주 안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교리교사 F)

교리교사 F는 사제들의 인식하는 ‘청소년들의 자세’에 대하여 역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톨릭의 가르침에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가톨릭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한 자세’에 교육적 방향이 집중되는 것은 분명히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교리교사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3.3 세대간 인식의 차이 ③ - 청소년들의 인식

교리타분한 주일학교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며, 자신들만의 공간이 아닌 어른들 위주의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주일학교를 바라보는 청소년세대들이 교회 안에서의 청소년의 성장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68) 여기서 당위성이라는 것은 사제세대들이 인식하는 ‘교회 청소년들의 자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주일학교의 목적? 신앙교육? 무슨 소리냐, 이러한 것들 서로 친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 없다. 친해져야지 따르고 참여하게 된다. 근데 자꾸 목표를 따지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만큼 친하지 않다는 소리이다. 같은 내용을 몇 주, 몇 년을 반복해서 듣는데, 한 번도 먼저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다. 목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표부터 낮추어야 할 것이다. 아주 낮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지속시키면 그들이 원하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 G)

이 부분에서도 청소년세대들은 여전히 ‘관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G는 그러한 관계를 간과한 채, 주일학교 교육이 ‘청소년들이 신앙인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만 집착하는 것은 지나친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사 중이었는데, 민소매 셔츠를 입고 갔었다. 그런데 그날 신부님이 미사 강론에서 날 호명하더니, 성당에 그런 옷 입고 오면 되냐! 고 하더라. 뭐 예전부터 얼굴은 아는 사이여서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날 당했던 부끄러움을 잊지 못한다. 내가 잘못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내가 ‘불법’은 아니지 않는가? 이게 나의 냉담 이유이기도 하다. (청소년 I)

청소년 I의 경우, 사제세대들의 ‘교회 청소년들의 자세’라는 부분과 어떠한 충돌을 일으켰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I는 사제의 공개적인 지적에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중요한 것은 I 스스로 이러한 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냉담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의 강요’에 ‘교회에 등을 돌리는 현상’은 아래 부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냥 무조건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매일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성당은 1주일에 한번 씩 선택해서 온다. 그것도 지친 몸으로 말이다. 그들이 말하는 신앙생활과는 다르겠지만 나름의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온다. 근데 여기는 완전히 ‘눈높이’부터 다르다. 다시 말하지만 성당은 필수가 아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깨끗이 성당 정리했다. 주일까지 강제로 원가를 주입시키는 축을 말이다. 나는 그들을 이해한다. 또 나오는 애들이 무슨 교육이 잘 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나는 순전히 버릇이다. 즉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신앙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줄 아는지 때로는 날 막 대한다. 언제 나랑 그렇게 친해졌다고.... (청소년 H)

발목양말 애기를 해야겠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양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 근데 이걸 신으면 양말을 신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신부님이나 교리교사들은 양말을 착용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 어쨌든 내가 그날 교리실 들어가는데 교리교사가 들고 있던 볼펜을 던지면서 ‘누가 양말 안 신고 오라고 했어!’ 라고 소리 지르는 거다. 도대체 기분이 어찌나 더러운지 ... 발목 위 몇 cm 위 이런 규정 있는 것인가? 난 원래 굉장히 성당 열심히 나왔었는데 그날 이후 한 6개월은 나름대로 방황을 했다. 제일먼저 그 교리교사 얼굴 보기가 싫었다. 하지만 워낙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다녔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다 여기 있어서, 그래서 친구들도 날 보고 싶어 하고, 나도 친구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 성당에 나오게 되었다. (청소년 G)

청소년 H와 G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교회 청소년들의 방향성’에 대한 반감이 ‘교회 이탈’로 그대로 드러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H는 일상생활에 지쳐있는 청소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일학교에 대하여 ‘필수적인 아닌 곳’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G는 본인 스스로 ‘발목양말’에 흥분 하는 교리교사가 싫어서 교회를 이탈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들은 교회가 바라는 요구가 지나치다 싶을 때는 타협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그저 ‘교회를 떠나버리는’ 선택을 손쉽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직 교회를 탈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매우 ‘적응이 잘 된 사람’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펴는 H와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그리워서 다시 성당으로 발을 돌린 G의 입장을 볼 때, 주일학교의 출석하는 청소년들 역시 ‘교회의 지시성’에 많은 반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신부님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신부님의 뜻과 맞지 않는 학생이 시간이 흐른다고, 신부님께 맞추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으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성당하고는 인연을 끊게 된다. 종교적 이유와는 상관이 없다. 여름에 성당에 올 때, 슬리퍼라든지, 민소매라든지 그러한 복장규율에 혼이 나면, 그것 때문에 그냥 성당하고 담 쌓아버린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여기가 마치 의무교육처럼 청소년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옷을 벗고 오든 간에 천천히 교회에 동화되면 나이가 들면 다 스스로 교회의 룰에 자신을 맞추어 갈 텐데 말이다. (교리교사 F)

교리교사 F 역시, 교회의 방향에 청소년들이 ‘이탈’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교회의 방향이 마치 청소년들이 ‘의무교육’을 위해 주일학교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이탈의 가속화’만을 불러일으키는 꼴이 된다는 것을 F는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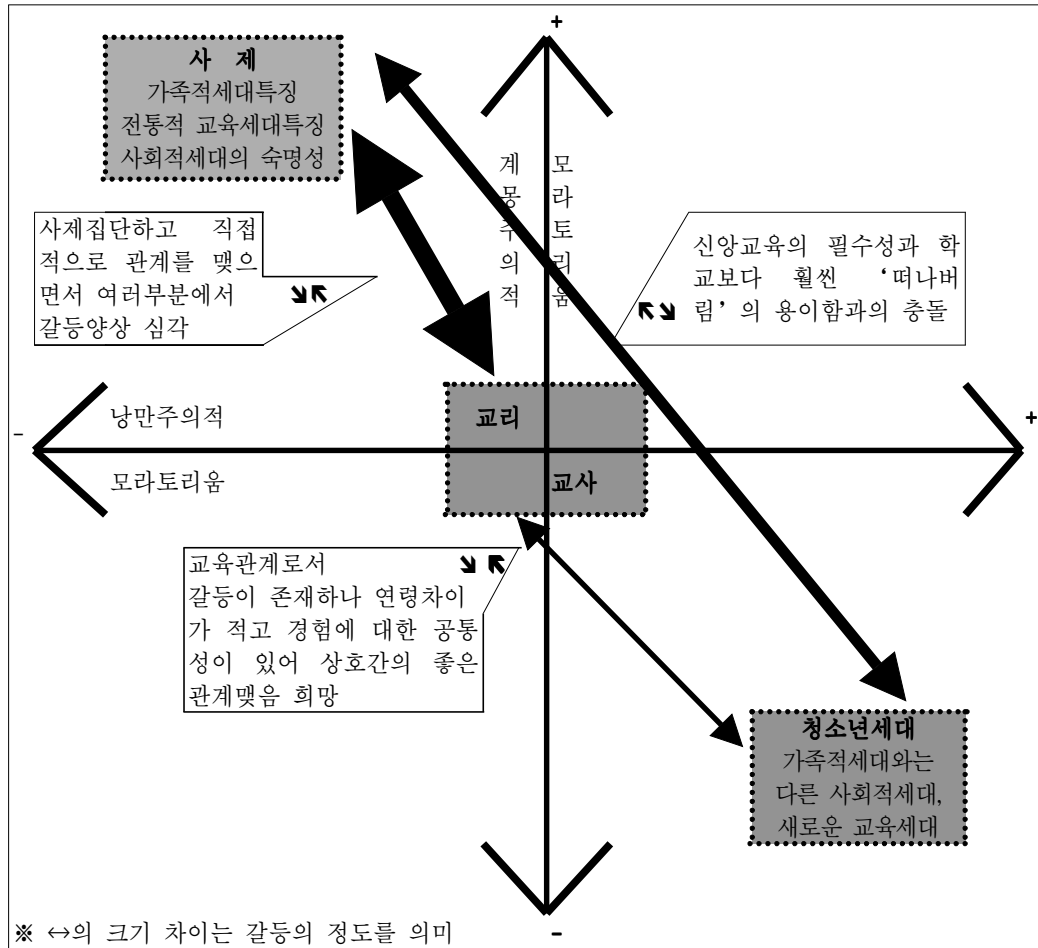
주일학교 안에서의 갈등은 학생들보다 사목자인 신부님과 모종의 결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리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사실 계속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요소는 학생과 교사, 학생과 신부가 아니라 신부와 교리교사이다. 교리교사는 그래도 성인이고 하니까, 아무리 갈등이 많아도 바로 때려치우지는 않는다. 선배한테도 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재계약 기간인 항상 1년 주기인 것이다. 그러다가 학생들이 좋아, 가르치는 것이 좋아 4년, 5년도 하고 그런다.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신부님과 교리교사들한테 있는 거다. 하지만 학생들은 다르다. 예를 들어 주일학교에 고박고박 나온 고등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 친구는 예초에 갈등이 없이 주일학교에 나왔다고 할까? 독실한 신앙인이거나, 그저 습관적으로? 아니면 부모의 등쌀에 밀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뭐 고민도 하기 전에, 조금 트러블이 생기면 교회와는 아주 쉽게 작별을 한다. 뭐가 아쉬운 것이 있냐는 식이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점은 언제나 사제와 교리교사 사이가 심한 것이며, 반대로 학생들은 아주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 여기가 맘에 들던가, 아니면 때려치우는가 하는 선택 말이다. 뭐 타협하면서, 참아가면서 성취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교리교사 D)

교리교사 D의 인식은, 주일학교 안에서의 세대갈등을 설명하면서 청소년이 주일학교에서의 ‘이탈의 자유로움’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주일학교의 세대갈등이 사제와 교리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청소년들은 갈등단계에 접어들기 이전에 이미 ‘주일학교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상호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D의 입장을 정리하면, 현재 주일학교의 갈등은 사제와 교리교사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주일학교의 문제는 이런 갈등관계를 겪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 세대 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주일학교 내에서의 세대간 충돌 이해

지금까지 살펴본 주일학교 내에서의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 세대간의 특징들, 그리고 ‘교회 청소년의 성장모습’을 둘러싼 각기 다른 인식들을 정리해보면 <그림 III-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⁶⁹⁾



〈그림Ⅲ-1〉 - 주일학교 내에서의 세대 간 각축 양상

먼저 지금까지 살펴본 사제세대의 특징은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자체적으로 강하며, 또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교리교사와 청소년들에게 ‘신학적 우위성’을 확실하게 전달해

69)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세대들의 역학관계를 무시한 채 모라토리움 모델의 일정부분에 세대들을 고정시켜 놓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명백한 한계가 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세대 역학관계보다 주일학교 내에서는 ‘여러 부분으로의 세대들의 흩어짐’이 더욱 일정한 특징을 지닌 채 ‘한 부분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연구자의 의도이기도 하다. 자세한 것은 결론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음.

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교회 청소년의 미래상’에 대한 인식에서 매우 강하게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교리교사세대들은 전반적으로 전통적 교육관계에서 점차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제세대들과 ‘갈등양상’이 항상 나타나고 있었다.

청소년세대들은 주일학교의 일방적 지시성을 분명히 거부하고 있었으며, 주목할 부분은 서로 대립되는 사항이 있을 때, ‘그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매우 쉽게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모라토리움 모델에서 ‘각 세대들이 여러 필드로 다양하게 흩어지는 양상’을 보였던 것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의 성향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세대들은 사제세대들이 교리교사세대와 심각한 갈등구조에 얽혀 있는 것과는 다르게, ‘주일학교 자체’에 반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교리교사세대들과는 유사한 연령대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서로간의 ‘좋은 관계맺음’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 주일학교에 흥미를 붙이는 길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주일학교라는 공간은 사제와 교리교사들의 대립이 가장 선명히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사제세대의 숙명성’(혹은 사제 조직의 숙명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제세대들의 상·하 수직적인 관계와 일방적인 지시성이 교리교사세대의 특징과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세대들이 ‘직접적인 갈등구조’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교리교사세대들과 단순한 교육적 관계가 아닌 ‘친구같은 관계’를 희망하는 것과 ‘청소년의 미래모습’에서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과 선명히 대척되는 ‘이탈’이라는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존 시각들의 ‘편협성’을 ‘세대 사회학적 접근’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에 대한 접근의 편협성’이란 것은 청소년을 ‘문제로서(as trouble)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입장’과 청소년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위험에 처한(at risk)’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의 연구들이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세대(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에게 동시에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닌, 한쪽 세대만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입장’은 될 수 있을지언정,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원인과 처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편협성을 극복하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세대 사회학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세대이론은 ‘세대차이를 통한 세대갈등’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여 ‘구분되는 세대간의 충돌과 그 충돌을 필연적으로 야기시키는 세대의 숙명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구분된 세대들은 일차적으로 혈통계보를 중심으로 상·하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적세대’와 유사한 연령을 바탕으로 동일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세대’였으며, 사회적세대의 하나로서 교육학적 세대를 분석하여 가족적세대의 특징이 강하고, 교육 전달자세대와 교육 전수자세대가 연령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전통적 교육세대’와 가족적세대의 특징이 약하며, 전달자와 전수자세대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교육세대’를 이차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사회적세대’와 ‘새로운 교육세대’는 처음부터 그 상호세대들간 함께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적세대’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인데, 이때부터 양 세대간의 주도권 다툼이 이른바 ‘세대충돌’이자 ‘세대갈등’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Mannheim이 제시하는 ‘세대 형성과정’을 통해, 세대관계는 주도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그 자체만으로도 ‘동등한 세대자격’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즉 ‘세대차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세대간’에는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닌 ‘팽팽한 긴장’이 존재하는 것이 필연적인 상황임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구분되는 세대들이 청소년의 유예기를 둘러싼 인식에 있어서 어떠한 각축양상을

보이는지 살펴 본 것이 바로 ‘모라토리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청소년기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 (가족적세대와 전통적 교육세대)과 청소년의 미래적 역할을 부인하며 현재의 모습에 충실 하는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 (사회적세대와 새로운 교육세대)은 구분되는 세대들이 어떠한 각축양상으로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거시적인 틀에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이렇게 ‘청소년 문제’를 좀 더 거시적인 틀에서 바라보게 해 주는 세대 사회학적 논의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 신앙교육’을 둘러싼 세대간의 각축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국 가톨릭 주일학교를 그 중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주일학교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에서 나타나는 편협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주일학교 사례들을 살펴 본 결과, 사제세대, 교리교사세대, 청소년세대가 ‘청소년 신앙교육’을 둘러싸고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그 갈등지점과 갈등의 정도 역시 새롭게 확인 될 수 있었다.

주일학교 내에서의 세대간 갈등 양상은 사제세대와 교리교사세대간에서 가장 선명히 부각되었으며, 청소년세대는 특정한 세대와의 갈등이라기보다 주일학교 자체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청소년세대가 ‘주일학교의 문제점을 받아들이면서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닌 ‘주일학교 문제점에 굳이 신경 쓰지 않은 채 관심을 돌려 버리는 것’, 즉 ‘교회 이탈’을 아주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음에 주목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주일학교 내에서, 세대들의 모습이 이러한 것에는 세대들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그 설득력을 더할 수 있었다. 사제세대의 경우 사제집단의 고유한 숙명성으로 형성된 ‘가족적세대의 특징이 강한 사회적세대와 전통적 교육세대’의 특징이 매우 강했으며, ‘청소년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을 추구하고 있었다. 반대로 교리교사세대와 청소년세대는 비슷한 연령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친분 관계 유지’에 의해 비슷한 세대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가족적세대의 특징이 약한 사회적세대와 새로운 교육세대’로서의 모습이었으며,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을 지향하고 있음을 통해 확인 될 수 있었다.

2. 의의와 한계점

세대 사회학적 논의의 핵심은 ‘세대간의 관계맺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며, 아울러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에 대한 세대 사회학적 접근은 ‘청소년만을 이해하기 위한’, ‘청소년 문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논의가 아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세대와 다른 세대와의 관계맺음 양상’에 대한 연구이며, 이는 ‘세대차이로 일관하는 세대갈등’의 시각으로 청소년세대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일학교에 대한 세대 사회학적 접근이 나타내는 의의는 ‘세대충돌’에 대한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시적인 틀에서, ‘숙명적 상황으로 인하여 형성된 각기 다른 세대’들이 ‘청소년 신앙교육’을 둘러싼 공간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세대 엇갈림’을 가시화시켰다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위기의 주일학교’가 ‘청소년들의 종교성을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와 교리교사의 갈등’, ‘청소년들이 신앙적 의무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의 기제로서 주일학교를 받아들이는 현상’ 등이 어울려져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제세대가 인식하는 ‘신학적 지식의 우월성’, ‘청소년들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신앙인적 자세’ 등이 교리교사세대, 청소년세대의 인식과는 기본적인 엇갈려 있기 때문에 ‘갈등구조’를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엇갈림’은 ‘도발적’인 것이 아니라, ‘각 세대들의 특징’끼리가 대치되는 ‘동등한 세대간의 필연적인 엇갈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일학교 문제에 대해서 어느 세대의 주도권적 입장에서 문제의 원인과 처방이 논의되는 것은 ‘획일(unifying)’적인 공존의 메아리일 뿐이며, 세대간 공존, 즉 상호가 이해하는 ‘통합(integration)’을 위해 상호세대의 엇갈림을 함께 풀어 나가는 성찰적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개 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세대 사회학적 접근이란 것이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긍정적 입장’의 어느 한쪽으로의 시각이 아닌 거시적인 틀에서의 ‘청소년 문제 이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함에 그 의의가 있겠지만, 본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이 ‘청소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청소년세대’가 주도권 다툼에서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 나머지 지나치게 ‘청소년세대의 시각’을 전반적인 연구 전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다.

특히, 주일학교 분석에 있어서는 사제세대, 교리교사세대, 청소년세대를 각기 분석하면서, 사제세대와 대비시켜 교리교사세대와 청소년세대를 한 범주로 설정하는 듯한 연구방향을 전개해 나갔는데, 이러한 점이 더욱 ‘한계점’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본문에서 계속적인 언급을 하였지만 ‘세대관계의 다양한 역학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이론적 모형에서, 가족적세대와 전통적 교육세대를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 부분으로 설정한 점, 마찬가지로 사회적세대와 새로운 교육세대를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 부분으로 설정한 점 등이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학생 유형을 세분화 하여 실업계 학생들의 ‘탈 실업계 성향’을 분석한 안재희(2003)의 연구라든지, 또 안재희의 청소년 유형을 모라토리움 모델에 적용시켜 세대 역학관계를 분석한 전상진(2004b)의 연구 등에서 강조된 ‘지나친 일반화에 대한 경계’를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주일학교 분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나친 일반화’에 대한 간과는 더욱 명백한 한계로 드러난다. 사제세대 안에서도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움 보다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움의 경향으로 청소년의 신앙교육을 주장하는 분류가 있을 것이며, 청소년세대 중에서도 ‘아무런 신앙심 없이 그저 출석만 하는 아이’부터 ‘투철한 신앙심을 가진 주일학교 매니아’까지 다양한 분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계몽지향적인 사제세대’와 ‘낭만주의적인 청소년세대’의 선명한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이러한 다양한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말았다. 이러한 점은, 연구자가 심층 인터뷰의 발췌사례를 ‘교리교사’에 치중하여 전반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점 등에서도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세대 사회학적 접근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편협적인 접근을 탈피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하면서 ‘대안점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주일학교의 경우, 세대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기존의 연구보다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갈등양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발판으로 한 ‘처방’이 부재한 점은 본 연구의 앞으로의 과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나타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 본문의 인용년도는 번역본 및 편집본 출판 년도임.
- ※ 저자들의 개별적인 논문들을 편집한 형태의 윤 진(1992), 김태련(1992)의 경우 원서표기에 있어 개별논문의 제목과 원서제목을 동시에 표기하며, 참고한 논문의 저자만 표기함.
- ※ 언론 문헌의 경우 기고형식이나 사설, 특집 칼럼으로 기사화 된 것에 대해서는 세부사항까지 표시 하였으며 단순 기사의 경우 날짜만 표기함.

▶ 국외 문헌

- Ariès, P., 1973, *L' enfant et la vie familiale sous l' ancien régime*, (문지영 역, 2003, 『아동의 탄생』, 서울: 새물결).
- Boran, G., 1996, *Youth Ministry that works*. Paulist press.
- Cosaro, W. A., 1997, *The Sociology of Childhood*, Thousand Oaks: Pine Forge Press.
- Ecarius, J., 1998, "Generationsbeziehungen und Generationenverhältnisse. Analyse zur Entwicklung des Generationenbegriffs." in Ecarius (ed.), PP.41-46.
- Elkind, D., 1995, *Ties that Stresses: The New Family Imbalance*, (이동원 외 역, 1999, 『변화하는 가족 : 새로운 가족유형과 불균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ed, (윤진, 김인경 역, 1988, 『아동기와 사회 : 인간발달 8단계 이론』, 서울: 중앙적성).
- Eyerman, R. & Turner, B. S., 1998, *Outline of a Theory of Gener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 Fowler, J., 1981, *Stage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사미작 역, 1987, 『신앙의 발달 단계』, 서울: 한국장로교).
- Giesecke, H., 1993, *Das Ende der Erziehung*, (조상식 역, 2002, 『근대교육의 종말』, 인천: 내일을 여는 책).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Longman.
- Liebau, E., 1997, "Generation.", in Wuff, Christoph (ed.) *Vom Menschen. Handbuch Historische Anthropologie*, Weinheim et. al: Belts.: pp.295-306.
- Livingstone, E. A., 1977,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nnheim, K., 1927, "The Problem of Generation." , <M. Hardy, ed, *studying Aging and Social Change*, Sage Publication, 1997>, pp.22-65.
- Mead, M., 1970, *Culture and Commitment : A Study of the Generation Gap*, Garden city: Doubleday.
- Mitterauer, M., 1992, *A History of Youth: Family, Sexuality and Social Relation in Past Times*, Oxpord &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einders, H., 2003, *Jugendtypen. Ansätze zu einer differentiellen Theorie der Adoleszen*, Opladen: Leske+Budrich.
- Reinders, H. & Wild, E., 2003, "Adoleszenz als Transition und Moratorium." , In H. Reinder and E. Wild(eds.). <*Jugendzeit-time Out? Zur ausgestaltung des Jjugendalters als Moratorium*. Opladen: Leske+Budrich>, PP.15-36.
- Rice, F. P., 1999,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Culture*, (정영숙 · 신민섭 · 설인자 역, 2004, 『청소년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Riley, M., Former, A., Waring, J., 1988, "Sociology of Age." , <Smelser, N. J., ed, *Handbook of Sociolog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pp.249-290.
- Ryder, N.,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0, pp.843-861.
- Westerhoff, J. H., 1974, *Generation to generation; conversations on religious education and culture*. Philadelphia: United Church Press.
- Wyn, J. & White, R. D., 1997, *Rethinking Youth*, Sage Publications.

▶ 국내 문헌

- 권귀숙, 2004, "세대간 기억전수 - 43의 기억을 중심으로." , <<한국 사회학회>>, vol 38(5), pp.53-80.
- 김태련, 1992, "청소년기의 발달과 발달과업." , <청소년 심리학, 한국 청소년 연구원, 서울: 한국 청소년 연구원, 1992>, pp.19-39.
- 민명석, 2000, *한국교회 2000 : 권위주의와 교회 중심주의를 넘어서*, 칠곡: 분도출판사.
- 문용린, 1997, "한국 천주교회 청소년과 교육." , <<사목>>, vol 223, pp.24-30.

- 박상준, 2002, “청소년의 신앙생활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신심운동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용진, 2000, *청년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 · 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vol 24: 2, pp.47-78.
- 전상진, 2005, *한국의 세대문제 -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파주: (주)나남출판.
- 서공석 · 정양모, 1998, *한국 가톨릭 교회 - 이대로 좋은가? :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1997 가을 심포지엄*, 칠곡: 분도출판사.
- 신동성 · 최영호, 1999, *한국 가톨릭 교회 - 이대로 좋은가? 2.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권위* 주의, 칠곡: 분도출판사.
- 송재희 외 공저, 1993, *신세대 : 네 멋대로 해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 송호근, 2003, *한국,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나 : 세대, 그 갈등과 조화의 미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신장호, 2003, “현안 주일학교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중 · 고등부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현석, 1995, “청소년 주일학교 신앙교육에서의 ‘미디어 교육’을 위한 제언.”, <<수원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재희, 2003, *실업계, 암순이들의 보고서*, 서울: 우리교육.
- 윤진, 1992,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 <청소년 심리학, 한국 청소년 연구원, 서울: 한국 청소년 연구원, 1992>, pp.1-18.
- 윤옥경, 2000, “사이버시대의 세대차이와 세대갈등에 대한 전망 : 세대문제 해결을 위한 장으로서의 사이버공간의 가능성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vol 11(2), pp.55-75.
- 윤주병, 1986, *종교 심리학*, 서울: 서광사.
- 이금만, 2000, *발달심리와 신앙교육*, 서울: 크리스찬 치유목회연구원.
- 이동연, 2003a, “세대정치와 문화의 힘.”, <<문화과학>>, vol 33, pp.95-108.
- 전상진, 2003b, “보호와 육성의 이분법을 넘어 - 청소년 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 개혁의 과제.”, <<당대비평>>, vol 21, pp.34-47.
- 전상진, 2004, “세대문화의 구별짓기와 주체형성 - 세대담론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문화과학>>, vol 37, pp.135-153.

- 이미영, 2005, “청소년 신앙교육 들여다보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력 있는 신앙교육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그리스도 교육수녀회 · 우리신학연구소 주최, pp.5-68.
- 이제민, 1995, *교회-순결한 창녀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한국 천주교회*, 왜관: 분도출판사.
- 장휘숙, 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전상진, 2001, “세대 사회학 : 그 가능성과 한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추계 학술대회>>, 2001년 11월, pp.12-20.
- 전상진, 2002, “세대 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세대개념의 분석적 구분.”, <<한국인구학>>, vol 25(2), pp.193-230.
- 전상진, 2003a, “계급과 세대.”, <<비평>>, vol 11, pp.242-260.
- 전상진, 2003b, “교육적세대의 개념적 적용: 최근 세대현상의 이해를 위한 시도.”, <<한국 교육>>, vol 30(2), pp.71-90.
- 전상진, 2003c, “본격서평: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송호근 지음/삼성경제 연구소).”, <<교수신문>>, <http://www.kyosun.net> 학술·비평에서 2004. 12. 24 오후 10시 5분 인출.
- 전상진, 2004a, “세대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 사회학>>, vol 38(5), pp.31-52.
- 전상진, 2004b, “학교위기에 대한 세대이론적 접근 - 교육학적 모라토리움의 세대이론적인 재구성.”, <<교육사회학연구>>, vol 14(2), pp.195-218.
- 조성남 · 최유정, 2003, “질적 접근을 통해 본 가족 내 세대갈등 양상과 통합기제.”, <<사회 과학연구논총>>, vol 11, pp.71-114,
- 조영승, 1997, *靑少年學總論*, 서울: 교육과학사.
- 조재연, 2004a,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실태 - 서울대교구 시노드, 청소년 공청회를 중심으로.”, <<사목>>, vol 303, pp.79-90.
- 전상진, 2004b, “청소년은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 관계와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목.”, <<사목>>, vol 304, pp.91-103.
- 전상진, 2004c,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현황 조사 - 서울대교구 시노드, 청소년 · 청년 의 안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사목>>, vol 305, pp.84-93.
- 전상진, 2004d, “청소년 사목자 양성에 관한 고찰.”, <<사목>>, vol 306, pp.105-117.
- 전상진, 2004e, “청소년 사목에 대한 교회의 시선.”, <<사목>>, vol 307, pp.108-119.

- 전삼진, 2004f, “포래사목(Peer Ministry).”, <<사목>>, vol 308, pp.94-105.
- 전삼진, 2004g, “2000년대의 새로운 청소년 사목 - 작은 공동체 시범 사업.”, <<사목>>, vol. 309, pp.94-106.
- 조종제, 1999, *21세기 주일학교를 부흥시킨다*, 서울: Grace.
- 조혜정, 1981, “마가렛 미드.”, <<현상과 인식>>, vol 5, pp.236-264.
- 조혜정, 1991, “청소년의 평등한 삶을 위한 과제 - 가족과 학교간의 유착현상을 통해본 제도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응책.”, <<한국청소년연구>>, vol 6, pp.5-21.
- 조혜정, 1993, “이제 교실에서 조용한 혁명을 시작할 때다.”, <<월간 중등 우리교육>>, 1993년 4월, pp.28-29.
- 조혜정, 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들.”, <<월간 중등 우리교육>>, 1996년 4월, pp.114-119.
- 조혜정, 1997, “한국 청소년들의 자리: <문화>와 공간이 필요하다.”, <<간호학연구>>, vol 6, pp.23-48.
- 조혜정, 1998, “그들이 책임지게 하자.”, <<월간 중등 우리교육>>, 1998년 11월, pp.54-57.
- 조한혜정, 2000a, “교실붕괴’ 상황을 계기로 탐색하는 새로운 교사상.”, <<월간 중등 우리교육>>, 2000년 1월, pp.64-67.
- 조한혜정, 2000b, “N세대 새로운 행동 패러다임 연구의 방향: ‘발달 심리학’에서 ‘자아 형성학’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 13, pp.1-8.
- 조한혜정, 2000c,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21세기 학교 만들기*,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최금자, 2005, “신앙교육의 둘째 만남 : 교사.”,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력 있는 신앙교육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그리스도 교육수녀회 · 우리신학연구소 주최, pp.165-206.
- 최윤미 외 공저, 1998, *현대 청년 심리학*, 서울: 학문사.
- 최윤식, 2001, *교사열정이 주일학교를 살린다*, 서울: 규장문화사.
- 최정은정, 2002, “세대없는 시대의 세대과잉론.”, <<Startingleing>>, 여름호, <http://www.statringline.co.kr/year2002/summer/theme3.html>, 2005. 3. 27. 오전 5시 50분 인출.
- 최 호, 2002, “가톨릭계 고등학교 종교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조사-대구대교구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2004, *한국가톨릭 대사전*, 왜관: 분도출판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어른들은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성인의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한명수, 2005, “신앙교육의 첫 만남 : 가정.”,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력 있는 신앙교육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그리스도 교육수녀회 · 우리신학연구소 주최, pp.119-164.

한상철 · 조아미 · 박성희, 1997, *청소년 심리학*, 서울: 양서원.

함인희, 2000,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공존을 향해.”, <<계간사상>>, 2004년 봄, pp.188-209.

조혜정, 2002a, “가족, 세대갈등의 역동적 무대.”, <<계간사상>>, 2002년 가을, pp.191-213.

조혜정, 2002b, “한국 가족의 위기 : 해체인가, 재구조화인가?”, <<가족과 문화>>, vol 14(3), pp.163-184.

허혜경 · 김혜수, 2002, *청년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기타 문헌

<가톨릭 신문>, “<청소년 주일 특집> 주일학교의 문제점과 유치원 교육 현황.”, <<2001. 5. 27. 기사입력>>, http://catholictimes.org/news/news_view.cath?seq=7919, 2005. 5. 8. 오전 12시 30분 인출.

<가톨릭 신문>, “기획/주5일 근무제 점검 - 주일학교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1)주 5일 수업과 주일학교의 실태.”, <<2002. 4. 14. 기사입력>>, http://catholictimes.org/news/news_view.cath?seq=12412, 2005. 5. 8 오전 12시 22분 인출.

<가톨릭 신문>, “기획/주5일 근무제 점검 - 주일학교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2)주일학교 교육 문화의 역할과 변화 방향.”, <<2002. 4. 21. 기사 입력>>, http://catholictimes.org/news/news_view.cath?seq=12553, 2002. 5. 8 오전 12시 24분 인출.

<가톨릭 신문>, “기획/주5일 근무제 점검 - 주일학교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3)변화의 어려움과 대안”, <<2002. 4. 28. 기사입력>>, http://catholictimes.org/news/news_view.cath?seq=12687, 2005. 5. 8 오전 0시 19분 인출.

<가톨릭 신문>, “‘주일학교 등록제’ 활성화 필요하다.”, <<2004. 2. 29. 기사입력>>, http://catholictimes.org/news/news_view.cath?seq=21670, 2005. 5. 8 오전 0시 12분 인출.

<가톨릭 신문>, “주일학교 교육과 교회의 미래.”, <<2004. 3. 21. 기사입력>>, http://catholictimes.org/news/news_view.cath?seq=21934, 2005. 5. 8 오전 3시 인출.

가톨릭 신문, “개학압둔 주일학교, 교사 재교육 필요하다.”, <<2004. 9. 1. 기사입력>>, http://catholictimes.org/news/news_view.cath?seq=14357, 2005. 5. 8 오전 0시 15분 인출.

가톨릭 신문, “주일학교 학생지도에 큰 어려움 느껴 - 김연준 신부.”, <<2005. 1. 9. 기사입력>>, http://catholictimes.org/news/news_view.cath?seq=25968, 2005. 5. 8 오전 2시 53분 인출.

<국민일보>, “사설 - 교과서 좌편향 심하다던데.”, <<2005. 1. 24>>, <http://www.kinds.or.kr>, 2005. 6. 1 오후 10시 인출.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http://www.cbck.or.kr/pds/council/15gravissimum.htm>, 2005. 5. 21 오전 7시 49분 인출.

<동아일보>, 2003. 8. 26.

동 아 일 보, “(7080 그때 그 시절에) 홍창진 신부와 교회 - 성당.”, <<2005. 1. 10>>

<사제 사목 생활에 관한 규범>, http://www.cbck.or.kr/pds/bishop_docu/cbck_docu_index.htm, 2005. 5. 22 오후 6시 인출.

<서울신문>, “사설 - 스팸과의 전쟁, 시작일 뿐이다.”, <<2005. 4. 1>>, <http://www.kinds.or.kr>, 2005. 6. 1 오후 10시 17분 인출

동 일 보, “사설 - 막무가내식 내신 때리기 자제해야.”, <<2005. 5. 7>>, <http://www.kinds.or.kr>, 2005. 6. 1 오후 9시 13분 인출.

<세계일보>, 2005. 1. 4.

_____, “음란물 바다에서 청소년 구해내야.”, <<2005. 3. 29>>, <http://www.kinds.or.kr>, 2005. 6. 1 오후 9시 19분 인출

<월간 가톨릭 디다케>, 2005년 3월호, http://didache.eduseoul.or.kr/sub/article/view.asp?a_idx=623, 2005. 5. 10 오후 7시 49분 인출.

<조선일보>, 2004. 4. 5.

동 아 일 보, “Na세대, 신 20대 탐험 - ⑥독하게 아껴서 무섭게 쓴다. 야누스 소비.” <<2005. 5. 19. 기사입력>>,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5/200505190331.html>, 2005. 6. 1 오후 5시 12분 인출.

동 아 일 보, “Na세대, 신 20대 탐험 - ⑩놀이는 Na의 힘.”, <<2005. 5. 27. 기사입력>>,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5/200505270317.html>, 2005. 6. 1 오후 4시 11분 인출.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노드〉, <http://www.synod.or.kr/html/synoran-1.html>, 2005. 5. 18 오후 7시 39분 인출.

〈청소년 기본법〉,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283300, 2005. 6. 1 오후 8시 41분 인출.

〈청소년 보호법〉,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283800, 2005. 6. 1 오후 7시 30분 인출.

〈청소년 복지 지원법〉,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283950, 2005. 6. 1 오후 7시 44분 인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284000, 2005. 6.1 오후 8시 인출.

〈청소년 활동 진흥법〉,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284150, 2005. 6.1 오후 8시 11분 인출.

〈평화신문〉, “청소년들이 교회와 멀어진다.”, <<2000. 3. 19. 기사입력>>, <http://www.pbc.co.kr/news/view.php?id=hom&no=164&keyword=569>, 2005. 5. 17 오후 9시50분 인출.

〈한국경제신문〉, 2005. 5. 4.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http://isis.nida.or.kr/>, 2005. 5. 7 오후 9시 53분 인출.

〈한국일보〉, “사설 - ‘약골 청소년’ 개선방안 강구하라.”, <<2004. 12. 27>>, <http://www.kinds.or.kr>, 2005. 6. 1 오후 10시 8분 인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http://www.cbck.or.kr/pds/bishop_docu/cbck_docu_index.htm, 2005. 4. 19 오후 8시 2분 인출.

〈한국 천주교 중앙회의 통계자료〉, http://www.cbck.or.kr/pds/statistic/2004_index.htm, 2005. 1. 30. 오전 3시 5분 ~ 2005. 4. 28. 오후 3시 30분 동안 인출.